

碩士學位論文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 문화

-생활용구, 방어시설 및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孫明哲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金宗錫

1998年 8月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 문화

-생활용구, 방어시설 및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孫 明 哲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金 宗 錫



金宗錫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초록>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 문화

- 생활용구, 방어시설 및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

金宗錫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孫明哲

본 연구는 石多의 환경하에서 돌의 이용의 역사와 방법을 究明함으로서 제주 지역 문화의 이해를 돕고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토교육의 자료로 이용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문헌연구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사전문헌연구에서는 발표된 기존의 논문들과 제주전반에 관한 문헌에서 수집·조사하고 현지조사에서는 제주의 전역을 대상으로 직접 관찰하고 면담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진촬영과 실측을 병행했다.

내용은 생산·생활 용구 제재(題材)로서의 돌, 방어시설재로서의 돌, 신앙 대상 상징으로서의 돌,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접근을 시도했다.

생산·생활 용구 제재로서의 돌은 첫째, 생산용으로 농기구, 어로기구, 경계 및 방축용으로서의 돌을 고찰해 보았고 둘째, 주거용으로 건축재, 생활용구, 도정 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牛馬와 관련된 기구를 살펴보았다.

방어시설재로서의 돌은 城(邑城, 鎭城, 環海長城)과 烽燧·烟臺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앙대상 상징으로서의 돌은 장묘석(지석묘, 동자석), 防邪塔, 돌하르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접근은 비석거리, 삼사석, 등돌로 나누었다.

※ 본 논문은 199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마지막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들과 관련된 분야들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보존방안으로는 주변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고증작업의 선행,
일관성 있는 문화재 관리정책을 위한 방안, 문화유적지 주변의 자연환경과 보전
에 관심, 도외로 밀반출되는 문화재에 대한 단속과 점검의 필요성을 들었다.

활용 방안으로서는 향토교육자료로서의 이용방안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과 한계점	2
II. 제주의 자연환경	4
1. 제주의 위치·지질적 기반	4
2. 石材利用의 역사	10
III. 생산·생활용구 題材로서의 돌	13
1. 생산용	13
2. 주거용	40
3. 牛馬와 관련된 기구	73
IV. 방어시설재로서의 돌	75
1. 城	75
2. 烽燧·烟臺	90
V. 신앙 대상 상징으로서의 돌	95
1. 장묘석	95
2. 防邪塔	100
3. 돌하르방	104
4. 미륵	113
VI.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돌	116
1. 비석거리	116
2. 삼사석	118
3. 등돌	119



VII. 보존과 앞으로의 이용 방안.....	121
1. 보존 방안.....	121
2. 활용 방안.....	123
VIII. 결론과 제언.....	129
참고문헌.....	131
Summary.....	136



표 목 차

<표. 1> 제주도의 지리적 좌표.....	4
<표. 2> 토지 이용의 변천.....	5
<표. 3> 우리 나라 주요 도시의 기온.....	8
<표. 4> 우리 나라 주요 도시의 강우량.....	8
<표. 5> 제주지역 월평균 풍속.....	9
<표. 6> 원의 이름.....	18
<표. 7> 연자매의 분포 상황.....	60
<표. 8> 정의읍성의 규모 변화 과정.....	80
<표. 9> 제주지역 봉수, 연대의 용소 관계.....	93
<표. 10> 문화재로 지정된 방사탑.....	103
<표. 11> 제주읍성의 우석목의 立地 이동상황.....	108
<표. 12> 돌하르방의 위치 분류.....	111
<표. 13> 미륵의 분류.....	114

그 립 목 차

<그림. 1> 토지이용의 비교.....	6
<그림. 2> 태풍통과 빈도(1940~1982).....	9
<그림. 3> 경작후 발생한 머들 처리 방법.....	11
<그림. 4> 남테 작업 모습.....	14
<그림. 5> 돌테.....	14
<그림. 6> 원담의 단면도.....	16
<그림. 7> 밀물때의 원담.....	20
<그림. 8> 밀물과 썰물 중간때의 원담.....	20
<그림. 9> 썰물때의 원담.....	21
<그림. 10> 배무숭이 소금밭 전경.....	23
<그림. 11> 돌무더기 틀.....	24

<그림. 12> 바닷물이 들어오는 웅덩이.....	24
<그림. 13> 구엄리 돌소금밭 전경.....	25
<그림. 14> 소금밭 경계선.....	26
<그림. 15> 백켓담.....	31
<그림. 16> 외담(잡담).....	31
<그림. 17> 잣길.....	32
<그림. 18> 경치돌담.....	32
<그림. 19> 잡석쌓기.....	33
<그림. 20> 겹담(접담) 쌓기.....	33
<그림. 21> 식은벽쌓기.....	34
<그림. 22> 바른돌쌓기.....	34
<그림. 23> 원형 산담.....	36
<그림. 24> 사각형 산담.....	36
<그림. 25> 정낭과 정주석.....	40
<그림. 26> 술각불(돌코냉이).....	41
<그림. 27> 소줏돌.....	42
<그림. 28> 돌화루.....	43
<그림. 29> 봉덕 위에서 곡식을 말리는 틀과 고리.....	44
<그림. 30> 돌등잔.....	45
<그림. 31> 빨래확.....	46
<그림. 32> 우물과 빨래확.....	46
<그림. 33> 물팡.....	47
<그림. 34> 돌도그리.....	48
<그림. 35> 불치막살이.....	49
<그림. 36> 물통.....	50
<그림. 37> 디덜팡.....	51
<그림. 38> 돌추.....	51
<그림. 39> 연자매 분해도.....	54
<그림. 40> 방앗돌 굴리는 노래 구연 장면.....	57

<그림. 41> 신엄리 연자매	61
<그림. 42> 구엄리 쌍방아터	62
<그림. 43> 일반형 ㄱ레	63
<그림. 44> 회귀형 ㄱ레	63
<그림. 45> 龍刻한 풀ㄱ레	65
<그림. 46> 풀ㄱ레 규격	66
<그림. 47> 돌방에	67
<그림. 48> 돌절구	68
<그림. 49> 남방에	70
<그림. 50> 경도 청수사 산노	70
<그림. 51> 방아짚는 모습	70
<그림. 52> 돌혹	71
<그림. 53> 약ㄱ레	71
<그림. 54> 기름틀	72
<그림. 55> 곰돌	73
<그림. 56> 마소 묶는 돌	74
<그림. 57> 제주읍성	78
<그림. 58> 정의현성	81
<그림. 59> 대정현성	82
<그림. 60> 애월연대	92
<그림. 61> 남두연대의 규격	94
<그림. 62> 동자석	99
<그림. 63> 방사탑	104
<그림. 64> 조천 비석거리	117
<그림. 65> 삼사석	118
<그림. 66> 등돌	120
<그림. 67> 제주돌을 이용한 정류장	125
<그림. 68> 탐동 해변공연장 윗부분	126
<그림. 69> 애월읍 문화체육관 전경	127

I. 序 論

1. 연구 목적

인간은 주어진 環境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며, 그 생활양식은 자연환경이나 역사, 사회적 조건에 적응 또는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濟州島는 본토와 멀리 떨어진 절해고도이며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한국최대의 화산도로 흔히 三多의 섬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오는 가운데 이루어진 섬주민의 기층 생활 양식 속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조건에 순응하고 혹은 극복하며 살아온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제주 선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생활도구의 제작을 착상하여 돌이나 나무 또는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연모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삼다 중에는 石多가 그 하나로 표시되는 것과 같이 전도는 돌로 덮여있다. 이러한 석다는 제주도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석다의 섬에서 태어난 제주인들은 주어진 여건을 이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돌을 생활의 용기로 활용하면서 문화를 창조해왔다.

돌과 인류생활의 관계는 매우 길며 인류가 돌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랜 일이다. 옛날에는 성벽, 건축물, 석기, 조각품 등이 인류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으며 한때는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에 밀려 돌이 현대생활에서 소외되는 감이 있으나 돌은 그 생김새처럼 질박견고(質朴堅固)한 모습으로 인류 생활의 초석이 되고 있다.¹⁾ 제주 문화의 특색을 돌의 문화라고 부르고 있듯이, 돌은 제주도의 향토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원이다.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인간이 자연환경의 자극

1)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1989), 「동아 원색대백과 사전 통권 9」, 동아출판사. p. 475.

에 대응 내지 적용하는, 그리고 지역의 자연이 주는 생활자료를 생존을 위해 활용하는 편익스러운 장치로서 일체의 생존 생활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환경의 함수로서 토지(자연)와 그 주민과의 관계에서 소산된 삶의 방편이 되는 일체의 생활양식이라고 볼 때²⁾ 제주에서의 돌은 물리적 대상물로서 단순한 자연물의 일부가 아닌 삶 자체로서 제주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돌은 제주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

제주의 돌은 검고 다공질인 현무암이 대부분으로 잡석을 모아 가옥의 벽이나 주택주변의 담장은 물론이고 묘지에 이르기까지 돌담을 쌓아 소와 말의 침입을 막고 울타리를 만들어 바람을 막았다 이밖에 생활에 필요한 연모들, 연자매, 멧돌 등 대부분의 석기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용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앞으로도 이들 석재의 이용은 개발의 가치가 크다. 때문에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는 반드시 이러한 돌의 문화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첫째, 생산·생활 용구제재(題材)로서의 돌, 둘째, 방어시설재로서의 돌, 셋째, 신앙 대상 상징으로서의 돌, 넷째,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돌, 마지막으로 보존과 앞으로의 이용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석다의 환경하에서 어떻게 돌을 이용해 왔는가를 究明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이해와 창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토교육의 자료로서도 이용하고자 한다.

2. 研究 方法과 한계점

上記의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서 사전문헌연구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사전문헌연구에서는 발표된 기존의 논문들과 제주 전반에 관한 문헌에서 수집·조사하고 현지조사에서는 제주의 전역을 대상으로 1997년 2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직접 관찰하고 면담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진촬영과 실측을 병행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연구 대상의 방대함 때문에 폭넓게 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깊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깊이에 대한 보완은 차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전 자료를 중심으로 하다보니 새로

2) 송성대(1994), 「문화지리학 강의 - 환경과 문화-」, 법문사. p. 30.

운 자료를 찾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사용되던 돌 용구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따라서 방치된 것이나, 새롭게 복원한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통의 모습 그대로를 기술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결국 손실 내지 철거된 경우는 문헌에 의존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서 밝혀내는 수밖에 없다.



Ⅱ. 제주의 자연환경과 돌자원의 분포

1. 제주의 위치 • 지질적 기반

1) 위치와 면적

제주도는 한반도 남서 해상에 위치한 절해의 고도로서 북쪽 木浦와의 거리는 141.6km, 北東의 釜山과의 거리는 286.5km, 東의 對馬島와의 거리는 251.1k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經緯度上으로 본 제주도의 수리적 위치는 經度上으로는 122° 08' 43"E에서 126° 58' 20"E 범위에 들어 있고 緯度上으로는 부속도서를 제외하고서 33° 11' 27"N에서 33° 33' 50"N의 범위에 있다.<표. 1참고>

<표. 1> 濟州道の 지리적 좌표

<本島>

位 置	地 名	座 標	
		經 度	緯 度
極 東	南濟州郡 城山邑 城山里	126° 56' 57"	33° 27' 10"
極 西	北濟州郡 翰京面 高山里	126° 09' 42"	33° 17' 19"
極 南	南濟州郡 大靜邑 下萁里	126° 16' 29"	33° 11' 27"
極 北	北濟州郡 舊左邑 金寧里	126° 45' 43"	33° 33' 50"

<附屬島嶼 包含>

位 置	地 名	座 標	
		經 度	緯 度
極 東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飛揚島	126° 58' 20"	33° 30' 41"
極 西	北濟州郡 翰京面 遮歸島	126° 08' 43"	33° 18' 28"
極 南	南濟州郡 大靜邑 馬羅島	126° 16' 10"	33° 06' 31"
極 北	北濟州郡 楸子面 시루여	126° 22' 10"	34° 00' 00"

資料: 國立地理院

지형적 특색을 보면 제주도는 火山島로서 火山地形의 특색을 잘 보여주며, 河蝕輪廻로 보아 幼年期 地形에 속하므로 火山原地形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 平面上의 모양은 長軸(東西)길이 73km, 短軸(南北)의 길이가 31km, 해안선의 길이가 253km인 橢圓形을 이루고 있다.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여 동서사면은 매우 완만한 경사(5°~7°)를 나타내고 있다. 본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실트화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스피테식 화산(楕狀火山)이다.

關係의 위치로 볼 때 제주도는 한반도의 南西端에 위치하는 절해고도로 近代 이전에는 流配地로 이용되는 등 그 위치가 갖는 중요성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대도 중국 문화권 속에 숨겨져 近代化가 늦어진 것과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본도는 교통기관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낙후된 섬으로 인식되어 그 발전이 저해되어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총면적은 1,845.69km²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면적이 작은 道이고 경지면적은 534.2km²로서 전국치보다 다소 높은 비율인 28.9%를 차지하고 있으나 透水性이 높은 지질상태, 河川流水가 없고 水利施設의 不備로 말미암아 논 의 면적은 경지면적의 0.5%에 불과한 8.6km²밖에 안 되어 대부분 밭농사에 의존하고 있다.³⁾

<표. 2> 토지이용의 변천⁴⁾

(단위 : 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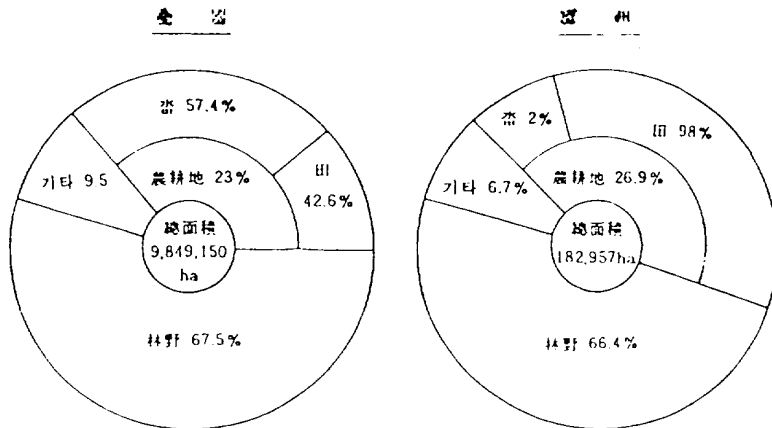
구 분	총면적	耕 地			垡 地	其 他
		총수	밭	田		
1957	1,792.06	393.69 (21.96)	9.13 (2)	384.56 (98)	20.40 (1.14)	1,377.97 (76.90)
1966	"	492.88 (27.50)	10.18 (2)	482.70 (98)	27.29 (1.52)	1,271.89 (70.98)

주 : () 내는 %

3) 제주도(1997), 「제주통계연보」, p. 46.

4) 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2권」, p. 665.

<그림. 1> 토지이용의 비교



2) 지질과 기후환경

제주도 지질의 형성은 대개 新生代 第3紀 말로부터 제4기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화산활동에 의해서인데 그 지질은 粗面岩, 粗面質安山岩, 玄武岩 및 약간의 堆積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岩石은 그 분포되어 있는 면적으로 볼 때 현무암이 가장 넓고 그 다음이 조면암과 조면질안산암 순이며 퇴적암은 그 분포면적이 가장 좁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5회의 분출윤회로 구분이 되며 모두 79회 이상에 달하는 용암분출이 관찰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무암의 분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으며 新生代 3기에 분출한 조면암이 원래의 기반인 화강암을 덮고 그 후 다시 제 4기에 현무암이 분출되어 그 위를 덮음으로써 이룩된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표면은 透水性이 강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降雨量은 많은 편이지만 지하로 빠져들어 용암층 밑을 伏流하여 해변에 가서 湧出하고 河川은 거의 乾川이 되어 있다.⁵⁾

본도가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화산도이므로 그 지질과 지형은 화산활동의 상태와 화산활동기간에 있었던 용암류의 분포에 따라 특징 지워지게 되는데 溢 出式噴火에 의해서는 流動性이 큰 용암인 현무암질과 마그마가 분출하여 아스피테(Aspite)式 火山을 만들어 한라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사의 용암평원을 형성하였고 동시에 간헐적이고 산발적인 맹렬한 폭발식 분화가 이루어져 다량의 화

5) 제주도(1982), 「濟州道誌 上」, pp. 412~413.

산진, 火山灰(직경 4mm이하), 火山礫(4~32mm), 火山岩塊(32mm이상) 등의 화산쇄설물⁶⁾을 표출시켰는데 이러한 화산활동의 결과 섬중앙의 한라산 頂點으로 한순상의 화산체를 형성하고 그 화산체위에는 각기 다른 粒徑의 화산쇄설물인 火山灰와 火山礫으로 뒤덮였던 것이다.

순상의 화산체는 평지 내지는 凹地가 없어 降雨時에 流水가 빠른 시간내에 방사상으로 流出되어 버려 지표상에 留水量이 극미하고 또한 留水가 있다 하더라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냉각 고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상절리의 발달로 모두 지하수가 되어 버린다. 이런 현상은 本島가 75% 이상을 차지하는 火山碎屑物인 火山灰土에 의해서 촉진되는데 즉, 火山灰土는 입경이 작은 미립이기 때문에 공극률(空隙率)이 낮아서 透水率이 저하되므로 降雨時에 역시 布狀流가 되어 流水量은 적어지게 된다.

이러한 지형, 지질적 특성 때문에 제주도는 우리 나라의 최다우지의 하나가 되는 몬순기후하에 있으면서도 관서지방의 석회암지대와 같은 뿔수지역의 하나가 되어 水災와 旱災가 연례행사처럼 나타났고 따라서 제주도의 농업적 토지이용은 필연적으로 대부분 田作地가 되어버려 水沓作은 겨우 0.5%의 면적에서만 행해지게 된 것인데 이것이 수도작지대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半島部와 크게 다른 점인 것이다.⁷⁾

제주의 풍토에 대한 내용은 17세기에 金尙憲이 쓴 「南槎錄」의 '風物' 편에도 잘 나타나 있다.

民多困窮。(地多巖石, 鋪土數寸, 土性浮燥, 墾田必驅牛馬以踏.)

“백성은 곤궁한 자가 많다.(이 땅에는 바위와 돌이 많고 흙이 덮인 것이 몇 치에 불과하다. 흙의 성질은 浮薄하고 건조하며 밭을 개간하려면 반드시 소나 말을 달리게 해서 밟아줘야만 한다.”⁸⁾

余見耕田者, 農器甚狹小, 如兒戲之具, 問之則曰, 入土數寸, 皆巖石, 以此不得深耕云。(내가 밭가는 자를 보니 농기구가 매우 좁고 작아 마치 아이들 장난감 같아 물으니 대답하기를 “흙속에 몇 치만 들어가도 모두 바위와 돌이니 그래서 깊이 밭을 갈수가 없습니다.”한다.)⁹⁾ 하고 해서 제주도의 열악한 토지환경을 설명

6) 권혁재(1994), 「지형학」, 법문사, p. 417.

7) 송성대, “제주문화의 재조명 : 삼무정신을 중심으로”, 제대신보, 1984. 9. 15.

8) 金尙憲(17세기초), 「南槎錄」, 金禧東 譯(1992), 永嘉文化社, p. 58.

하고 있다.

연평균기온은 14.7°C이며 2월의 평균기온은 4.7°C이고 가장 추운 때에도 -5~6°C 정도로 따뜻하나 겨울철 북서계절풍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낮다. 降雨量은 연평균 1,440mm정도이고 우리 나라에서 다우지에 속한다.

<표. 3> 우리 나라 주요 도시의 기온 (단위 : °C)

도시 기온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	가장 더운 달 평균 기온	연평균 기온	연교차	위도
제주	4.8(1월)	25.8(8월)	14.7	21.0	33° 31' N
서귀포	5.4(1월)	26.8(8월)	15.5	21.4	33° 14' N
부산	2.8(1월)	25.9(8월)	13.8	24.1	35° 06' N
대구	-1.6(1월)	25.4(8월)	12.6	27.0	35° 53' N
서울	-4.9(1월)	25.4(8월)	11.1	30.3	37° 34' N
중강진	-20.8(1월)	21.7(7월)	3.9	42.5	41° 47' N

자료 : 金光植 外(1976), 「韓國의 氣候」, 一志社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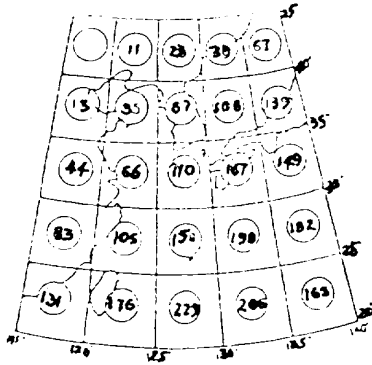
<표. 4> 우리 나라 주요 도시의 강우량 (단위 : mm)

월 도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제주	59.2	75.6	73.1	82.3	88.8	158.1	209.8	226.6	249.5	87.5	69.2	60.2	1,439.9
서귀포	58.7	52.8	85.7	205.0	203.5	273.6	276.0	187.4	138.1	49.3	97.7	47.9	1,675.7
서울	17.1	21.0	55.6	68.1	86.3	169.3	358.0	224.4	142.3	49.2	36.0	32.0	1,259.1
부산	25.3	44.1	88.5	113.5	139.3	197.5	247.6	165.0	205.1	73.1	43.9	38.5	1,381.4
대구	15.8	27.1	45.5	64.4	67.4	132.7	200.2	165.5	161.8	44.0	30.1	24.8	979.3
중강진	11.0	8.6	24.8	39.9	82.2	117.1	184.3	171.2	81.1	43.5	28.9	19.9	802.5

자료 : 金光植 外(1976), 「韓國의 氣候」, 一志社 참조

9) 金尙憲, 전계서, p. 58.

<그림. 2>태풍 통과 빈도(1940~1982)¹⁰⁾



바람은 '風多의 섬'이라 할만큼 많고 강하다. 연평균 풍속 4.8m/s이며 겨울철북서계절풍은 10m/s가 넘고, 폭풍이 일년에 1~3회 이상 불며 8~9월에는 태풍이 불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힌다.¹¹⁾

<표. 5> 제주지역 월평균 풍속

(단위 : m/sec)¹²⁾

월별 지역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제주시	5.2	5.2	4.5	4.1	3.5	3.4	3.5	3.5	3.6	4.0	4.5	4.9	4.2
서귀포	3.9	3.7	3.7	3.8	3.3	3.0	3.1	3.3	3.7	3.9	3.5	3.5	3.5
서 울	2.5	2.8	3.0	3.0	2.6	2.3	2.3	2.2	2.0	2.0	2.3	2.4	2.5

자료 : 제주도(1993), 「제주도지 2권」 참조

옛말에 제주를 三災의 섬이라 하였다. 이 말은 제주는 중앙에 높은 한라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니 비가 오면 물 흐름이 빨라서 수재(水災)가 많고, 또 돌이 많고 토지가 얇으니 조금만 한발이 되어도 가뭄의 재앙(旱災)을 받았다. 또 제주는 여름과 겨울철에 태풍의 통로가 되므로 자주 바람의 재앙(風災)을 받았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옛글에 산 높고 골 깊으니 물의 재앙이요(山高深谷水災), 돌 많고 땅이 부박하니 가뭄의 재앙이요(石多薄土旱災), 사방이 큰 바다되니 바람의 재앙이라(四面大海風災) 하였다. 그리고 이 災害가 일년 중에 거듭 되니 凶年이 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였다.¹³⁾ 이에 흉년이 든 것만도 光海君(1608년)부터 韓日合邦(1910년)까지 70회나 된다.¹⁴⁾

10) 송성대(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精神文化的 地理學的 了解-」, 도서출판 제주문화, p. 293 재인용.

11) 제주도(1993), 전계서, pp. 4~99.

12) 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2권」, p. 636

13) 김봉옥(1990),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p. 21.

이러한 기후조건은 지질적 조건과 더불어 농업에 있어서의 作物과 농경법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衣食住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民家の 형태, 구조의 특색을 낳게 했고 신앙 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지리적·자연적 환경은 도민의 생활양식을 규정지어 주면서 동시에 제주 문화의 특성형성에 직·간접의 영향을 주어왔다.

2. 石材利用의 歷史

인류의 생활과 문화는 돌의 이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돌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의 문명은, 아니 문화사는 기록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인류의 기원보다 더 오랜 '돌'은 예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 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돌을 움직이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인간과 돌의 만남, 그 오랜 세월 돌은 인간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 돌의 주재자인 인간은 떠나도 돌은 여전히 생명의 신비를 머금은 채 지금껏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갯마루의 돌무더기를 지나면 마을이 나온다. 마을 어귀에는 돌장승이 낮은 길손을 맞이한다. 돌담 사이를 지나 사립문을 들어서려면 거기에도 돌이 기다린다. 마당 한쪽으로 괴석(槐石)이 부하를 거느리고 꽃밭을 지킨다. 여섯 칸 대청마루도 그 받침은 돌로 이루어져 있다. 여인네의 다듬이 소리도 돌이 빛어내는 화음이다.¹⁵⁾

人類와 돌과의 관계는 매우 깊어 토목, 건축, 미술에서의 돌의 이용은 대단히 다양하며 돌과 신앙과의 관계도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밀접하게 나타난다. 호모 사피엔스, 즉 현세인류의 原始文化는 돌인 石器로 시작되었다. 打製石器時代를 거쳐 磨製石器시대에 이르면서 차츰 인류는 脫動物的 생활양식을 갖추게 되었고 여러 가지의 剝片石器나 細石器등이 인류의 뇌를 刺戟 진화시키면서 食料生産을 가능케 하였으니 原始農業의 그 前段階까지는 돌이 人類文化의 유일한 利器로 쓰였을 것이다.¹⁶⁾

특히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도로 돌과의 관계는 밀접하다. 농경

14) 김종업, "역사적 측면에서 본 耽羅精神", 「탐라정신연구세미나 국제발표요지」, 濟州道文化財課. p. 17.

15) 최영주(1997), 「돌의 나라 돌 이야기」, 맑은 소리, p. 13. 15.

16) 김형욱(1981), "돌? 돌을 보며 생각하다.", 「제대학보」, 제 22집, pp. 30~36.

과정에서의 돌의 발생은 필연적이었다. 이러한 돌들은 밭의 경계로 쌓거나 밭 구석진 곳에 쌓아 놓기도 했다. 제주시 오등동의 한 경작지를 보면 1200여평의 밭에 머들 생산량은 10여ton 정도로 보고 있다. 이는 근래에 들어 트랙터를 이용한 심경(深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돌은 밭 주위로 옮길 수도 있지만 노력이 많이 들고 장비가 부족한 때에는 밭가운데에 쌓아서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도 돌을 쌓아 놓은 곳은 커다란 돌이나 암반이 있어서 원래 밭을 갈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을 택한다고 한다. 이전에는 도로 포장용으로 많이 이용 되었다고 한다.¹⁷⁾

<그림. 3> 경작중 발생한 머들 처리 방법(제주시 오등동)



이를 통해 과거에서부터 경작과정에서 많은 양의 돌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를 도로작업, 경계용으로 쓰이고, 그리고도 남은 것은 백켓담으로, 또는 경작지 활용에 방해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의 석재이용도 역시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굽개, 박편, 돌날과 지석묘 등 많은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들이 석재로 이용

17) 오길목(53세), 제주시 오등동.
부창기(39세), 제주시 오등동.

한 돌은 현무암이다.

몽고의 침입과 더불어 왜구의 끊임없는 侵略은 제주인의 생활과 문화에 적잖은 작용을 하였는데 도민들은 이러한 외침을 방어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環海長城을 비롯하여 각 縣, 鎭 등 도처에 石城을 쌓았고 봉수대를 설치하여 스스로 섬을 지켰다.¹⁸⁾ 또한 돌은 일찍부터 밭의 경계검 바람막이로 이용되어 돌담을 쌓는데 사용되었고 집을 지을 때의 축담과 장판돌로도 쓰였으며 투박하지만 실용적인 온갖 石具들도 즐겨 만들어 썼다. 흔히 보이는 것으로 치자면 연자방아, 그레, 돌화로, 돌드그리, 돌혹 따위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石具들의 모양은 한결 같이 소박하고 투박한 것이 실용성을 빼면 남는 것이란 자잘한 손재주밖에 없다. 생활도구에 멋을 부릴만큼 자연이 너그럽지 않았고 그러할 여유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⁹⁾

돌은 계단 또는 벽체 및 지붕위에 붙여 치장식으로도 쓰이고 있으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돌하루방 또한 돌로 제작되었으며 석탑을 쌓아 방사탑이나 불탑을 세우기도 하였다.



18) 제주도(1982), 前掲書, pp. 408~413.

19) 월간 관광제주, “제주토박이들의 삶의 뿌리인 三多와 三無”, 제3호, 1984. 12.

Ⅲ. 생산·생활 용구제재로서의 돌

1. 생산용

1) 농기구

(1) 남테와 돌테

제주도의 농토는 火山灰土로 이루어져 있고, 게다가 대부분의 밭은 돌자갈로 깔려 있다. 토양 자체가 메마르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농사철에 씨(조)를 파종하고 난 다음에는 씨가 날리지 않도록 흙을 밟아 눌러 주어야 했다. 특히 여름 농사 파종 끝에는 의례 밭을 잘 밟아 주게 되는데 이때는 마소를 이용하거나 남테라는 밭이 여러개 달리거나 통나무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오늘날 도로정지 작업용으로 쓰이는 롤라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썼다.²⁰⁾

돌테는 이러한 남테의 기능과 흡사하나 통나무 대신 돌을 이용하고 말발굽같은 부착물이 없다. 돌을 대략 통의 직경 20cm, 길이 60~80cm로 둥그렇게 깎은 다음에 말뚝형이나 통나무형 남테처럼 양쪽 귀통이에 쇠를 박고 소나 말이 끌 수 있도록 줄을 묶는다. 표면상으로는 말발굽형과 흡사하게 만든 것, 거친 것, 매끄러운 것이 있다.²¹⁾

돌테는 통나무형의 남테의 무게가 가볍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말발굽형이나 말뚝형 남테의 장점을 살린 것이다. 본도의 농가에서는 반드시 집안에 간직해 두지 않고 밖에 두어도 비바람에 썩거나 상할 염려가 없는 반면 무거워서 옮기기 불편한 단점²²⁾이 있다. 주로 현무암으로 만들고 수명은 반영구적이다.

이렇듯 남테나 돌테는 척박한 농토, 더욱이 농사짓기에 불편한 자갈밭에서 경작해야 했던 제주도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농기구라 할 수 있다.²³⁾

20) 제주도 교육위원회(1984), 「三無의 얼」, p.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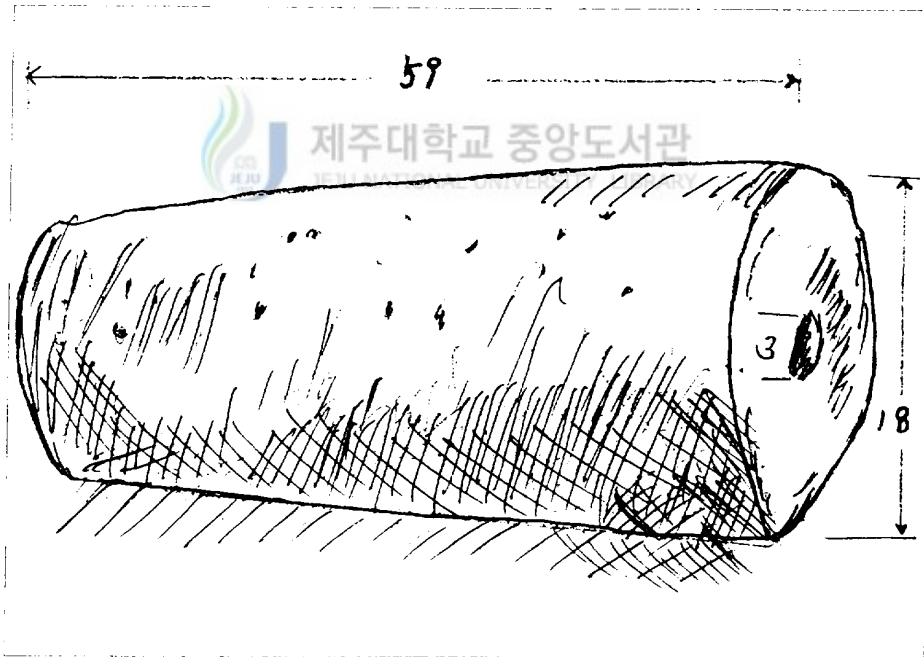
2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8), 「제주의 농기구」, 제주도 인쇄공업협동조합, p. 79.

22) 참고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자료번호 1,413)자료의 무게는 51kg으로 남테의 두 배 이상이 된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8), 전계서, p.79.

<그림. 4> 남테 작업 모습



<그림. 5> 돌테(제주민속박물관)



23) 진성기(1990), 「제주민속의 멋2」, 悅話堂, p. 97.

2) 어로기구

(1) 원담(원, 개, 갯담)

원담은 바닷가에 돌을 원형으로 쌓아 고기를 잡는 원시어로 형태를 말한다. 해변의 일정한 구역에다 돌을 쌓아두면 밀물에 따라 몰려든 고기떼가 썰물이 되면 그 안에 자연적으로 가두어지게 되는데 이때 원담 안에 갇힌 고기를 잡는다. 즉 돌로 만든 그물이라 할 수 있다.

조천·구좌·성산 일대에서는 '개'라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원'이라 한다. '개'라는 말은 해안가에서 살짝 만을 이루는 곳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담을 '갯담'(또는 '원담')이라 한다. 원은 돌담의 뜻을 갖는 '원(垣)'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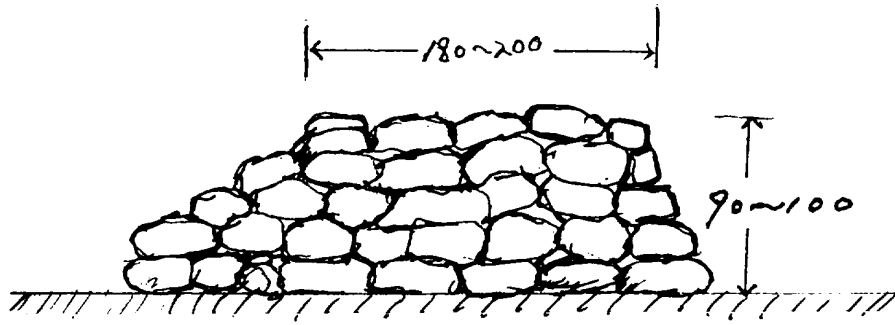
축조법을 보면 대부분의 원이 일정한 격식을 갖춘 인공적인 것이긴 하나 천연적인 원도 없진 않다. 천연적인 것들에는 '원'이나 '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통'이라 한다. 천연적인 원이야 돌담을 쌓아 두거나 일정한 시기에 그 담을 보수하는 등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인공적인 원은 그렇지 않다. 일정한 양식으로 담을 쌓고 또 보수도 해야 한다. 바로 이 담을 두고 '원담' 또는 '갯담'이라 한다.

원담은 밀물따라 고기떼들이 보다 많이 몰려들게 함과 동시에 파도에도 잘 견딜 수 있게끔 단단하게 쌓아야 한다. 이 때문에 원담은 일정한 축조법이 있기 마련이다. 아래의 단면도에서 보듯이<그림. 6 참조> 바깥면은 비스듬히 쌓아야 밀물따라 고기떼들이 보다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것이고 안쪽 담은 일직선으로 곧게 닿아야 담을 따라 이동하는 고기들을 일정한 어구, 특히 '족바지'(일종의 뜰채) 등으로 고기를 쉬 담아 올릴 수 있다. 또 원담의 윗면은 편편하게 해 뒤야 어부들이 담 위로 오가며 일정한 漁撈行爲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만든 원담 안의 원은 약 70평 정도의 것에서부터 4, 5천평에 달하는 것이 있기도 하다.²⁵⁾ 북제주군 조천리 중동의 경우 인공원담 70m와 자연 암반 70m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다.

24)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p. 1015.

25) 고광민(1995), "원(개)", 「제3기 박물관대학시민강좌」, 제주대학교박물관, . p. 239.

<그림. 6> 원담의 단면도(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이러한 돌그물 '원'은 제주도에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 규슈(九州) 오키나와에서도 확인된다. 이름이 조금 다를 뿐,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 문화집단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반도에서는 그 담을 돌 또는 대나무나 갈대를 엮어 세워 만들었다. 돌로 축조한 것을 '돌살(石箭)'이라 하고, 돌 대신 나무로 엮어 만든 것을 '어전(漁箭 또는 魚箭)' 또는 '어량(漁梁 또는 魚梁)이라 했다. 제주도는 돌이 많은 섬이라 견고하게 돌로만 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 원이 한반도의 것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다. 한반도의 것은 「朝鮮王朝實錄」 등으로 미뤄볼 때 철저히 개인 소유였으나, 제주도의 '원'은 마을 어로집단 공동 소유의 것들이었다.

원은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축조했고, 조간대(潮間帶) 위치를 생각하며 담을 쌓았다. 제주도의 원들은 마을 공동 소유의 것으로 우리 선인들의 생업 경제사와 기술사가 가늠되는 생업문화 유산이다. 환경조건에 따라 축조법이 다르고 어법(漁法)도 다름이 확인되는 실로 소중한 문화 유산이다. 제주도의 '원(또는 개)'들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분류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고기 이름, 원이 위치한 지명이나 주위 물체 또는 방향·환경조건·바람·조류·사람 이름·원의 생김새·역사 등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원의 속성을 알 수 있다.

물고기: 물고기 이름의 원에서는 조류나 계절에 따라 옮겨 다니는 이동성 물고기들은 물론 정착성 어족들도 원 안으로 몰려들어 어로대상이 된다.
 환경조건: 원담을 축조하여 원을 만들만한 곳이면, 그 환경 조건, 곧 바닥 조건을 가리지 않는다.

바람과 조류: 원 안으로 몰려드는 물고기들은 바람과 조류 영향에 따라 변화가 많았다.

사람이름: 이를 통하여 원을 축조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알 수 있다.

원 생김새: 입지 조건에 맞게 원을 축조했다는 반증이다.

역사: 원의 축조 시기와 그 배경이 가늠된다.²⁶⁾

“원은 임자가 따로 없다. 누구라도 달려들어서 바구니에 주워담으면 임자다”²⁷⁾라고 하는 것처럼 원담은 동네 사람들이 일손이 날 때 쌓아서 함께 공유했다. 조천리 중동의 경우도 10여년전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원담을 축조하고 어로작업을 했다고 전해진다.²⁸⁾

어로 기구, 어로 방법의 변모에 따라 20여년전부터 원 漁撈民俗은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원담의 형태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원담이 갖고 있는 마을의 공동체 의식과 제주의 고유 문화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6) 제주도교육청(1996), 전계서, pp. 1016~1024.

27) 오성찬(1990), 「제주의 마을 시리즈 ⑥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p.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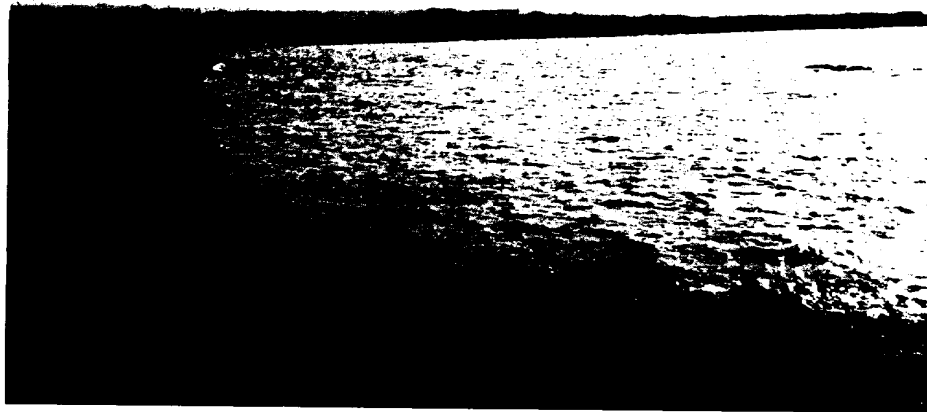
28) 해녀 이기생(70), 조천리 중동.

<표. 6> 원의 이름

분류기준	명 칭	지 역	이 유 (뜻)
물고기	큰 광애통, 작은 광애통	북군 구좌읍 하도리	광어들이 많이 몰려듦.
	새개	북군 구좌읍 하도리	새로 축조
	멜튼개	북군 구좌읍 하도리	멸치들이 많이 몰려와 뜸.
	다짚개	북군 구좌읍 하도리	다찌(독가시치)가 많이 몰려듦
	죽통	북군 우도면 천진리	죽(까치상어)이 몰려드는 물 웅덩이
	멜통	남군 표선면 토산리	멸치가 많이 몰려듦
	고래미통	최남단 마라도	고래미(다금바리와 닮은 고기)가 장마철에 많이 잡힘.
	생치원	남군 대정읍 하모리	생치(농어 비슷한 고기)가 가을에 많이 몰려듦.
	모도리수늘늪	남군 대정읍 동일리	모도리(돌묵상어)가 멸치를 쫓아 몰려듦. '수늘'은 '여릿'의 뜻.
	우럭원	제주시 도두동	우럭(우럭블락)이 많이 몰려듦
지명 주위물체 방향	무두망개	북군 구좌읍 하도리	개가 위치한 바다밭 이름이 무두망
	물턱개	북군 구좌읍 하도리	'불턱'(해녀들이 바다밭일을 하고 나 서 추위를 녹이며 불을 쬐는 자리)
	마농개	북군 조천읍 신흥리	평마농(마농=달래마늘)이 많이 자 생하는 연안에 위치
	먹돌난개	북군 조천읍 조천리	주위에 먹돌이 많이 있음.
	앞원	제주시 화북동	마을 앞 위치
	진빌레원	제주시 도두동	진빌레(빌레=암반이 있는 바다밭) 에 위치
	모살물원	남군 대정읍 신도리	원안에 水量이 풍부한 '모살물'이 솟음
환경조건	섯등머홀원, 동등머홀원	북군 우도면 비양동	머홀(커다란 돌덩이). 서쪽-섯등 머홀, 동쪽-동등 머홀
	모살원	북군 우도면 비양동	원 안 바닥이 모래로 깔려 있음
	작지원	제주시 도두동	바닥이 온통 자갈로 깔려 있음
	소원(沼垣)	북군 한림읍 금릉리	어떠한 干潮때라도 항상 바닷물 이 고여 있음
	빌레원	남군 안덕면 사계리	빌레(평평한 바닥돌)에 위치
	갯늪	남군 표선면 표선리	천연적인 바닷물 늪

바람	마복름원	북군 우도면 비양동	남풍(마과람)이 불면 고기들이 잘 물려듬
	한와지원	북군 우도면 비양동	북풍(마과람)이 불면 고기들이 잘 물려듬.
조류	돌썩원	남군 성산읍 신평리	물이 모두 빠져버린 원
	므른원	북군 한림읍 금능리	돌무더기가 주위 모래밭들보다 높아 썰물에는 바닷물이 빠져 바닥을 보임
	절잔개원	남군 안덕면 사계리	절(=과도)이 잔잔한 원
사람이름	홍건이개	북군 구좌읍 행원리	홍건이라는 사람이 아침 일찍 여기에서 고기를 잡음
	오상이원	북군 한림읍 수원리 용운동	부모상을 당한 오상이라는 사람이 제수(祭需)거리를 마련
	여백이원	남군 대정읍 상모리	여백이란 사람이 주도로 원 축조
	고참봉원	남군 대정읍 하모리	고참봉이란 사람이 주도로 원 축조
	봉문이하르방원	남군 표선면 하천리	'봉문'이라는 할아버지가 주동이 되어 원 축조
원생김새	도리원지	북군 구좌읍 하도리	썰물 때 섬 같은 바닥들 세 개가 서로 연결되게 담을 축조
	큰개	조천읍 신흥리	마을에서 넓이나 갯담의 규모가 가장 큼
	도고리원	제주시 삼양1동	원모양이 도고리(함지박)를 닮음
	솔박원	남군 대정읍 하모리	원 모양이 나무 바가지 모습
역사	므술원	남군 대정읍 하모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원되어 공동으로 만든 원
	새원	새원	원 어로가 성행했던 시기에 새로 축조

<그림. 7> 밀물 때 원담(북제주군 조천리 중동 먹돌난개)



<그림. 8> 밀물과 썰물 중간 때의 원담(북제주군 조천리 중동 먹돌난개)



<그림. 9> 썰물 때 원담(북제주군 조천리 중동 먹돌난개)



(2) 소금밭

인간에게 있어 소금의 필요량은 노동의 종류, 기후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성인에게는 하루 12~13g 정도의 소금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소금은 생존상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금을 얻기 위한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원시시대에는 동물을 잡아먹음으로써 동물의 몸 속에 농축된 염분을 섭취함으로써 소금의 보급원으로 삼았다. 그러나 농경을 시작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소금 섭취가 어려워지고 식물속에 함유된 칼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 균형상 소금에 대한 요구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이미 선사시대에 소금이 산출되는 해안·염호(鹽湖)나 암염이 있는 장소는 교역의 중심이 되었다.

로마시대에는 소금이 관리나 군인에게 봉급으로 지불된 일이 있는데 봉급을 뜻하는 영어의 salary는 현물급여를 뜻하는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유래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이전에 소금에 대한 문헌은 매우 적지만 「魏志東夷傳」(고구려) 조에 소금을 해안 지방에서 운반해 왔다는 대목이 있을 정도로 소금의 생산 유래는 깊다.²⁹⁾

29)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1989),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17권」, 동아출판사, pp.

소금의 생산은 우리 나라의 경우 지질구조상 호염(湖鹽)이나 암염(巖鹽)과 같은 육염(陸鹽)이 생산되지 않았던 관계로 일찍부터 해수를 이용한 海鹽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형태는 여러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형태의 하나로서, 해수를 가마솥에 넣어 화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염전에서 일광에 의한 해수의 증발과정을 통해 소금을 얻는 방법이었다. 부연하자면, 전자는 농축된 함수(鹹水)를 가열하여 만드는 전오염으로서, 이 방법은 강렬한 태양열을 연중 얻을 수 없고 풍수해가 발생하는 기후풍토하에서 형성된 것이다. 후자는 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해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염전에 직접 소금이 침전되도록 하는 천일염이다.³⁰⁾

제주사람들은 단순한 소금의 섭취 이상으로 젓갈 만들기, 생선을 통한 염장(鹽藏)해서 말려 뒀다가 조상 제사에도 올렸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암염이 없어서 바닷물을 이용한 해염만이 존재했다. 1945년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금을 제조했었는데, 소금밭 환경조건으로 말미암은 지역적 차이도 확인된다. 제주도의 여러 곳에서 소규모 염전이 유지되었는데³¹⁾ 여기에서는 물소금 제조에 있어 돌(石)을 이용한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속칭 배무승이 소금밭과 구업리 속칭 빌레뜨르 돌소금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① 애월읍 배무승이 소금밭

물소금제조터와 연해 있는 배무승이 바닷가는 고려시대 삼별초가 진도에서 패망한 후 耽羅島에 입성(1273)하여 관군을 방어하기 위해 목성을 축성한 이래 조선시대에도 석성으로 개축하고, 또한 애월진성을 쌓아 큰 병영이 있었는데 이 병영에 물소금을 납품했다는 사실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³²⁾ 따라서 이 소금밭이 생긴지는 400~7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 소금밭은 4·3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산간 마을에서 소금을 사러 왔었다고 한다. 소금밭의 구조를 보면 밭사이에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웅덩이가 되어 있고, 밭은 여러 개의 경계로 나누어져 있다. 경계는 야트막한 돌무더기로 이루어져 있고 바닥은 납작한 돌로

414~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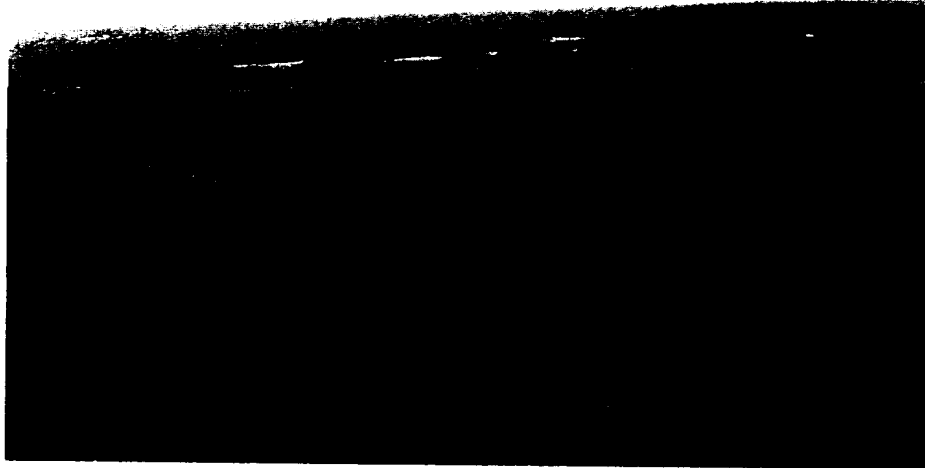
30) 정광중, 강만익(1997),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 - 종달·일과·구업 염전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 352.

31) 제주도 교육청(1996), 전계서, p. 1024.

32) 동아일보, “제주 물소금 만들던 곳 찾았다.”. 1987년 8월 6일.

타일처럼 깔았는데, 지금도 모래사이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0> 배무송이 소금밭 전경



물소금의 제조방법은 먼저 평평한 돌이 깔린 곳에 모래를 깔고 밀물 때 모래 위에 바닷물을 주어 잘 저어 모래를 말리고 다시 바닷물을 주어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염분을 축적시킨다. 이렇게 해서 염도가 높은 모래를 햇빛에 말려서 넓은 돌무더기를 위에 비우고 거기에 바닷물을 넣어 밑으로 향아리를 대고 받으면, 농도가 짙은 소금물이 되어 나온다. 이 소금물로 장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는데, 육지의 돌소금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³³⁾

염도 측정은 송진을 사용했는데 송진이 물소금에 뜨면 염도가 강하고 가라앉으면 불량품으로 다시 제조했다고 전해진다.³⁴⁾ 따라서 천일염을 만들 수 없었던 환경과, 가마를 이용해 끓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 방법은 아주 특이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육지부로부터 대량의 천일염이 유입되었고 1950년대를 전후하면서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33) 오성찬(1990), 전계서, p. 125.

34) 동아일보, “제주 물소금 만들던 곳 찾았다.”, 1987년 8월 6일.

<그림. 11> 돌무더기 틈



<그림. 12> 바닷물이 들어오는 웅덩이



배무승이 바닷가의 경우는 지금도 원형이 비교적 보존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곳에 대한 안내표식 같은 것은 전혀 없고 보존도 되고 있지 않다. 바닷가의 경관, 민속학, 향토사 측면에서도 귀중한 자료인 이곳에 대한 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 애월읍 구엄리 빌레뜨르 염전

구엄 염전은 속칭 빌레뜨르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파식대 위의 암반을 활용하여 해수를 증발시켜 소금을 구하는 방법을 택했던 곳이다. 소금을 생산해 냈던 암반지대의 길이는 약 100m이고 폭은 가장 긴 곳이 50m로 약 500여 평에 이른다.

<그림. 13> 구엄리 돌소금밭 전경



소금을 만드는 암반은 마을 전체에서 이용했는데 자연적으로 생겨난 線을 경계로 해서 개인소유의 장소가 있었다. 즉 가구별로 몇 개의 구획씩 소유했고 이는 자식에게 양도되었다고 한다.³⁵⁾

구엄지역은 토질 자체가 비가 많이 오면 밭에 물이 많이 고여 농사가 잘 안되어 생계에 많은 불편이 따랐는데 이에 해변가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암반과 바닷물을 이용한 天日鹽의 제조 생산을 시작하여 생활에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35) 양맹아(67), 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

예로부터 이곳 주민들은 소금을 제조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마을이라 해서 '鹽匠이' 사람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 후 생활환경의 변화와 의식구조의 변화로 195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소금생산을 하지 않게 되었다.

소금생산 과정을 보면 암반 청소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은 암반에 있는 구멍으로 물이 빠지는 것을 막고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멍을 메우게 된다. 그리고 나서 암반에 나 있는 선을 따라 진흙으로 독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소금생산을 위한 기본 작업이 완성되는 셈이다.

<그림. 14> 소금밭 경계선



다음으로는 양동이, 허벅, 오래 입어서 못쓰게 된 헌 옷을 가지고 물을 암반위에다 끼얹는다. 그리고 나서 태양열을 이용해 증발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만약 날씨가 나쁠 때는 그 동안의 작업을 통해 염도가 높아진 물을 헌 옷을 이용해 진흙으로 만든 옹기에 짜 넣어 일시 보관한다. 이 물은 다시 일조량이 많은 날에 꺼내어 암반 위에서 다시 증발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손바닥 두께만한 덩어리 소금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자연 암반을 이용한 돌소금 제조과정이다. 이렇게 완성된 덩어리 소금은 위에다 옷을 덮고 발로 밟음으로써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³⁶⁾

36) 이순여(75),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3) 境界와 防築

(1) 돌담(올타리)

① 유래 및 용도

제주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집을 지을 때 주위에 산재하고 있는 난석을 이용하여 왔으며 올타리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였다. 이것 역시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에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지리학자인 마수다 이치지(樸田一二・문학박사)가 1930년 8월부터 1937년까지 7년간에 걸쳐 제주를 실지 답사하여 조사한 보고서에도 “자연계로부터 받은 오랜 시련과 그 환경으로부터 키워져온 문화는, 內地(日本)로부터 직수입한 양철지붕의 목조가옥이나 2층 집은 오히려 적응성이 모자라 대폭풍우가 많은 자연적 환경에 대해 참담한 광경을 드러내며 또한 토지에 부조화인데 비해, 섬 고유의 민가가 아무리 봐도 어울리는 것같이 느껴졌다. 이 돌담이나 지붕에 애착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돌담은 단지 인가뿐이 아니라 밭에도 논에도 있으며 무덤에도 있다.”³⁷⁾라고 하여 돌담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임을 적고 있다.

돌담의 이용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東文鑑」의 기록을 보고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다.

“제주도는 亂石이 많고 땅이 건조하여, 본시부터 논이란 없고 다만 밀·보리·콩·조 따위만 나는데, 그나마 옛적엔 내밭 네밭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强暴한 집에서 나날이 남의 것을 누에가 뽕을 먹듯 침범하므로, 모든 힘없는 백성들이 심히 괴로히 여기더니, 김구(金丘)란 이가 판관이 되어 온 뒤에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듣고 드디어 돌을 모아 제 밭에다 담을 두르게 하니, 경계가 분명해지고, 그로부터 백성들이 편하게 되었다.”³⁸⁾라고 하고 있다.

김구(1211~1278)는 고려 때의 사람으로 고종 21년(1234년)에 제주 판관³⁹⁾으로

강산옥(72), 북제주군 애월읍 구업리.

37) 樸田一二(1976), 「제주도의 지리적 연구 - 1930년대의 지리·인구·산업·出稼 狀況 등 -」, 번역·출판 제주시 우당도서관(1995), p. 32.

이 저서는 후학들이 1976년에 모아 유고집으로 낸 책이다.

38) 진성기(1990), 전계서, p. 71.

39) 김봉옥(1990), 전계서, p. 44.

부임한 걸로 보아 돌담의 이용은 800여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다. 「東文鑑」의 기록으로 인해 돌담의 이용은 판관 김구에 의해 처음 시도된 것으로 보는 이가 많으나 제주의 환경(石多, 風多, 放牧)상 돌담의 이용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김구에 의해서 계획적·대규모로 정리사업이 있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이러한 돌담의 용도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첫째가 風多의 자연 현상이 石多와 이어져 防風의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 본다. 제주도의 울래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도 風速을 완화시키는 방편이기도 하다. 또한 화산회토의 뜬 발의 흙이 날려 유실되는 것을 막기도 한다.

둘째, 放牧과 관련되는 것으로 우마의 침입을 막는데 있다. 예전부터 우마를 방목하는 풍속이 있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에 임의로 마소가 침입,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으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셋째, 경계의 구실을 한다. 김구 판관이 돌담을 쌓게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즉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세력가의 토지 잠식(蠶食)을 막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民心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로 돌을 제거, 정리함으로써 경지면적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다섯째로 작업능률의 향상이다. 제주도가 火山灰土로 된 뜬 땅에 자갈이 많이 덮여 있어 토양수분을 보유하는 기름작지(기름자갈)⁴⁰⁾의 역할도 하지만 불필요한 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밭을 갈거나 除草, 운반작업 등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흩어진 돌들을 제거하고 돌담을 쌓음으로써 섬고유의 문화 경관을 형성한다. 앞서 언급한 襟田一二도 “環狀道路의 全長 160km 남짓은 양쪽은 돌담으로 연이은 경관으로 해서 「小萬里의 長城」”⁴¹⁾이라 했다. 즉 정돈감과 아울러 미관상의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② 형태

올타리의 전통적인 형태는 굽은 돌을 밑에 깔고 위로 올라 갈수록 작은 돌을 얹으며 쌓는 식인데 돌 쌓는 방법을 크게 구분해 보면 거친 돌 쌓기와 다듬은

40) 송성대(1996), 전계서, p. 154.

41) 襟田一二(1976), 전계서, p. 57.

돌 쌓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는 쌓는 법에 따라 막쌓기(허튼층 쌓기)와 바른층쌓기(성층쌓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거친 돌 쌓기는 전원, 건축, 발담 등에 적합하며 다듬돌 쌓기는 외관상으로 볼 때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보여 흙벽에 붙여서 쌓을 때 많이 이용된다. 돌을 이용한 石材의 울타리는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돌담이 쌓여진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⁴²⁾

ㄱ. 백켓담

맨 아랫부분을 여러 겹으로 돌을 쌓되 구멍이 뚫리지 않게 쌓아 올라간다. 담 높이의 3분의 1 정도를 그렇게 작은 돌맹이로 쌓은 다음, 나머지를 굵은 돌을 얹으면서 구멍이 송송 뚫리게 외줄로 쌓아 올린다.

백켓담은 밭의 불필요한 돌들을 처리하기 위해 밭의 모서리에 쌓아놓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울타리의 역할보다는 농사지을 때 능률향상을 위한 성격도 강하다. 이 경우 쌓는 방법은 일정치 않고 잔돌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바깥쪽을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쌓아가면서 그 안에 돌들을 채워넣는 식으로 쌓는다.

ㄴ. 외담(잡담)

제주의 돌의 종류는 많지 않으나 표면의 질감은 다양하다. 주변에 흩어진 돌들을 써서 외줄로 아무렇게나 쌓은 돌은 말하는데 돌을 있는 그대로 척척 올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주로 밭의 경계를 두를 때 이용된다.

이 담은 쌓은 후, 한쪽 끝에서 흔들면 담 자체가 고루 흔들려야 잘 쌓았다고 한다. 만일 흔들리지 않게 쌓으면 거친 바람이 지날 때 쉽게 무너지고 만다. 가장 쉽게 쌓을 수 있는 담이나, 가장 노련한 손길만이 쌓을 수 있는 담이기도 하다.⁴³⁾

ㄷ. 잣길

잣길(城길)은 바위가 많고 자갈돌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 곳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돌들을 치우고, 또 비가 내리면 잘 빠지는 밭의 성질을 피하던 목적으로 쌓았다⁴⁴⁾. 이는 돌담위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평평하게 돌길을 만들어 놓은

42) 임영석(76세), 제주시 아라1동.

고창립(67세), 제주시 오등동.

정경성(65세), 제주시 오등동.

43) 상계서, p. 100.

44) 오성찬(1990), 「제주의 마을 시리즈 ⑥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p. 93.

것이다. 자갈들을 치움으로써 경작을 편하게 할뿐만 아니라 울타리 대용과 함께 이동로로 씌으로써 경작지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애월읍 속칭 숙구미 지역과 귀덕리 입구에서 대규모로 볼 수 있다. 바깥은 비교적 큰 돌로 쌓아 올리고 내부는 잡석채움을 한 형태이다.

ㄹ. 경치돌담(다이아몬드식 쌓기)

요즘들어 많이 쌓는 공법이다. 돌을 잘 다듬거나 가공하여 방축, 석축, 울타리 등을 쌓는데 이용하는 조경돌담을 의미한다. 이것은 외양상 견고하게 보이나 태풍이 몰아치거나 폭우가 내려 거센 물결이 휩쓸고 지나면 곧잘 무너지기 때문에 제주의 자연조건을 무시하고 보기에만 좋게 쌓은 이 담은 그리 실용적이지 못하다.⁴⁵⁾

이 방법은 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윗쪽으로 갈수록 벽쪽으로 비스듬히 쌓는 경우도 있다. 주로 언덕을 깎아내어 길을 만들 때 이용한다.

ㄱ. 잡석 쌓기

매립지대 같은 경우 바깥쪽을 큰 돌로 쌓고 안쪽에다 흙과 자갈등을 채워 넣는 방식이다. 경치돌담과 방법은 유사하지만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ㄴ. 겹담(집담)쌓기

산담처럼 돌을 두줄로 쌓고 그 내부에 잡석채움을 하는 방법이다.

ㄷ. 식은벽쌓기

맨 밑에다 자갈들을 두껍게 쌓고(주로 겹담 쌓는 방법 이용) 그 위에다 큰돌들을 쌓아줌으로써 무너짐을 방지하게 쌓아놓은 것이다. 백켓담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고 기능도 유사하다.

ㄹ. 바른돌쌓기

벽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돌을 서로 겹치게 쌓는 방법이다.

45) 오성찬(1990), 「제주의 마을 시리즈 ⑦ 봉개리」, 도서출판 반석, p. 101.

<그림. 15> 백켓담



<그림. 16> 외담(잡담)



<그림. 17> 잣길(애월읍 속구미)



<그림. 18> 경치돌담(다이아몬드식 쌓기)



<그림. 19> 잡석 쌓기



<그림. 20> 겹담(접담) 쌓기



<그림. 21> 식은벽 쌓기



<그림. 22> 바른돌쌓기



(2) 산담

제주의 무덤은 사각형의 돌담을 에워둘러 있는게 일반적이다. 이는 제주사람의 死生觀이 표출된 한 본보기로서, 사람은 죽어서도 살아간다는 의식에서 무덤의 공간구조를 가옥과 같이 꾸민 것이다.⁴⁶⁾

산담은 원형으로 발담처럼 둘러쌓여진 형태와 넓직한 돌을 이용하여 사각형으로 두르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 있는데 후자가 흔한 편이다.<사진. 24 참조>

사용되는 돌은 주로 그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였으며 그 높이는 대개 1m 내외이다.

제주에는 과거부터 우마가 많이 방목되었으며 봄에는 초지 조성을 위해 목장에 불을 놓게 되는데 이런 산불이나 짐승들로부터 묘지를 보호하고자 한데서 유래하였다고 보아진다.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산터는 주로 경사진 곳을 많이 이용하고(제주나 강원도의 경우처럼 발농사 지대에는 경지를 이용하기도 함.⁴⁷⁾) 있어 산담의 높이는 경사에 따라 다르다. 즉 지형이 높은 곳에는 낮게, 낮은 곳에는 높게 나타나는데 묘지도 산담을 두르고 나면 별 여유가 없다. 이것은 특히 자신의 밭을 이용할 경우 더욱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협소한 농경지 이용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담을 쌓는 방법은 자연석을 여러번 겹쳐서 쌓는게 특징이다. 안과 바깥을 정연하게 쌓되 그 가운데를 돌로 메꾸어 사람이 충분히 걸어다니고도 남을 만큼 넓게 한다. 무덤의 위치에서 막히지 않은 방위로 입구를 내어 그 위를 넓직한 돌로 살짝 덮어놓고 때에 따라서는 디딜팡을 놓기도 한다.⁴⁸⁾

46) 상계서, p. 100.

47) 송성대(1994), 「文化地理學 講義 - 環境과 文化」, 법문사, p. 443.

48) 오성찬(1990), 「제주마을 시리즈 ⑦ 봉개리」, 도서출판 반석, p. 100.

<그림. 23> 원형산담(제주시 용강동)



<그림. 24> 사각형 산담(제주시 봉개동)



(3) 정주목과 정낭

‘정낭’은 집에 사람이 있고 없음을 표시하고, 마소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걸쳐두는 나무토막을 말하며, 정주목 또는 정주먹은 이 정낭을 걸쳐놓게 만든 구멍이 뚫린 나무기둥을 말한다. 이 정주목과 정낭은 제주도 가옥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것으로서 마을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돌담으로 두른 울타리 길목 양 옆에 설치해 놓아 오늘날의 대문 역할을 한다. 이 정주목은 원래 木材였던 것이나 木材는 부식하기 쉬우나 돌은 단단하고 제주 지방의 각지에서 구하기 쉽고 오래 지탱하므로 나무 대신 돌로 만든 정주석으로 대체되었다.

처음에는 良質의 나무도 많았고 석재에 비해 제작이 용이했으므로 목재가 많이 이용되어 정주목이라 고정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木材가 石材로 바뀌게 된 것은 良質의 나무를 구하기 힘든데다 내구성 내지는 부식성의 문제 때문으로 해석된다.

多風地域인 제주도의 기후하⁴⁹⁾에서 독립된 대문은 지탱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풍압을 극도로 받는 독립된 소형의 마당 대문을 세우면 강한 風勢에 대문은 흔들리고 울타리마저 무너지게 된다. 여기에 고온다습한 기후를 갖는 제주도에서는 - “비온다”를 늘 바람을 동반한 비가 되기 때문에 “우친다”라고 하지만 - 시설 대문을 할 경우 그 판목은 물론이지만 땅속에 박히는 목재 부분이 쉽게 부식되어 1~2년마다 한 번씩 새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번거로움의 비합리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석재가 주로 이용된다.⁵⁰⁾

49) 연평균 24시간 평균 풍속을 보면 제주는 4.7m인데 서울은 2.5m, 중강진이 1.3m로 북쪽으로 갈수록 풍속은 낮아진다. 계절별 風勢를 보면 제주에 있어서는 폭풍(10m/S 이상)일수는 겨울이 36.7%로 가장 많은 일수를 보이며, 다음이 27.3%의 봄, 여름과 가을이 각 17.9%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태풍(17m/S 이상)만을 기준으로 하면 한 반도는 연 1.5회며, 풍다지역인 울릉도가 2.5회나 제주도는 2.6회로 한국에서는 최다 지역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지역간 태풍회수나 풍속의 평균적 의미는 크지 않는바, 제주도는 그 폭풍우의 위력과 그로 인한 재해의 양이 한반도부에 비해 최소한 3배 이상이 된다.

제주도가 이처럼 강풍, 다풍 지역이 되어간 것은 위치에서 오는 것과 도서라는 데서 기인한다. 여기서의 위치란 제주도가 강풍의 통로가 되는 유라시아 동단에 존재함을 뜻한다. 즉 이 위치환경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이동성 저기압과 태풍의 통과지점이 되고, 여기에 낙도인 도서라서 마찰에 의해 감속되지 않은 海上風이 지상을 지나는 陸上風보다 평균 2배나 강하게 불어와 풍세가 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송성대(1996), 전계서, pp. 291~293.

50) 상계서, p. 309.

정낭은 한자와 한글로 풀이해 보면 「根」자는 문설주 정으로 「기둥(柱)」의 뜻이 있기도 하고 또는 지팡이(杖)로 풀이할 수 있어 柱와 杖의 결합구조로 된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낭」은 「나무」라고 하는 표준어를 제주토속어로 「낭」이라는 사투리로 발음한 데 따른 것이다.⁵¹⁾

제주도 내의 일반농가에 정낭(根木)을 설치한 것은 元이 제주를 지배하면서 본격적으로 목축을 시작한 고려 원종 14년(1273년) 후이거나 또는 그보다 앞선 것으로 추측된다.

정낭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산야 평원에는 목초가 무성하였으며 농가의 우마 사육이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방목위주였고 도내에서는 자주 있었던 외세의 침략과 민란 및 탐관오리들의 횡포 등으로 인하여 식량 비축과 가축사육을 우선하였으며 울타리 내에 있는 곡물·곡초 관리에 성심을 경주한 것이 정낭을 설치하게 된 원인이라 하겠다.⁵²⁾

정주목에 뚫린 구멍은 보통 3개인데 2개에서 5개까지 일정하지 않다. 형태의 구별에 따라 각 가정의 생활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중산간 부락 일반 농가(대략 200호 기준)를 대상으로 삼으면 5개호 정도는 대문(또는 이문)을 설치했는데, 대문이 있는 것을 보면 마을 내에서 손꼽는 부농가임을 추측할 수 있다. 대문이 없고 가옥 이북에 정낭 4~5개가 있는 농가는 富農에 버금가는 準富農에 속하며 정낭이 2~3개 설치된 농가는 中農(보통 농가)이며, 정낭이 1개만 있으면 빈농으로 본다. 정낭이 설치되지 않고 살차기(또는 살문)로 정낭을 대신하면, 살차기의 규모에 따라 중농 또는 빈농가로 추상할 수 있다. 그리고 대문과 정낭도 없고 살차기 설치도 없이 잡나무가지로 엮어 묶은 섬피(섬비)⁵³⁾ 한 묶음으로 출입구를 가로막기도 하고, 이러한 물리적인 출입 방비책이 없이 텅 비어 있으면 어떤 우마가 침입해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마 방비책이 불필요한 극빈농가로 판단된다.⁵⁴⁾ 이러한 정낭의 활용빈도는 牛馬를 많이 기르는 중산간의 경우가 해안 지역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한반도는 과거에 범, 멧돼지, 곰 등에 의한 獸災가 있어 이에 대한 방비

51) 오성찬(1990), 「'제주의 마을' 시리즈 ⑩ 翰林里」, 도서출판 반석.

52) 상계서, p.176

53) 조나 보리, 콩, 깨 등을 파종하고 난 후 소에 매달거나 사람이 어깨로 끌고 다니면서 흙을 고르거나 씨앗을 문을 때 쓰는 파종구.

54) 상계서, p.177

로 板狀 내지 미늘형(싸리문)의 대문이 필요하였지만 본도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낭이야 말로 제주의 풍토에서 내풍, 내구, 편의성에서 가장 합리적인 구조와 형태 및 기능을 갖는 대문 아닌 대문인 것이다.⁵⁵⁾

정낭의 이용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외출할 때는 정낭을 정주목에 가로질러 놓고 종일 밭에 나가 일을 한다. 정낭으로 인하여 牛馬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방문객도 들어가지 않는다. 정낭이 한 두 개만 놓여 있으면 집주인이 잠시 이웃에 간 것으로 판단하여 잠시 기다리거나 다른 용무를 보고 와서 만나든지 한다.

제주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에는 쉬지 않고 노동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노약자나 유아들은 집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정낭을 걸어 놓아서 牛馬 출입을 방지하도록 했다. 정낭이 모두 걸려 있을 때 찾아온 손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혹시 그가 출입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오해되어 집주인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유발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원거리에서 무거운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찾아 왔는데 갈길은 멀고 일몰시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울 때는 들어가서 주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전할 물건을 놓아두고 나오는 예가 많다.

이처럼 정낭은 제주인의 信義와 정직 및 순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며 오늘날 삼무의 정신을 이어주는 바탕에 작용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마 사육 방법이 달라지고 일반 민가에서는 우마 사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농경 방법이 개선되고 축산 방법의 기업화, 교통수단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산야나 촌락에서 소와 말떼를 볼 수 없게 되어 정주목, 정낭은 오늘날 그 원형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과거의 정낭문화도 사라진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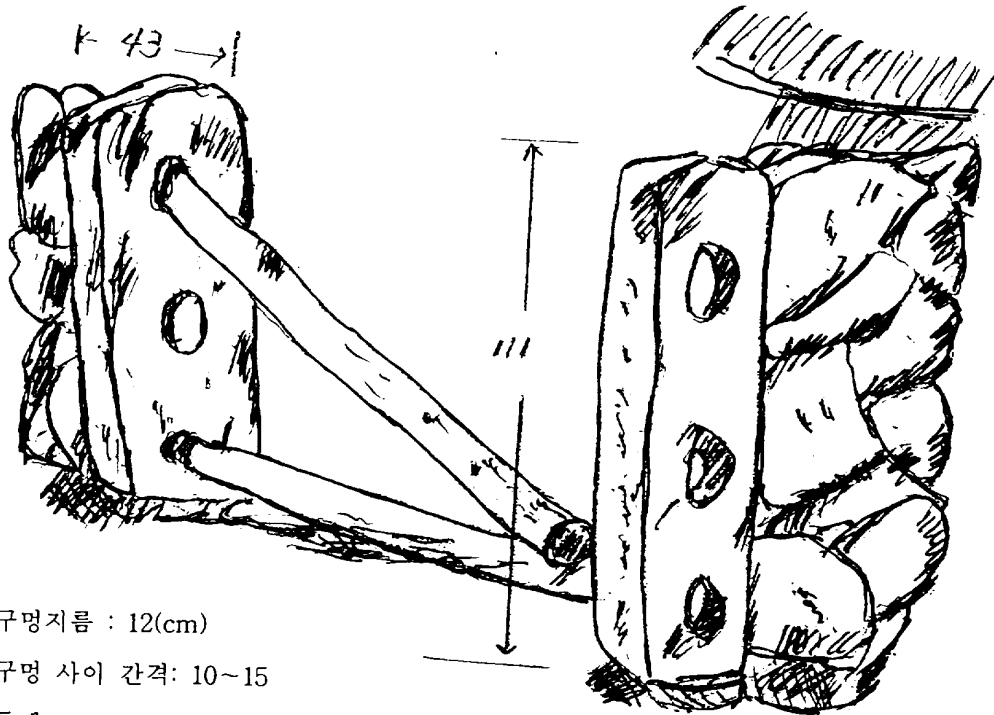
정주석의 형태를 보면 ①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② 밑부분이 좁아지는 형, ③ 윗부분에 정낭을 걸쳐놓도록 凹字形, ④ 부피가 전체적으로 넓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명도 등근형, 네모형, 등근형 막힌 것, 네모형 막힌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주석과 정낭의 규격과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55) 송성대, “제주문화의 재조명: 삼무정신을 중심으로”, 제대신보, 1984. 9. 5.

<그림. 25> 정낭과 정주석(제주시 목석원)



구멍지름 : 12(cm)
구멍 사이 간격: 10~15
두께 : 18



2. 주거용

1) 건축재

돌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素材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耐久的이며 그 무게나 압축강도가 흙이나 나무 등 다른 천연재료에서 볼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아득한 원시시대부터 이 독특한 성질을 갖가지 형태로 이용해 왔다. 따라서 인류와 돌의 관계는 유구하고도 밀접하다. 돌이 없었다면 인류가 오늘날의 찬란한 문명은 결코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돌이 건축재료로 매우 중요하고 인류생활에 불가결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유럽에서는 돌을 주요 재료로 삼은 건축이 특히 발달하였지만, 벽돌이나 진

흙, 목재를 줄로 한 가옥이 보통인 아시아에서도 土臺 또는 기둥의 礎石으로서 돌이 많이 이용된다. 또, 성이나 다리는 세계 도처에서 돌을 주된 재료로 삼고 있으며, 도로나 광장의 포장에도 돌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⁵⁶⁾

제주도의 경우 과거에서부터 현무암을 건축자재로 자유롭게 이용해 왔다. 이것은 제주의 토양이 화산활동의 영향으로 응집력이 약하고 사토가 많아 흙으로만 건축재료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위에 산재해 있던 돌과 함께 그 이용이 가능했던 것인데 돌을 건축재료 이용함으로써 제주의 기후특색인 多雨와 多風을 함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석재를 이용한 건축은 가공이 불편하고 비중이 커 운반시공은 불편하나 耐久・耐火에 좋은데 특히 제주도에 산재하고 있는 현무암은 암색 또는 흑색을 띠는 것으로 質이 굳기 때문에 건축용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생활 용구

(1) 술각불(돌코냉이)

<그림. 26> 술각불(돌코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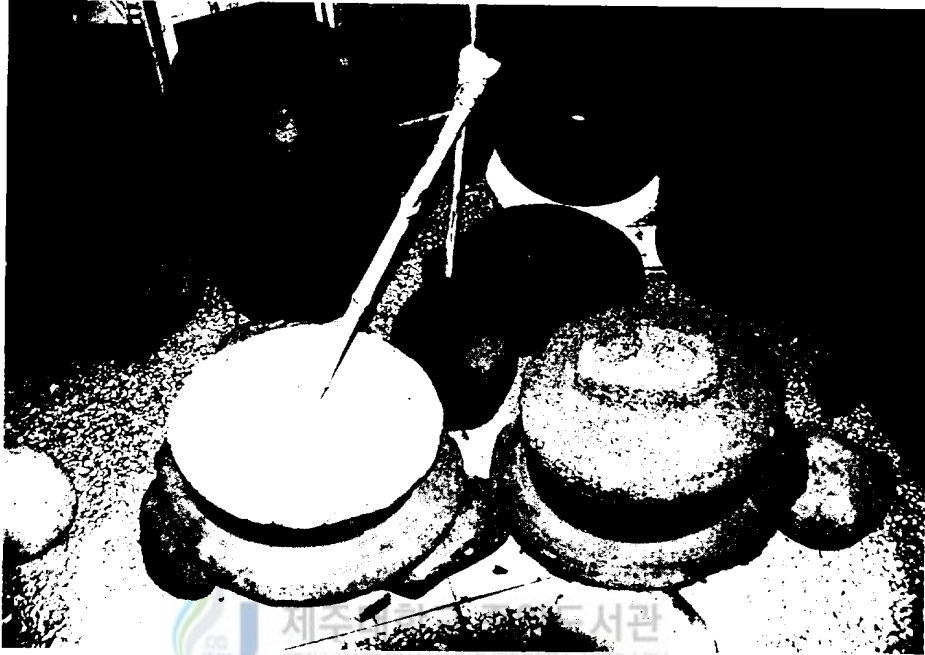


56) p. 1 註: 1)에서 인용된 책. pp. 467~468.

등잔의 원시형태로서 나무판대기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윗부분은 다듬은 돌에다 안쪽으로 구멍을 내어 세워놓은 것이다. 돌 윗부분은 평평하고 그 위에서 관솔을 태워 불을 밝혔다.

(2) 소줏돌

<그림. 27> 소줏돌



소줏돌은 속칭 '속돌'이라고 하는데, 손잡이 없는 솔뚜껑 모양을 한 것으로, 그 중간 부분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소줏돌의 가운데 부분의 구멍은 대개 지름이 6cm 정도인데, 소주를 고을 때 고수리⁵⁷⁾ 대신 무쇠 솥 위에 이 소줏돌을 얹어놓아 그 구멍으로 대나무를 저어서 술을 얻는데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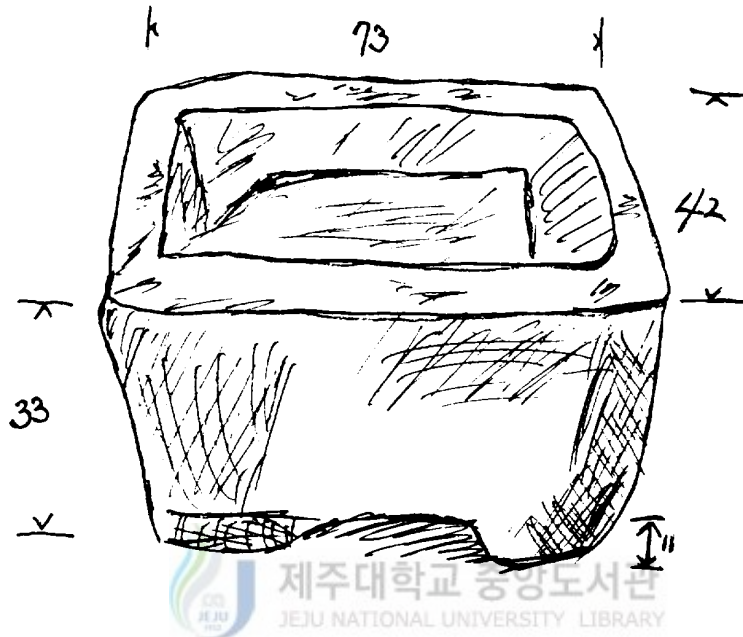
(3) 돌화로

제주에서는 곳곳에 널려있는 크고 작은 돌을 이용하여 많은 民具類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화로 역시 돌로 된 것이 보여진다. 돌화로에는 4각형의 것과 圓形

57) '고수리'란 '소주 고수리'를 말하는 것으로 소주를 고는 소주증류기로서 일종의 오지그릇이다.

의 것이 있었는데 원형의 것은 드물다. 부엌, 마루, 구들 등에 놓여지는 이 돌화로는 요새도 가끔 농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연료는 솔가지, 콩깍지 따위이며 숯을 제대로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것은 불을 피우는 용도이외에도 제사 때에 蠶을 굽는다든가 혼사 때 갖가지 음식물을 만드는데 쓰이기도 한다. 이 돌화로는 쇠화로가 생기기 전에 사용되었는데 그 석재는 별로 가리지 않았었다.⁵⁸⁾

<그림. 28> 돌화로



(4) 봉덕

제주도의 원시적인 서민 가옥의 일종인 외기둥집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내부 공간이 구획되지 않고 터져 있는 흙바닥 한쪽에 설치한 것이다. 이것 역시 돌을 이용한 화로로서 봉덕 또는 부섭⁵⁹⁾이라고 하는데 돌화로보다는 규모가 크다. 화덕의 일종으로 간단한 음식을 끓이거나 옷을 말릴 때 이용하며 광술불을 밝히기도 한다. 또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는 이곳에 사다리꼴 모양의 틀을 세우

58) 김영돈(1968), “石像, 石具”,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50호, 문화재관리국, pp. 66~67.

59) 김광언(1988), 「韓國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p. 462.

신석하(1995), “제주의 민가”, 「제3기 박물관 대학시민 강좌」, 제주대학교 박물관, p. 401.

고 이 위에 불이 매우 너른 고리를 얹어서 갓 베어온 피나 메밀의 이삭을 말리고도 하였다. 이를 상방에 설치할 때에는 내모뭇의 돌함시박을 박는다. 이는 원시 집사리의 화덕처럼 고래부더의 필수적 시설로 생각되며 일본의 이로리(圍爐裏)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⁶⁰⁾

<그림. 29> 봉덕위에서 곡식을 말리는 틀과 고리



(5) 돌등산

등판이란 불을 켜는 석재 기구로 주로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을 그 재료로 하여 위아래가 넓고 평평하게 만들고 가운데는 조금 호리호리 하게 만들어 세워놓은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주춧돌의 축소형처럼 보이지만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것은 윗부분의 가운데 부분을 0.5cm 정도 깊이로 파서 불을 피우는 재료를 올려놓기 쉽도록 한 것도 있다. 윗부분의 직경은 15cm내외이고, 아랫부분은 19cm내외이다. 높이는 37cm이다. 전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60) 김광언(1988), 전계서, pp. 461~464.

<그림. 30> 돌등잔



(6) 물확(빨래확, 돌확, 물돌혹)

제주지역에서도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한 여옥氏家에 있는 것으로 빨래전용 용구이다. 물확 바로 옆에는 우물이 위치해 있는데 이 우물에서 물을 퍼내 이곳에 물을 채워 놓고 원통형 안쪽에 네모진 돌출부<그림. 31 참조>에서 빨래를 문질러 때를 빨 수 있도록 만든 물건이다. 돌출부 바로 옆 밑부분에는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직경 2cm 가량의 구멍이 뚫려 있다. 물방에에서 사용하던 물통과 재료나 형태가 비슷하지만 물통은 단순히 물을 담아두는데 목적이 있지만 빨래확은 물을 저장하는 것에서부터 빨래에 이용하는 것으로 빨래를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물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

물통과 다른 것은 이처럼 용도만이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네모진 돌출부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빨래확은 가정집 마당 한 구석에 위치한 개인 소유이며 이용 역시 부엌살림 살이처럼 소유주의 전유물이었다. 지금은 수도시설의 보급으로 우물과 함께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 형태는 위쪽 직경이 밑부분보다 6cm정도 넓게 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 빨래확(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그림. 32> 우물과 빨래확(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7) 물팡(광돌)

물팡은 河川이 많지 않았던 제주의 생활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물허벅을 놓아 두었던 곳을 말한다. 또한 연자땃간에 짐을 올려놓도록 적당한 높이 위에 평평한 돌을 쌓아 놓은 경우도 있다.

<그림. 33> 물팡



제주도는 흡수성이 강한 현무암이 지표를 구성하고 있어서 하천은 비가 올때만 잠시 물이 차고 비가 멈추면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물이 귀해 물을 길어오는 곳이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따라서 물을 길어다 항상 저장해 두어야 했다. 지질구조상 대부분의 빗물은 용암의 깨진 곳이나 화산의 砂礫속으로 침투해 해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솟아오른다. 樸田一⁶¹⁾에 의하면 음료수의 채용방법을 보면 湧泉사용지역, 우물물(用水) 사용지역, 천수사용지역, 간이수도지역의 4지역으로 대별했는데 주로 용천수가 이용되는데 그래도 물을 운반하는 거리가 1km에서 멀리는 2km나 된다고 했다.⁶¹⁾

따라서 이를 위해 물허벅이 고안되었고 이와 함께 물팡이 곳곳에 있었다. 이러한 용도 이외에도 빨래를 하거나 잠시 짐을 부리거나 등짐을 지기 편하도록

61) 樸田 一.(1976), 전계서, p. 134.

마당 한구석, 연자맷간, 용천수가 나오는 곳, 마을 어귀 등에 설치되었다.

(8) 돌도그리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우마의 먹이를 주는 그릇으로 圓形과 사각형 두 종류가 있다. 圓形의 것은 연자매의 맷돌같은 돌에다 확모양으로 上面이 패어 있으며 사각형은 발이 안 달린 돌화리처럼 되어 있다.⁶²⁾

<그림. 34> 돌도그리



도그리의 큰 것은 부녀자들이 빨래할 때에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돛통시(제주의 재래식 화장실)에 두는 돛도고리가 있는데 이것은 돼지를 키우기 위해 먹이통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마의 먹이통 또한 제주에 널리 산재해 있던 돌을 재료로 이용하였다. 비록 그 모양은 역시 투박하고 섬세함은 없었으나 이것 역시 제주의 돌의 문화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9) 불치막(불치막살이)

이것은 제주에서 흔히 빨감으로 쓰이는 억새, 보릿짚, 콩, 깨 등을 탈곡하고 남은 잔여물 등을 빨감으로 쓰고 난 후에 생기는 재를 저장하는 곳이다. 재를 정기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부엌의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시 재활용하고자 하

62) 김영돈(1968), 전계서, pp. 75~76.

는 뜻이 담겨 있다. 땀감으로 쓰고 난 이후에 남은 재는 거름 등의 용도로 다시 쓰인다. 곳에 따라 부엌의 한쪽 구석에 쌓아 놓거나 따로 담아두는 방법, 부엌과 인접한 건물 한 구석에 공간을 마련해서 저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채래식 부엌의 실종은 이러한 용도처의 폐기를 의미하므로 지금은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한여옥氏家에 그 형태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자질구레한 물건을 임시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을 뿐이다. 위치는 오래된 연장선으로서 마당 입구에 있어 재를 실어 나르기 편한 곳에 위치해 있다.

<그림. 35> 불치막살이(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구조는 오래된 연장선상에 있는 담에 직육면체의 공간을 만들고 지붕과 출입구를 만든 모습으로 규격은 가로 300cm, 높이 131cm이고 출입구는 가로 87cm, 높이 103cm이다.<그림. 35 참조>

(10) 물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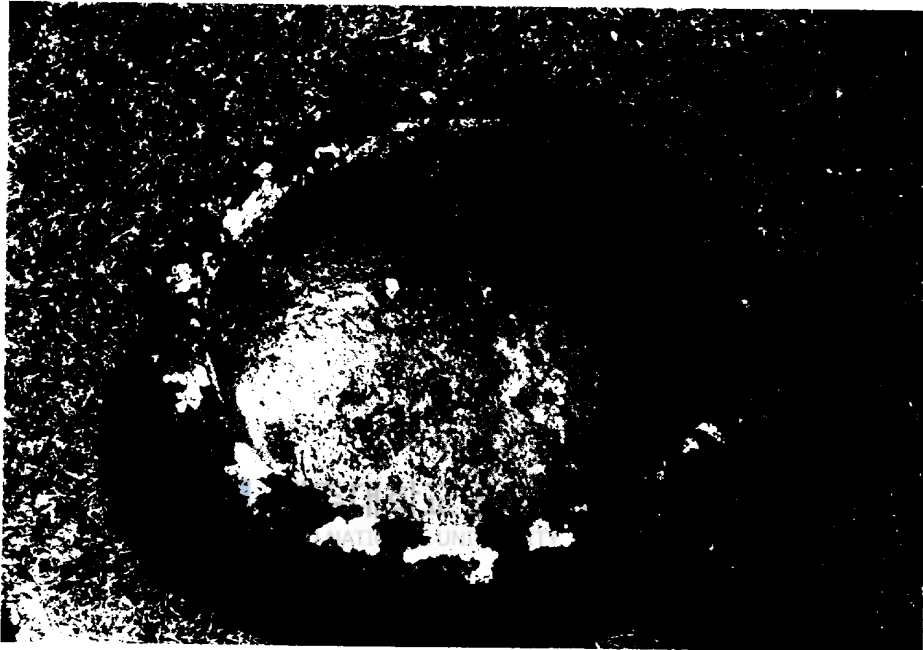
이것은 ‘물방에’에서 보리를 찧을 때 마른 보리쌀이 깨어지지 않고 껍질만 벗겨지도록 물로 축여 불리는데 이때 물을 담는데 사용한 것이 물통이다. 모양은 전체적으로 원통형을 하고 있다. 내부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어 물을 뺄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허벅으로 길어온 물이나 물방에 옆에 있었던 연못에서 가져온 물을 이용했는데, 앞사람이 물방에를 쓰고 있으면 다음 사람이 보리를 담갔다가 작업에 들어간다. 따라서 시간 절약이라는 측면에서도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공질 현무암을 가공하여 사용했는데 물방에 옷돌이 마모되면 구멍을 파서 사용하기도 한다.⁶³⁾

<그림. 36> 물통



(11) 디딜팡

제주도의 전통 화장실인 통시에서 사람이 볼일을 볼 때 앉는 돌판을 말한다. 보통 직육면체의 자연석을 두 개 가지런히 올려 놓는 경우도 있고 정사각형 내지 직사각형의 돌판 가운데에 사각형 내지 원형의 구멍을 낸 모습을 하고 있다.

(12) 돌추

매끈한 질의 원형 내지 타원형의 돌에다가 가로 내지 세로로 0.5cm 내외의 홈을 둘러 놓은 것이다. 한줄로 된 것은 전통 가옥의 문 앞쪽 처마에 메달아 문을

63)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1998), 전계서, p.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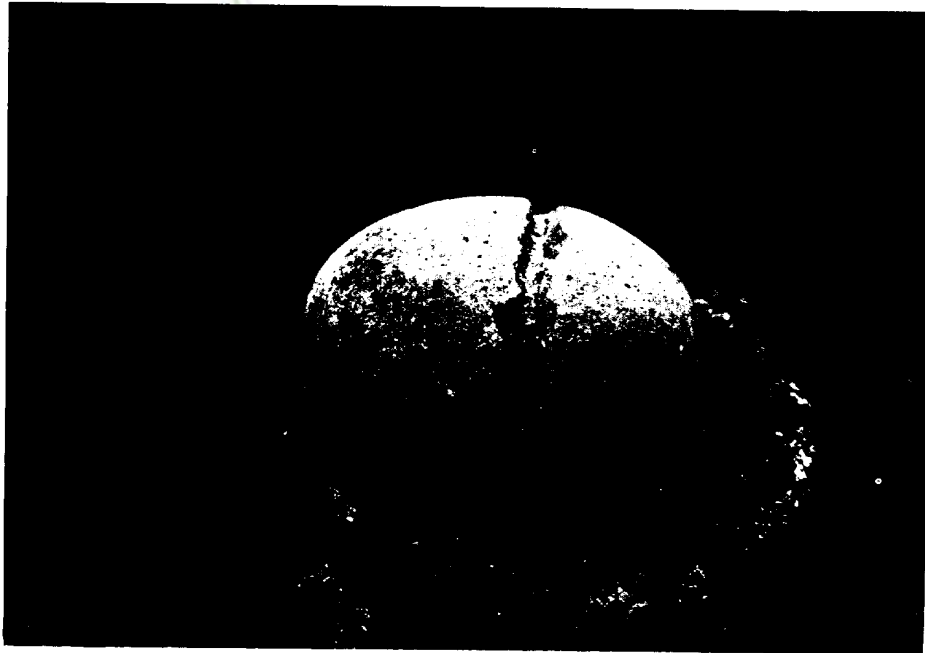
열어 놓은 다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돌의 끝을 중심으로 십자형으로 흠을 판 것은 바다에서 어로작업시 이용된다.

<그림. 37> 디딜팡



<그림. 38> 돌추



3) 도정 기구

(1) 연자매

① 연자매의 개관

몰방에, 몰궤, 몰방이라고도 불리우는 연자매는 말(馬)을 이용한 맷돌, 또는 방아란 뜻이다. 인류가 農耕生活을 시작한 이후 발명한 농기구들 중에 규모가 크고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농기구 중 연자매는 절구, 맷돌, 방아 등과 같이 搗精機具에 속한다. 한반도에서는 이들 외에도 디딜방아, 물레방아 등 13개로 조사,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투수성(透水性)이 강한 현무암으로 지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천에는 거의 流水가 없고 지하수는 해안에서 용출하고 있으므로 식수가 굉장히 귀했다. 따라서 물을 이용한 물레방아 등의 사례는 전연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 도정 수단은 연자매, 맷돌, 방아 등으로 제한되었다. 연자매의 기본 형태는 한반도의 것과 유사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기술했다시피 토질이 척박하고 자연 환경이 열악한 이유로 해서 밭과 논이 비율이 50 : 1 이며 主穀이 보리, 조와 같은 잡곡이다. 보리와 조는 벼에 비해 그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이를 짚어내는데 훨씬 힘들어 연자매를 이용하는 빈도가 많았다. 제주도에선 마을마다 평균 29가구당 1基씩 분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⁶⁴⁾

둘째, 연자매의 설치, 운용을 위해 공동조직의 협업체에 따른 연자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자매를 설치하기로 합의되면 계원들은 연자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쌀이나 현금으로 모으며 노력부담을 한다. 그 중에서도 <알돌>⁶⁵⁾과 <웃돌>⁶⁶⁾을 만드는 일이 작업의 핵심이 된다. 石手는 이웃마을에서 招致해 오기도 하는데 제주도에 흔한 현무암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양질의 것을 고르다 보면 연자매틀이 설자리까지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따라서 그 제작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만들어진 것을 운반하는 일 또한 힘들

64) 제주도(1987), 전계서, p.30.

65) 판판하고 둥근 모양의 커다란 石板으로 연자매의 밑부분을 구성한다.

66) 알돌 위를 구르는 둥근 돌

운 일이므로 여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동원이 요구되어졌다. 이러한 것을 통해 이 연자매제는 단순히 연자매의 설치, 운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원들간의 대소사때 상부상조하는 등 자생적 協扶機能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협부기능은 그 집단의 문서인 <座目>에 상세히 나와 있다.

座目은 창호지에다 대소사를 당했을 때 해당 계원 앞으로 白米, 서숙(黍粟) 등을 보조해준 내역, 등을 상세히 적어놓은 것이다.⁶⁷⁾

사용은 혈연이 중심이 되었으며 아버지가 쓰던 방아를 아들이 쓰게 하였다.⁶⁸⁾

② 연자매의 형태 및 작업 방법

연자매는 그 연자매를 쓰는 주민들 모두가 출입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였다. 골목어귀이거나 동네 한복판에 위치한 연자매屋은 제주도 특유의 가옥형태 그대로 지붕은 띠로 이어 바둑판처럼 엮어매었으며 둘레는 출입구를 빼고 돌담을 쌓아 둘러쌌다. 연자매는 이러한 연자매간(屋) 안에 설치되거나 연자매옥 없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관판하고 둥근 커다란 石板 위에 그보다 훨씬 작은 圓形의 돌을 세워서 그 석판위를 돌도록 하면서 석판 위의 곡물을 뿔게 된 것이 연자매의 기본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한반도 본토와 크게 다른 바는 없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보리, 조 등 잡곡이 주곡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연자매를 이용해야 할 기회가 더 흔했으며 마을마다 연자매의 분포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통계⁶⁹⁾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경지 면적 중 57.4%가 논인데 비하여 제주도는 경지 면적 중 논은 겨우 2%에 불과하다. 곧 우리나라의 농업 문화는 전반적으로 볼 때, 도작문화(稻作文化)인데, 제주도는 전작문화(田作文化)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도의 경우는 잡곡이 주곡을 이루어 왔던 셈이다. 잡곡은 벼에 비해 그 껍질이 두껍고 이를 짚어내는 과정이 훨씬 번잡하므로 자연히 연자매의 이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주도에선 연자매의 분포가 많고 그 구조가 견고하며 규모를 갖춘 연자매간을 지니고 있었다.⁷⁰⁾

작업 방법의 이해를 위해 연자매의 분해도와 각 부분의 명칭을 보면 다음과

67) 강창언(70세), 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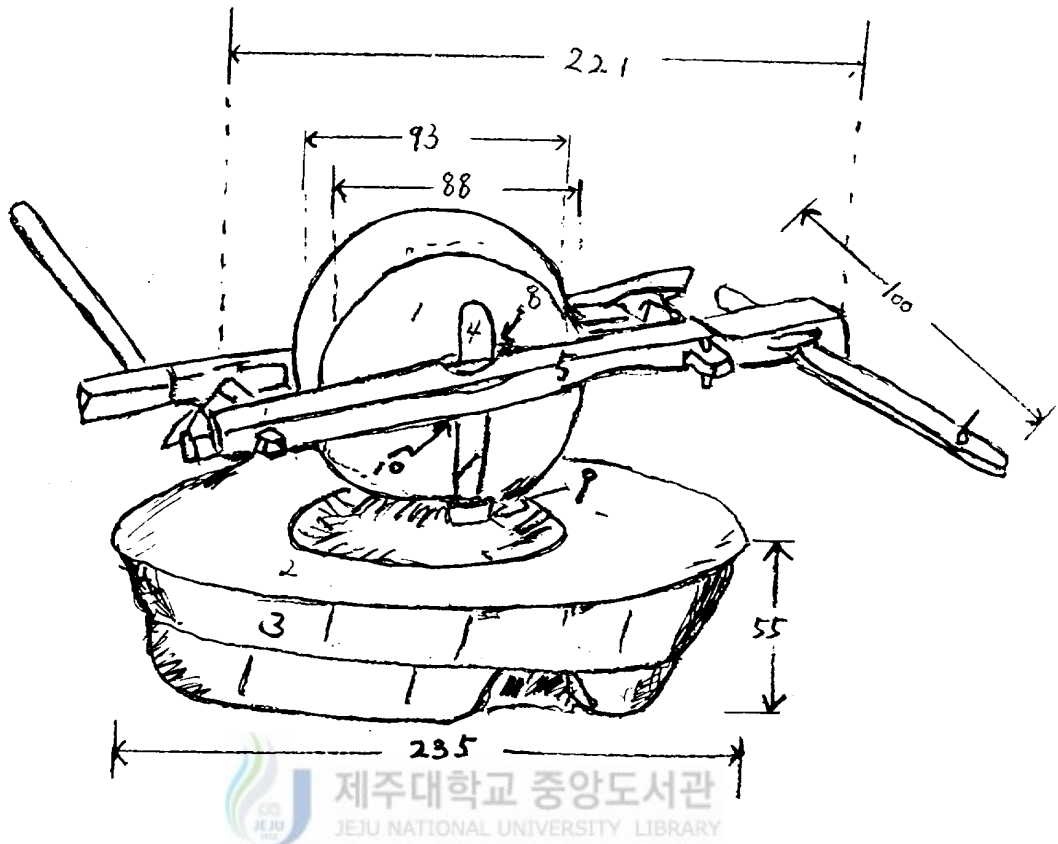
68)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8), 전계서, p. 223.

69) 제주도(1993), 「제주도지, 3권」, 1993. p.665.

70) 제주도(1987), 전계서, p. 38.

같다.

<그림. 39> 연자매 분해도



- | | | | | | | |
|--------|----------|------------|-----------|---------|--------|-------|
| 1. 옷돌, | 2. 알돌, | 3. 천, | 4. 중수리, | 5. 틀목, | 6. 채경, | 7. 큰틀 |
| 목 | 8. 틀목구녕, | 9. 중수리 구녕, | 10. 장통구녕, | 11. 환풍기 | | |

천돌(창돌)은 연자매의 맨 밑바닥을 둥그렇게 둘러싼 돌덩이로서 1층에서 3층 내외로 쌓았다. 천돌과 천돌 사이는 최근의 것들은 시멘트로 고정되어 있지만 원래는 진흙이나, 진흙에 보릿짚을 섞어서 바르는 경우, 밀가루를 흙과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 천돌 위의 판판하고 둥근 모양의 카다란 석판을 알돌(알착 또는 바닥돌)이라 한다. 알돌의 가운데에는 중수리라는 원목이 박힐 중수리구녕(구멍)이 있었다. 이 중수리를 중심으로 틀목 및 셋냥으로 고정된 옷돌(옷착, 방엿돌, 맷돌)이

돈다.

옷돌 가운데에는 네모로 장통구역을 뚫어서 옷돌을 둘러싸고 있는 틀목과 결합·고정시켜 놓았는데 안쪽 틀목 가운데를 중수리가 꿰뚫는다. 중수리가 꿰뚫는 구멍을 틀목구멍이라 하는데 틀목 가운데를 틀목구멍을 통하여 중수리가 꿰뚫으므로써 중수리와 틀목은 연결된 채 돌아간다. 틀목과 틀목을 연결한 나무를 셋냥 또는 ㄱ른새, ㄱ른 틀목이라 한다.

틀목은 옷돌 주변으로 둘러쳐 있으며 옷돌 중심점에서 파인 장통구멍에 틀목에 장치된 凸形의 장통줄을 끼워놓았으므로 옷돌은 중수리를 이탈하지 못한 채 알돌 위를 일정하게 맴돌게 된다. 또한 옷돌은 언제나 바닥돌 위를 원을 그리며 돌아가도록 안쪽 직경에 비해 바깥쪽 직경이 좀더 깊게 만들어졌다.

틀목 끝에는 短形의 구멍이 비스듬히 뚫어졌고 그 구멍에 채경을 끼워 마소가 이를 끌거나 아니면 사람이 끌고 밀도록 되어 있다. 오늘날 복원해놓은 연자매간의 경우는 내부가 협소한 이유로 마소를 이용한 작업은 사실상 힘들 것 같아 보인다. <채경>은 냇이나 끼울 경우는 人力만으로 연자매를 짚을 때다. 이 채경은 평상시 연자매계의 所任이 보관해 두었다가 계원 가운데 연자매를 쓰고자 할 때 내준다.⁷¹⁾

연자매 작업에 수반되는 기구들은 빗자루와 곡물이 알돌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사각형 형태의 작박이 있다. 그리고, 야간에 작업할 수 있도록 각지불이 둘 내지 셋이 있었는데, 각지불은 보통 벽에다 두 개를 설치하며, 하나가 더 있을 때는 중수리 위에다 걸어 놓았다. 그리고 곡식을 축일 수 있도록 물통도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연자매 사용의 순번을 보면 어떤 경우라도 大事를 당한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되며 그 외에는 알돌과 옷돌이 접한 부분에 곡식을 푸거나 담기 위해 나무로 움푹 패이게 만든 <술박 또는 줌박>을 제일 먼저 놓은 사람 순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일이 계속 되어도 누구 하나 순번에 어긋남이 없이 질서가 잘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심과 질서는 장구한 세월 동안 공동 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혈연적으로 관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협동과 相助는 늘 실생활에서 요구되어온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71) 제주도(1987), 전계서, pp. 38~39.

마소가 없는 집에서는 작업량이 많을 때 보통 이웃집 마소를 빌어 작업에 임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했다. 보통 마소 주인댁 김을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매어주거나, 打作을 거들어 주는 것으로 대신했으며, 계원이 아닌 사람이 연자매를 빌어 쓸 때는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나 해당 곡물의 5% 정도를 임대료로 지불했다.

연자매 작업은 보통 곡물의 내용에 따라 그 시간이 달라진다. 보리를 쪄낼 때는 주로 아침을 이용하는데 이는 한낮의 무더위를 피하고, 보리에다 물을 적서 쪄게 되므로 인해 낮에 건조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조는 밭일을 마친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 그것은 낮에는 밭일을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조의 搗精은 장시간 요구됨은 물론 작업시에 벗겨진 조의 껍질 부분과 먼지가 연자매간에 가득 차서 온몸을 덮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로 보인다.

연자매는 건물과 통칭할 때는 물고래항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말이 끄는 방에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같다. 말이 없을 때는 소를 이용하여 돌리기도 하지만 소조차 없을 때는 사람의 힘으로 돌린다. 이럴 경우 보통 4~5명씩 돌리는데 2명씩 양쪽에 나누어 한 사람은 줄을 방에 끝에 묶고 어깨에 메어 앞에서 당기고, 한 사람은 채경을 밀어준다. 한 사람은 따라 가면서 흩어진 곡물을 빗자루로 올려준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소나 말을 몰면서 빙빙 돌고, 여자들이 곡식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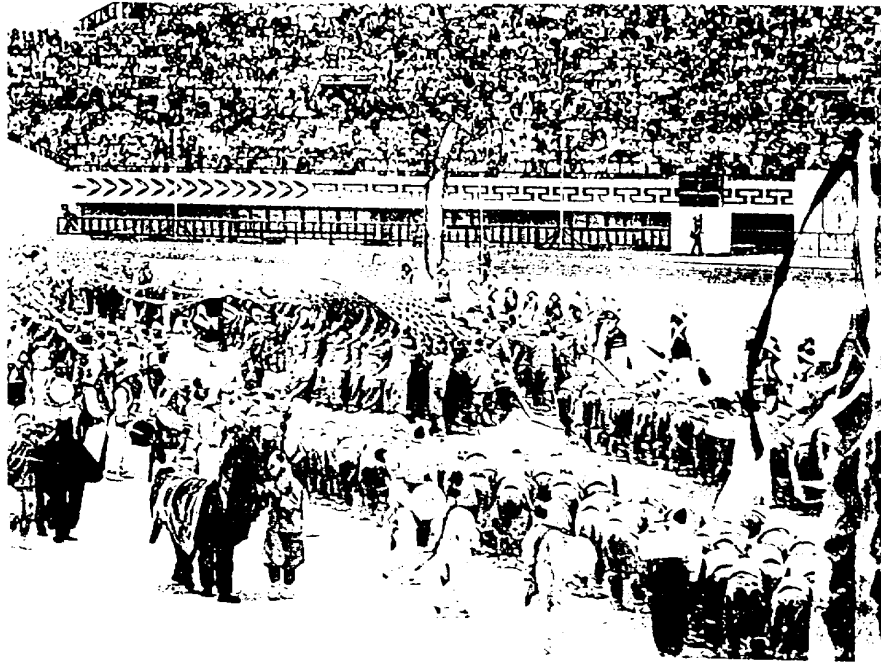
③ 연자매의 제작

연자매를 마련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면서 벅찬 일은 '웃돌'과 '알돌'을 제작하는 일이었다. 웃돌과 알돌은 제주도에서 흔한 현무암 가운데도 양질의 석재를 택하다 보면 연자매간이 설 자리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을 때가 많다. 석재를 고르고 나면 그 현장에서 만들었다. 그 중 '웃돌'은 '중수리' 쪽의 안쪽 직경에 비해 바깥쪽으로 조금 넓게 하여 앞으로 계속 밀어도 언제나 '중수리' 쪽으로만 돌아가게 만들어야 했다. 연자매 제작과 병행해서 연자매옥에 부수되는 돌, 나무, 띠등을 마련하고 연자매가 설 자리를 준비했다. 연자매 제작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만들어진 '웃돌'과 '알돌'을 연자매간이 설 자리까지 운반하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벅찬 일이었다. 따라서 운반에는 주민 거의가 참여하는 대역사였다. 이

7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8), 전계서, p. 226.

런 것을 보여준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주민들의 '방앗돌 굴리는 노래'⁷³⁾ 구연은 1980년 제 21회 전국 민속 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림. 40> 방앗돌 굴리는 노래 구연 장면



연자매가 그 동네에 이미 설치된 것이 있었어도 너무 거리가 멀어 많은 家戶가 그 이용에 불편하거나 인구의 증가에 따라 그 연자매만으로는 이용하기가 불편할 경우, 의견이 합치되면 또 하나의 연자매를 새로이 설치하였다. 거기에는 반드시 연자매계가 자생적으로 성립되었다. 새로이 연자매를 설치하기로 합의가 되면 그를 추진하는데 계원들이 그에 필요한 경비를 쌀이나 현금으로 각출하여 충당하였다. 집을 세운다거나 지붕을 인다든가, 옷돌·알돌을 제작한다든가 하는 노력도 계원들이 균등히 분담하였다. 먼저 방아를 세울 터를 사는 것으로 시작된다. 술값을 대접하는 식으로 해서 땅을 회사받는데 대략 10坪 내외였다고 한다.⁷⁴⁾

옷돌·알돌을 제작할 석수가 계원 가운데 없을 때는 이웃마을에서 초빙해 오기도 한다. 초빙해 온 석수에 대한 침식, 접대는 계의 기금으로 충당하거나 계원들이 윤번제로 담당했었는데, 그들의 편의와 합의에 따랐다.

73) 1986년 4월 10일 도 무형문화재 제 9호로 지정됨.

74) 고영자(78세), 북제주군 애월읍 중엄리.

상장틀, 틀목의 재료는 무겁고 질긴 자귀낭, 자배낭, 가시낭 등을 구해서 사용했다. 특히 채경 부분에 많은 힘이 쏠리므로 흠이 없는 재료의 선택과 제작시 휘어짐 등에 유의한다.⁷⁵⁾

연자매를 일단 설치해 놓은 다음에도 이를 계속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수리보수가 필수적이었다. 연자매옥은 초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새로 이어야 했고 오래 쓰다보면 닳아 못쓰게 되는 '중수리'나 '틀목'도 갈아메워야 했다. 또한 '웃돌'과 '알돌'이 부딪치는 면이 마모되어 버리면凹凸이 생기도록 '돌도치' 따위로 이를 조개어야 하고 그러다보면 정도 이상으로 웃돌이 크기가 작아져 쓸모없게 되면 다시 새로 제작해서 갈아놓아야 했다. 물론 마모되고 적어지면 그 돌을 파내서 물통으로 쓰기도 했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계원들의 경비 및 노력의 공동부담은 마찬가지였다.

연자매계는 연자매의 설립, 수선, 운영을 위함은 물론 계원들의 대소사에 쌀 등을 모아 부조하는 협부조직이기도 했다. 이처럼 연자매의 운용과 계원끼리의 相扶를 위하여 연자매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이루어졌던 계조직 등에도 나타나듯 연자매는 도민들의 생산활동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집단 구조와 협부의식, 민간 관습 등의 연구를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되고 있기도 하다.⁷⁶⁾

④ 연자매의 기능

연자매는 이삭채의 곡식을 장만하는 일, 곡식을 찧는 일, 곡식을 빵는 일 따위에 쓰인다. 우선 곡식의 이삭을 연자매에 올려 얹히고 알갱이를 떨어내어 장만한다. 주기능이 조, 발벼 등을 둥그려서 이삭의 알갱이를 떨어내는 것이고 다음엔 제주의 주곡인 보리, 조, 메밀 따위를 찧기도 한다.

빵는 작업은 둥그리거나 찧는 일에 비해서 이용빈도가 낮다. 큰일을 치르기 위해서 떡가루를 대량으로 빵을 때쫂م 이용하는 정도인데, 분량이 적으면 제주 특유의 목재 절구인 '남방에'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연자매에서 빵는 것은 좁쌀, 벼쌀, 메밀쌀, 고구마를 썰어 말린 것 등을 빵기도 한다. 이처럼 연자매는 곡식의 이삭에서 알갱이를 떨어뜨려 장만할 때, 곡식을 찧고 빵을 때 주로 쓰이는 게 그 기능이다. 이 외에도 멥석 따위를 만들 때 짚을 두드리기 앞서 두드리기

75) 제주도민속 자연사박물관(1998), 전게서, p. 226.

76) 월간 문화제주, "마을어귀 장식품으로 전락한 祖上의 지혜", 1992. 10, pp. 117~118.

편하도록 짚의 풀을 죽이는 데도 가끔 쓰인다.

부차적 기능으로 보면 상여용구중 장강목(長杠木)을 연자맷간 천정에 보관해 두는 일이 있다. 상구(喪具)를 간수해 돌 상여집을 동네마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자맷간은 또한 마을 사람들의 정보교환처로도 활용된다. 어른들은 잡담, 바둑, 장기로써 소일하고 어린이들의 놀이터로도 이용된다. 그리고 생활정보의 교환과 마을의 公共事를 협의하기도 한다. 애월읍 구엄리의 경우 쌍방아가 있었는데 그 터에는 여름이 되면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애용되고 있다.⁷⁷⁾

‘삼다도 소식’이란 노래의 2절에 보면 “삼다도라 제주에는 돌맹이도 많은데 돌 뿌리에 견어채인 사랑은 없다더라. 달빛이 지새드는 연자방앗간 밤새어 들려오는 콧노래가 구성지다.”라는 가사가 보인다. 돌·바람·여자와 함께 제주의 상징으로 연자매가 등장하는 걸 보더라도 제주민과 연자매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종 6년(1840) 9월 제주에 유배왔던 추사 김정희(秋思 金正喜)도 연자매 작업을 보고 七言律詩인 ‘마용가(馬舂歌)’를 지었다.

十人能之馬一之(사람이 열이 들어야 하는 일을 말 한필이 하는구나)

三家村裡託神奇(세 집안 있는 마을에도 마련하였으니 신기하기 그지없네)

大機大用元如此(큰 기구 크게 씀이 본디부터 이렇거늘)

環笑宗風老古確(도리어 宗風이 노고방아를 비웃는다)

引泉爲確亦塵嘶(샘물을 끌어다가 방아를 만드는 것 역시 작은 것이니)

嘶嘯舂歌莫見猜(흥얼거리는 방아노래여, 이를 보고 시기하지 마오)

似向先天探至像(사람 있기 전에 썩 뛰어난 모습 찾은 것 같고)

恍惚龍馬負圖來(황홀함이 龍馬가 掛圖를 지고 오는 듯하네)

라고 하여 조그만 시골에서도 연자매의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도민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은 물론 그 작업의 웅대함과 신기함을 읊고 있다.

⑤ 연자매의 분포 및 현실태

오늘날 남아있는 연자매는 거의가 복원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으로 하加里, 신엄리, 표선면 민속촌, 박물관 정도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金承泰가 조사한 1981년까지의 연자매의 분포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⁷⁸⁾

77) 강창언(70세), 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

<표. 7> 연자매의 분포상황

1981년 8월 말 현재

구분 연번	조사대상		현재		철거 시가 구수	연자 매수	연자매당 평균 가구수	철거 년도	보존상태
			가구수	인구수					
1	구좌읍	연평리	623	3,450	550	7	78.6	1965	전부철거
2		송당리	297	1,387	300	11	27.3	1957	"
3	조천면	함덕리	1,300	5,730	700	13	53.8	1951	"
4	애월읍	남읍리	400	2,100	510	20	25.5	1955	"
5		동귀리	230	1,240	230	8	28.8	1960	1
6		고성리	176	769	160	10	16.0	1970	1
7	한림읍	수원리	386	1,480	350	15	23.3	1965	전부철거
8		명월리	214	987	230	12	19.2	1970	"
9		강구리	89	389	62	3	20.7	1970	"
10	한경면	고산리	793	3,079	490	15	32.7	1974	"
11		산양리	213	1,120	225	10	22.5	1971	"
12	대정읍	신도2리	131	731	150	11	13.6	1973	"
13		인성리	215	965	220	6	36.7	1969	"
14		영락리	308	2,320	299	13	23.0	1965	"
15	안덕면	동광리	85	350	180	6	30.0	1967	1
16		화순리	723	3,000	350	15	23.3	1960	전부철거
17	남원읍	신례리	429	2,134	200	15	13.3	1959	"
18		신흥2리	180	930	80	7	11.4	1955	"
19		수망리	92	438	80	5	16.0	1958	"
20	표선면	세화리	288	1,210	250	9	27.8	1960	"
21	성산읍	고성리	700	3,000	300	7	42.9	1960	"
22		신평리	114	986	110	12	9.2	1970	"
23		수산리	308	1,312	300	15	20.0	1969	"
계(평균)			8,924	39,107	6,326	245	(25.8)	(1964)	3

78) 김승태(1982), "제주도 연자매와 그 민요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정미소가 생기기 전에는 곡식을 장만하고 찜는 일을 연자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을마다 밤낮없이 연자매를 돌리곤 했다. 그러나 정미소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탈곡기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연자매는 무용지물이 되어 1960년대를 전후하여 모두 철거되어 그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철거된 연자매들은 길가에 방치되거나 울타리 및 4H 표식판, 이정표, 입간판, 놀이터의 쉼자리, 빨래터의 '꽉'둥으로 둔갑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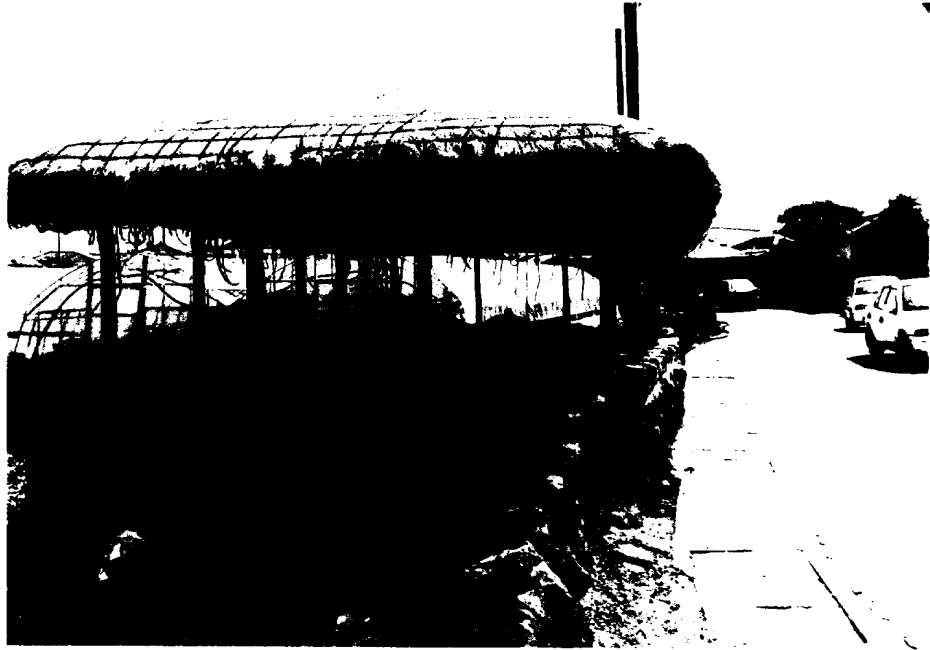
다행히 김영돈氏에 의해 연자매가 문화재관리국에 조사·보고되어 1975년 10월, 애월읍 하가리 '갓동네물그레'와 신업리의 '당거리 동네물그레'가 제주도 민속자료 제32호로 지정되면서 그나마 형태가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민속촌이나 일부 장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1> 신업리의 연자매



보존 실태는 신업리의 경우 1년에 1회꼴로 정기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주로 새(띠)가 생산되고, 농번기를 피해서 주로 가을에 실시된다. 이때는 주로 지붕, 나무(틀목) 등을 교체, 수리한다고 한다. 또한 한달에 한번 꼴로 주변 청소 및 제초작업을 하는데 주로 노인회 담당한다.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된 이후 1년에 70만원 가량의 관리비가 보조된다고 한다.⁷⁹⁾

<그림. 42> 구엄리의 쌍방아터⁸⁰⁾



(2) 그레 (맷돌·정그레)

제주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지가 매우 척박하고 협소할 뿐 아니라 밭이 대부분이어서 옛부터 잡곡을 主食으로 하여 살아왔다. 따라서 제주에 있어서 그레의 용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용도에 따라 大小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대형은 큰그레라 하고 가볍고 작은 그레는 정그레, 맷돌, 돌그레, 쟁그레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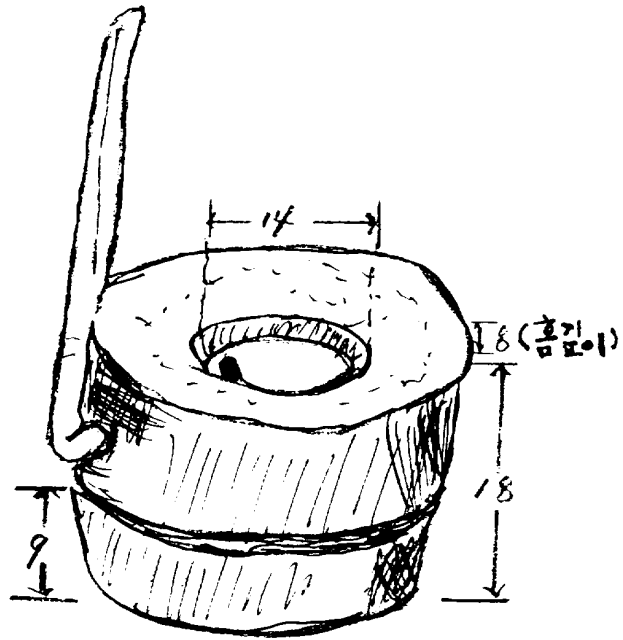
그레의 용도는 보리쌀을 반쪽으로 쪼개는 일, 메밀껍질을 벗기는 경우 알곡을 가루로 만드는데 이용된다. 보조 기능으로는 보리클 작업시 클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데 달아매기도 하고, 눈을 묶고 있는 줄을 고정시킬 때 쓰기도 한다.

79) 김두천(78세),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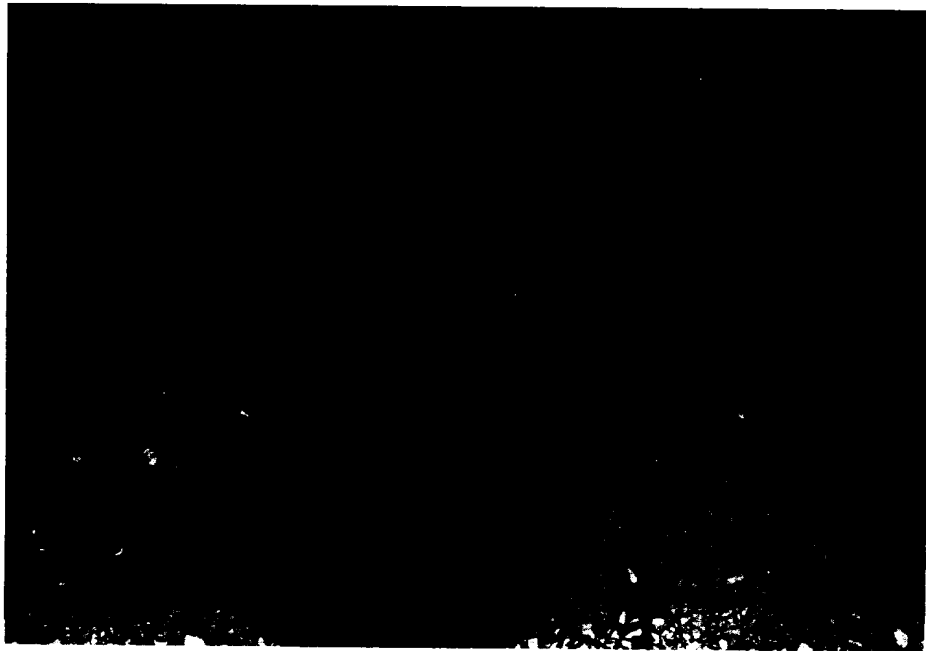
진정희(67세),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80) 원래는 쌍방아가 있었는데 하나는 1970년경에 팔아버렸고 지금은 하나만 남아 있다. 여름에는 동네 어른들이 저녁만 되면 모이는 곳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림. 43> 일반형 그레(제주대학교)



<그림. 44> 희귀형 그레(제주 민속 박물관)



재료는 연자매의 돌보다 훨씬 양질이어야 하며 구멍이 나있어야지 너무 단단하고 미끄러운 돌은 별로 이용되지 않는다. 제작은 사용할 돌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1개를 제작하는데 3~4일 정도 소요된다. 맷돌은 몇 해를 계속해서 이용하면 미끄러워져서 잘 갈리지 않는데 3년에 한번쯤 옷돌(윗부분)과 알돌(아래부분)이 마주치는 면을 골고루 쪼아주어야 한다. 쪼는 데는 석구제작에 쓰이는 돌자귀를 쓰는게 예사지만 보습을 사용하기도 한다.⁸¹⁾

과거에는 집집마다 맷돌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된 기구였지만, 지금은 시골 같은 경우 마당이나 길가에 방치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주로 장식품이나 전시용으로 이용된다.

ㄱ레질은 두 사람이 같이 노동을 하는 경우 한사람은 ㄱ레를 회전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다른 한 사람은 ㄱ레를 회전시키는 일과 병행하여 곡물을 ㄱ레에 담아 넣는 일을 한다. 따라서 이 율동은 규칙적인 회전동작이 작업의 핵심이 되고 있다. ㄱ레소리가 고된 노동과 여러 사회적 억압에 시달렸던 여성들에 의해 연행되는 것인 만큼, 이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활의 한을 해소하거나 극복, 망각 또는 공유하는 기능을 강하게 하고 있다.⁸²⁾

모양은 전체적으로 원통형을 하고 있으며 크기는 주로 성인의 한 아름 정도 되는 것이 보통이나 훨씬 작은 경우도 있다. 옷돌에 난 구멍을 통하여 곡식을 집어넣으면서 계속 돌리면 옷돌과 아랫돌이 면하는 사이로 쪼개지며 나온다. 일반적인 모습은 <그림. 43>이나 매우 희귀하게 테두리만 남기고 모두 파서 만든 형태<그림. 44>도 보인다

(3) 풀ㄱ레

ㄱ레의 일종으로 보통의 맷돌과는 달리 가장자리에 흙이 파여 액체류가 흘러 한 곳에 모이도록 제작된 것이다. 아낙네들이 두부를 만들기 위해 물에 부풀린 콩을 갈 때나 물에 부풀린 쌀 등을 갈 때 사용했다. ㄱ레와 형태와 기능은 비슷하나, 가루를 만드는데 썼던 ㄱ레와 달리 점액질 형태를 만드는데 썼으므로 형태도 돌리면서 갈던 옷돌(윗부분)은 같으나, 알돌(아랫부분)은 차이를 보인다. 알돌 가운데가 옷돌의 면과 같은 크기로 맞닿도록 만들었으나 가장자리를 성처럼

81) 김영돈, 전계서 pp. 6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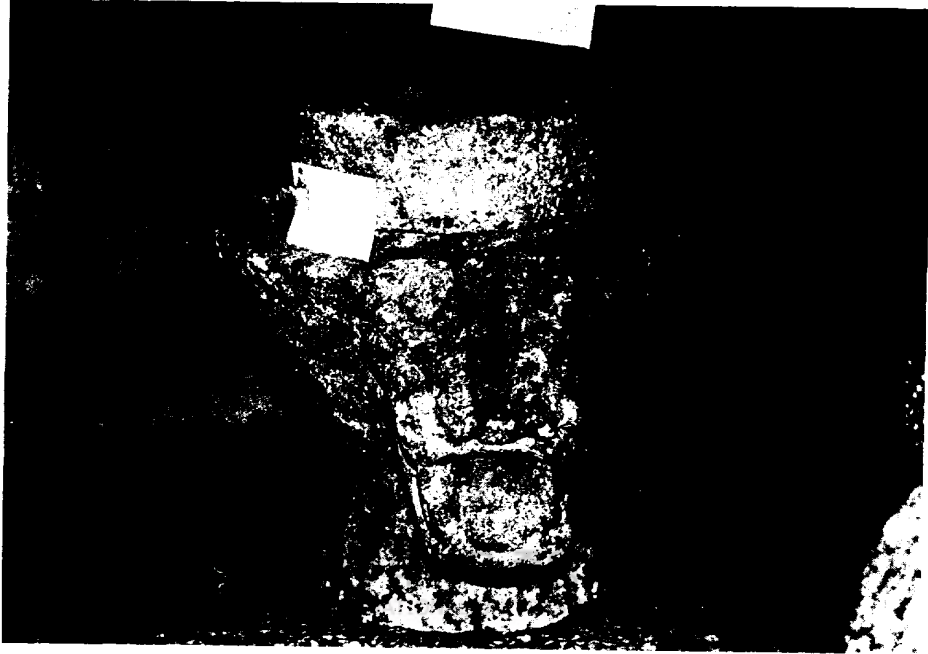
82) 남제주균(1996), 「우리고장 전래 민요」, pp. 254~256.

좌혜경(1995),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pp. 62~63.

둘러싸게 만들고 그 사이에 흠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한곳으로 모여 떨어지도록 조롱박 모양의 '코'를 돌출시켰으며, 어느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도록 알뜰을 높였다.⁸³⁾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그레도그리라는 함자박 모양의 그릇 안에 이것을 들어 얹혀놓고 사용한다.

어떤 풀그레는 옷돌을 거북 모양을 양각하고 알뜰은 용의 얼굴 형태로 만드는 등 대단한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그림.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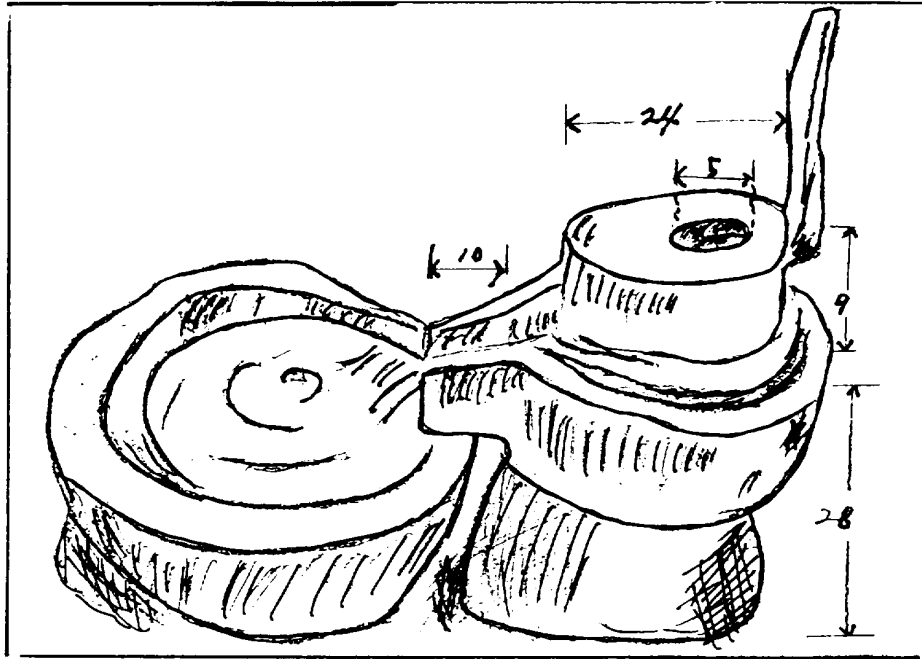
<그림. 45> 龍刻한 풀그레(제주민속박물관)



풀그레 역시 196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가구에서 사용한 생활 필수품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장식용이나 조경석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모양은 전체적으로 원통형을 하고 있다.

83)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진게서. p. 2235.

<그림. 46> 풀그레 규격(성읍리)



(4) 돌방에

석재 절구의 하나로서 그 형태는 제주도 특유의 木材절구인 통나무로 만든 남방에와 거의 비슷하다. 본토에는 상류하천이 없기 때문에 陸地部와 같은 물방아는 없고 대신 돌방에나 남방에 등을 이용했다. 주로 탈곡한 보리나 산뽕(발벼), 메밀 등을 搗精하는 데 사용했으며 혼인, 초상 때 떡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 때 製粉하는 데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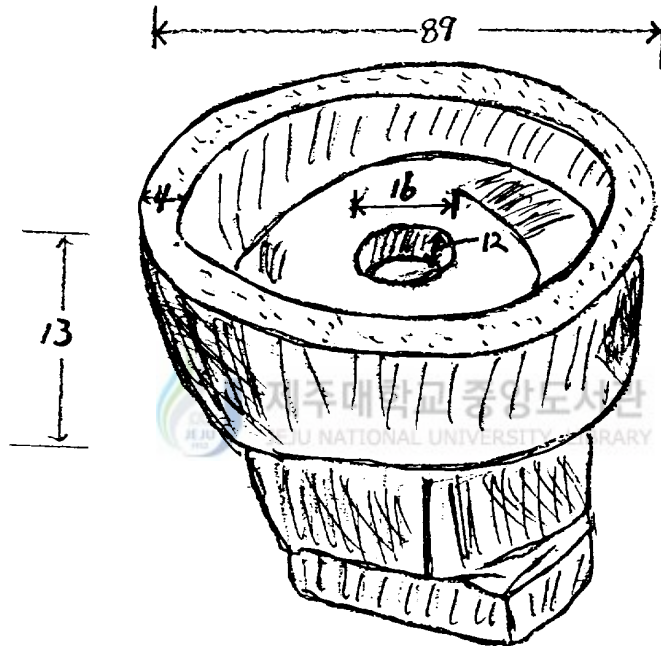
남방에와 같이 커다란 돌을 이용하여 넓게 파서 바닥을 만들고 그 중앙에 '혹'을 판 모양으로 돌절구와 구분되며 남방에에 비해 작은 편이다. 良質의 현무암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전체적으로 원통형을 하고 있으며 방에를 뿜거나 짚을 때 곡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몸통을 울렸는데 이를 '방에전' 또는 '방에천'이라고 한다. 또한 작업하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높이를 유지하면서 지면에 닿도록 된 '굽'을 세운다.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들고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다.

남방에는 목재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기후 특징인 고온 다습 및 심한 비바람 때문에 가옥 내부의 서늘한 곳 등에 보관하지 않으면 쉽게 썩히게 되지만 이 돌방에는 재료가 돌이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전혀 없다.

용도는 남방애와 거의 비슷하며 비교적 부호한 집안에서 갖춘 것으로 희귀한 편이다. 이런 돌방애는 굵은 나무가 흔치 않았던 대정읍의 동부지방, 신도리 등지에서 많이 제작되었던 듯하며 심지어 마라도에서도 보인다.⁸⁴⁾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소량의 곡물을 도정하거나 제분하는데 썼던 '절구'가 보편화된 시기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번 설치하면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적당한 크기의 넓이와 높이가 되는 돌을 선택했다. 이문간이나 헛간이 있는 '방애왕'을 별도로 만들어 정갈하게 쓰기도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⁸⁵⁾ 모습은 아래와 같다.

<그림. 47> 돌방애



(5) 돌절구

本土의 절구를 흉내낸 것으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고 밑에는 밑받침이 달려 있다. 주 용도는 돌방애의 경우와 같아서 적은 양의 탈곡한 곡식의 알곡을 내거나 가루를 빻는 일, 갈옷 제작을 위한 감을 짚는 일 등에 쓰였다. 절굿공이(절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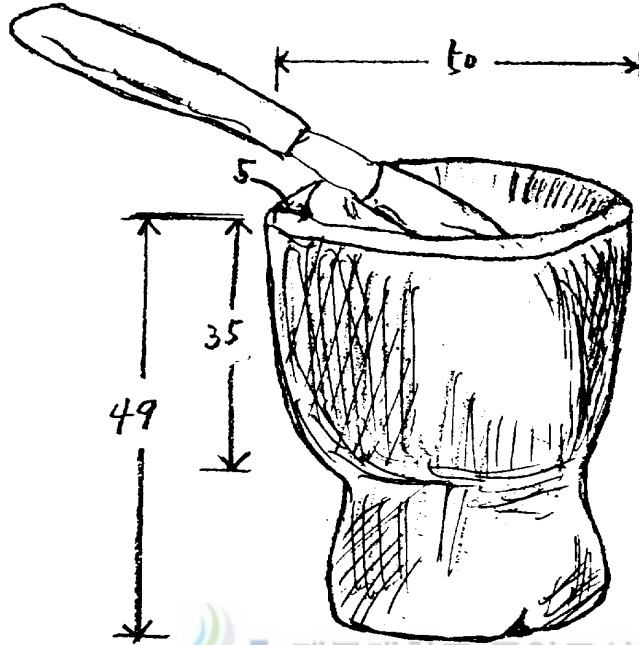
84) 김영돈(1968), 전계서 pp. 73~74.

85) 제주도자연사박물관(1998), 전계서, p. 259.

대) 역시 남방에와 돌방에에 쓰이는 것을 그대로 쓴다.

돌절구는 半島部の 절구가 전파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주도의 절구는 대부분 木材의 남방에를 가정마다 갖추고 있어 이런 石材의 절구는 희귀한 편이다. 富豪家나 제사가 많았던 종가집에서 갖추고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⁸⁶⁾

<그림. 48> 돌절구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돌을 우묵하게 판 것으로 벼농사를 많이 짓는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사용된다. 유럽에서는 적어도 그리스 시대 이전부터 사용했으며 로마시대에 널리 보급되었으나 로마시대 말기부터 중세에 이르는 사이에 수차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중국의 경우 「역경」의 계사전에 “황제 요·순이 만들다. 나무를 잘라 공이를 만들고 땅에 박은 절구를 쓴다. 절구는 매우 쓸모 있어 만민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돌절구의 재료는 다공질 현무암이다. 나무절구는 삭아서 못 쓸 수 있으나 돌절구는 상당히 오래도록 썼다.

특히 방에왕이 있는 집도 있었으나 이왕이면 쇠왕이나 헛간의 입구 등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했으며 비싼 것이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쓴다.⁸⁷⁾

86)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8), 전계서, p. 235.

(6) 남방애와 돌혹(돌확·방애혹)

남방애(나무방아)는 세아름, 네아름 되는 노목을 필요한 크기의 토막으로 잘라 내고 '혹(확)' 또는 '돌혹(돌확)'이라고 하는 돌(돌로 만든 절구)을 남방애 한복판에 박아놓고, 남방애 윗면은 곡식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통나무 속을 파서 함지박처럼 가장 자리를 만들고, 밑받침 부분은 나막신 굽처럼 二字 평행선 굽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 二字를 다시 양분하여 네 굽으로 만드는 수도 있다. 곡식을 타작하여 절구나 방아에서 찧어 겨를 벗기거나 가루로 빻아야 했는데 돌혹에 담긴 곡식은 절걱대와 마찰되어 곡식알은 벗겨지며, 가장자리로 튀어나오는 곡식은 빗자루로 쓸어 돌혹 속으로 몰아 담으면서 찧기를 계속한다.

이것은 나무로 만든 남방애內에 돌로 된 혹을 박아 놓음으로써 그 실용성을 높일려고 한 것이었는데 오늘날 도정기구의 발달에 따라 나무방아도 그 기능이 점차 없어지게 되어 농촌에서는 한 때 이 방애를 소의 쇠죽통으로 쓰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 와서는 고급주택의 응접실로 옮겨지면서 귀중한 테이블 노릇을 하게 되었다.⁸⁸⁾ 또한 돌혹만을 따로 떼어 내어 집안에 둔채 간단한 깨나 고추를 빻는데 쓰이기도 했다.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오늘날 쌀이나 기타 곡물을 찧으려면 예전과는 달리 도정기나 제분기에 의하여 용이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남방애에 의존했다.

방아를 찧을 때는 혼자 찧는 일도 있었으나 대개 두세 사람, 많으면 대여섯 사람까지 모여서 찧는다. 이는 방애의 크기에 따라 두콜 방애 세콜 방애, 네콜 방애, 여섯콜 방애로 구분하거나 곡식을 찧는 방애귀를 잡는 사람수에 따라 구분⁸⁹⁾하는 것과는 일치하며 12~13세기 중반의 京都清水寺 山老절구 그림⁹⁰⁾에서도 비교해 볼 수가 있다.

방애 및 돌혹의 모양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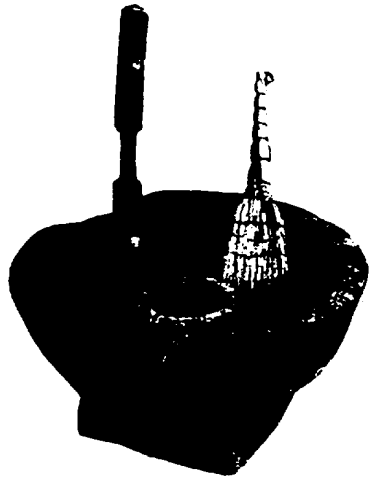
8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8), 전게서, p. 236.

88) 진성기(1979), 「제주민속의 멋」, 悅話堂. p. 31.

8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8), 전게서. p. 250.

90) 김광연(1995), "제주도의 민구 - 비교 민구학적 측면에서 -", 「제 3기 박물관 대학시민 강좌」, 제주대학교 박물관. p. 263.

<그림. 49> 남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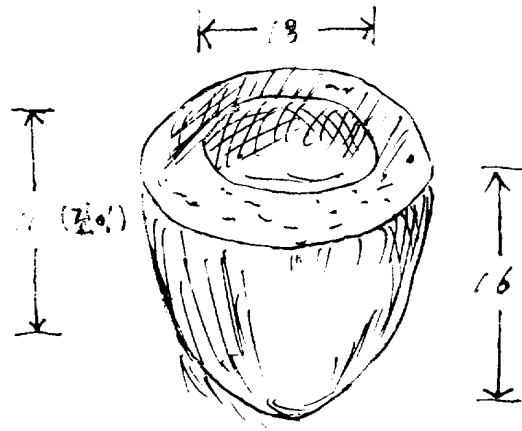
<그림. 50> 京都清水寺 山老 그림



<그림. 51> 방아 찧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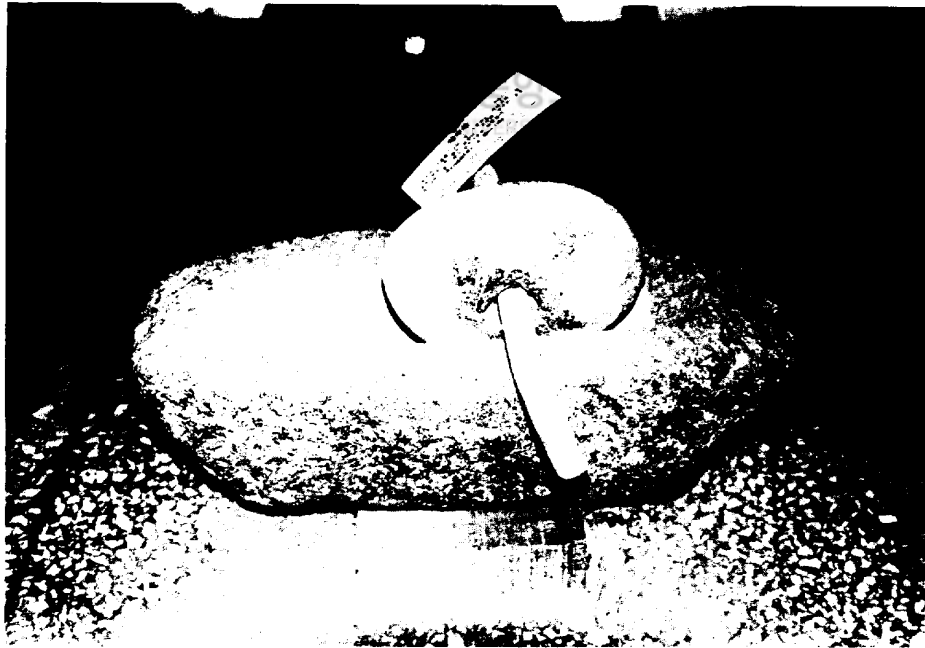


<그림. 52> 돌후



(7) 약그레

<그림. 53> 약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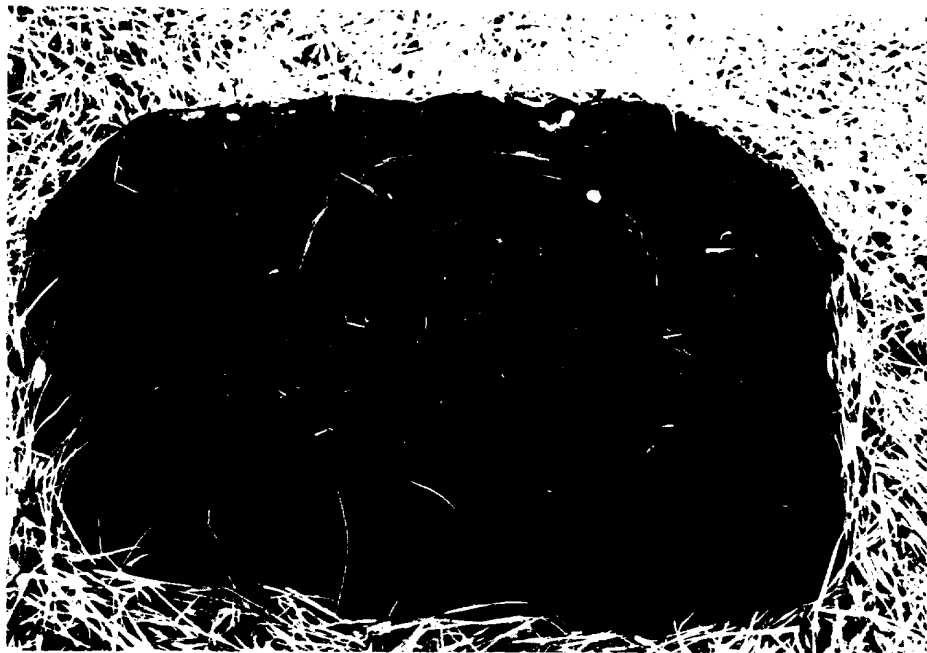


한약의 재료를 가는 데 사용하는 약연이다. 밑판과 윗공이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약연은 단단한 나무나 돌 그리고 도자기로도 이용되었다. 모양은 전체적으로 배(船) 모양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홈을 파고 그 홈에 재료를 넣고 윗공이를 굴리면서 약재를 갈게 되어 있다. 윗공이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좌우로 가로질러 나무를 끼워 손잡이로 이용했다. 밑공이의 장축 길이는 44cm, 홈 깊이 4~7cm, 높이 11cm, 윗공이의 지름은 17cm이다.

(8) 기름틀

기름을 짜는 기구로 정사각형, 직사각형, 또는 타원형의 판판한 자연석 가운데를 직경 25cm 내외로 둥그렇게 홈을 파고 그 원형 내부에 십자형 또는 한쪽 방향으로 가느다랗게 한 홈을 둥그렇게 판 홈이나 입구를 향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림 참조) 중앙의 둥그런 판 위에다 참깨, 유채씨, 동박씨 등을 올려놓고 돌이나 나무 등으로 눌러서 기름을 짠다. 눌러서 짜여진 기름은 둥그렇게 패인 홈을 따라 한쪽 방향으로 나 있는 입구 또는 구멍을 향해 흘러내리게끔 되어 있다.

<그림. 54> 기름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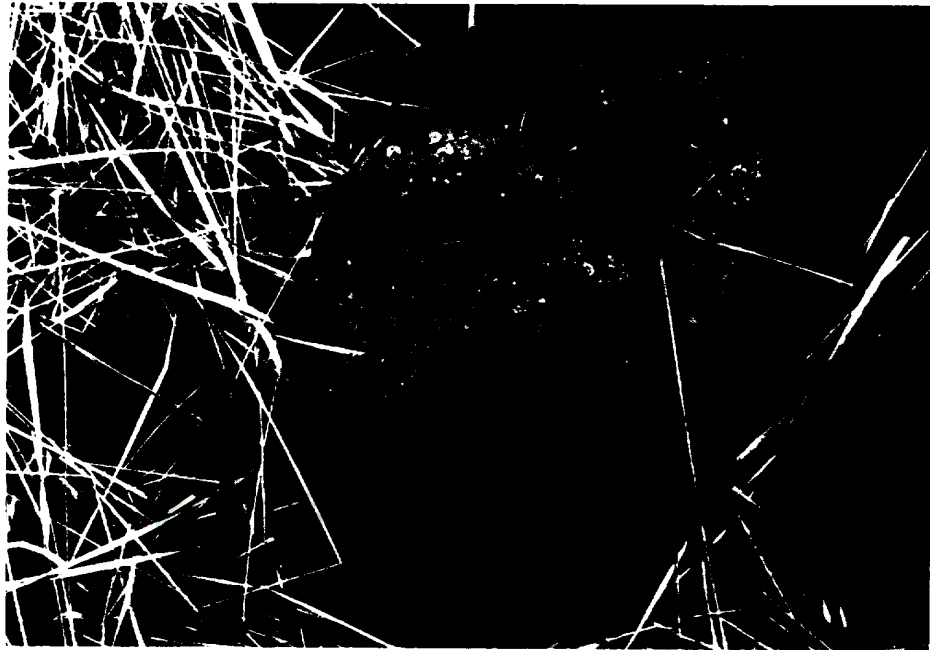


3. 牛馬와 관련된 기구

1) 곱돌(牛 길들이는 돌)

전승했던 바와 같이 제주도의 토양 특성상 밭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마소를 이용한 쟁기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마소의 쟁기질 훈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림. 55> 곱돌



곱돌은 이와 같은 경우 쟁기질을 해보지 않은 소에게 쟁기질을 가르치는데 사용되는 돌을 말한다.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1970년대까지는 사용되었다. 하지만 농기계의 보급과 더불어 요즘은 사용되는 곳이 없고 찾아보기도 힘든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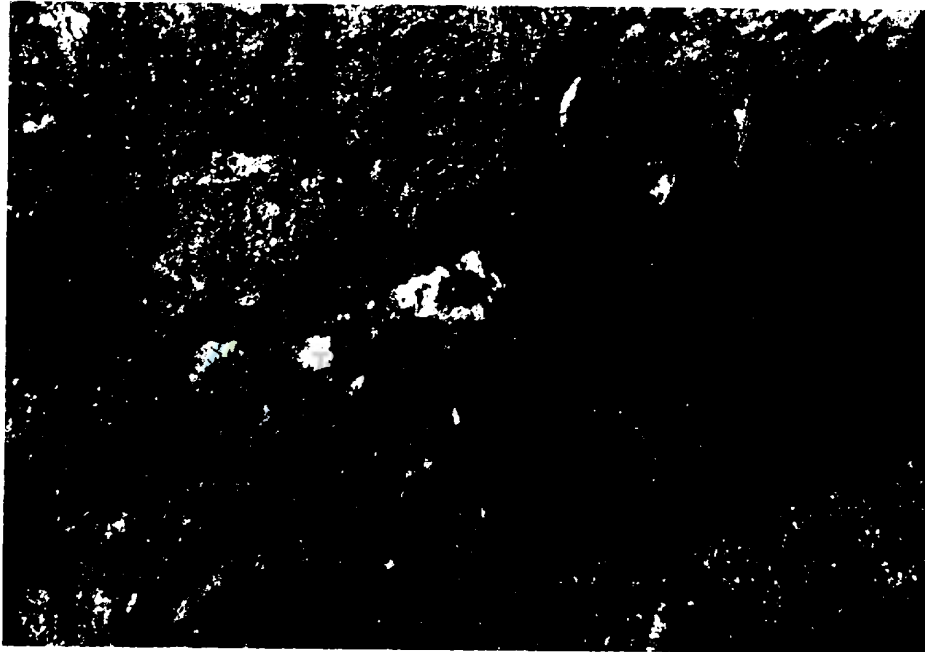
곱돌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타원형 내지 둥근 형태의 끝부분에 소에 묶을 수 있도록 고리(구멍)가 있는게 전체적인 모습이다. 재료는 제주도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을 사용하고 크기와 무게는 다양한 편이다. 목석원에 있는 곱돌의 경우 긴쪽의 길이가 60cm, 짧은 쪽의 길이가 38cm, 고리 지름이 7cm이다.

부패, 변질의 열려가 없어 마당 한구석, 울래, 쇠막 입구 등에 보관했다.

2) 마소 묶는 돌

전술한 바와 같이 제주는 말과 소가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밭가는 일, 밭 밟는 일, 연자매 이용, 납테, 돌테의 이용 등 과거에는 집안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재산이었다. 이러한 말이나 소 등을 묶어 두기 위한 것 중의 하나가 돌에 구멍을 내어 고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있다. 마당 입구, 쇠막 입구 등에 있는 큰돌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철사나 튼튼한 밧줄로 고리를 만들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림. 56> 마소 묶는 돌



IV. 방어시설재로서의 돌

1. 城

성이 언제부터 축조되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BC 5~4세기부터 성곽도시가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나라 史蹟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성 또는 城址이다. 이처럼 많은 성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는 그 연대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BC 194년에 위만(衛滿)이 왕검성에 도읍을 정하고 BC 18년에는 백제의 온조왕이 위례성에서 즉위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성은 오래 전부터 우리 나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⁹¹⁾

성을 쌓게 된 이유는 인간이 사회조직을 형성하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집단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국가에서 성을 쌓게 했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는 유달리 외침이 많았던 까닭에 삼국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많은 성을 축조하여 조선초기의 학자인 梁誠之는 조선을 '성곽의 나라'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⁹²⁾

제주지역도 위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성을 쌓았는데 제주의 성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항파두성과 환해장성, 애월쪽에 위치했었다는 목성이 거의 같은 시기에 쌓여졌다.⁹³⁾ 제주지역의 성은 크게 邑城・鎭城・長城 등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성은 모두 石城이나 항파두리성의 외성(고토성)은 土城이고, 삼별초 군대가 애월에 세운 성은 木柵城이다.

제주도 내에 있는 성의 종류를 보면 문헌이나 현존하는 성들은 여러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재료에 따라서 木城, 土城, 石城으로 나눌 수 있다. 목성은 현재 정확한 위치나 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애월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만 나와 있다. 토성은 항파두성의 외성 하나이고

91)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1989), 「동아 원색세계대백과 사전」, 동아출판사, p. 192.

92) 남제주군(1996),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세림원색인쇄사, p. 102.

93) 제대신문, “향토문화 탐방, 제주의 성 - ① 연재를 시작하며”, 1995년 8월 29일.

나머지는 모두 石城이다.

성을 쌓은 장소의 지형에 따라서는 山城과 平低城으로 나뉘는데 山城에 해당 하는 것도 항파두성 뿐이고 나머지는 平低城이다.

성벽의 모양으로 구분해 보면 성벽 자체가 항아리 모양이거나 활모양처럼 등 그렇게 보이는 성을 웅형(甕型) 또는 궁형(弓型)이라 하고 성벽모양이 비스듬하게 세워졌으면 단일경사형(單一傾斜型)이라 한다. 도내의 성들은 단일경사형이 대부분이고 웅형이나 궁형으로는 애월진 북쪽과 환해장성의 일부분을 들 수 있다. 제주에 있는 성의 단면을 보면 다듬어진 돌들을 지그제그식으로 쌓아올려 갔는데 가로로 길게 된 돌을 城石이라 하고 안으로 들어가 단면으로 봤을 때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부분을 面石이라 하며 그 사이에는 흙이나 잡석을 채우는데 제주의 대부분의 성들은 잡석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그 쌓아올린 돌들이 세밀하게 다듬어져 쌓여진 성이 있는 반면 거칠게 다듬어 쌓여진 성들도 있다. 3성, 즉 제주읍성, 대정현성, 정의현성은 모두 세밀하게 다듬어져 있다. 환해장성은 아예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이용해서 성을 쌓았다.

방어의 목적이나 행정적인 요인 이외에 쌓은 성을 보면 제주민중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수단, 즉 사육하는 말이나 소·돼지 등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밭과 목장을 구획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런 의도로 쌓은 성은 돌을 다듬지 않은 채 자연석을 갖고 듬성듬성 쌓았는데 이를 잣성이라 한다. 이 잣성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지만 지금도 농촌에 가면 밭 사이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⁹⁴⁾

1) 邑城

제주도에는 하나의 '목'과 두 개의 '현'으로 행정상의 그 구획을 나누었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을 쌓은 것이 제주목성, 대정현성, 정의현성이다. 읍성이 주로 행정적인 목적을 위한 성이었기 때문에 邑治의 중심에 설치되었다. 제주읍성은 현 제주시 일도동·이도동·삼도동·건입동 일대, 정의읍성은 표선면 성읍리, 대정현성은 대정읍 보성리·인성리·안성리 일대에 위치해 있다. 규모는 대략 둘레가 제주목성이 6,120척, 정의현성이 2,986척, 대정현성이 4,890척에

94) 제대신문, "향토문화 탐방. 제주의 성- ① 연계를 시작하며", 1995년 8월 29일.

해당하였다.⁹⁵⁾ 이들 성은 일제의 읍성 철폐령에 의하여 훼손되기 시작하였다.⁹⁶⁾

(1) 제주읍성

제주읍성은 과거 왜구와 해적의 침입이 빈번하였고, 대풍의 길목이 되어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인 피해가 심해서 이를 막아주기 위한 기초적 수단이 되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 버리고 오현단 부근에 높이 7m, 너비 4m 내외의 성벽 150여m 정도가 복원되어 있다.

현재 지방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읍성은 우리 고장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을 이용하여 쌓았다. 돌을 다듬어 바깥쪽은 견고하게 쌓고 그 안에는 잡석을 채워넣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성이 언제부터 축조되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백제 문주왕 4년(476년)에 탐라의 지배자가 속칭 왕자의 지위로 백제와 교류했다는 점 때문에 그때 이미 성이 쌓여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태종 11년(1411년) 정월에 제주성 수축을 명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성 둘레는 910보라 하였다.⁹⁷⁾

성의 크기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성의 둘레가 4천 3백 94척, 높이 11척이라 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邑城 石築 周四千三百九十四尺 高十一尺 城內無水 城男大石下 有大穴水湧出名嘉樂貴 深可丈許 流別築重城 城中人取汲

이후 성내에 물이 없어서 주민이 괴로움을 겪어오다가 1566년(명종 21년) 괘홀 목사 때 산저천(지금의 산지천) 동쪽으로 성을 확장하여 쌓음으로서 성의 둘레는 5천 4백 89척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부터 가락천 산저천 등이 성안에 놓이게 되어 주민들이 그 물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⁹⁸⁾

「耽羅志」

邑城 石築 周五千四百八十九尺 高十一尺 城中無水 嘉樂泉在於城外 別築重城 城中人取汲焉 嘉精乙丑 郭屹爲牧使時 退築東城 嘉樂泉今在城內 又有山底泉 有東

95) 1척(尺)=30.30cm, 문헌마다 성의 둘레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96) 남제주군(1996), 전계서, p. 102.

97) 제주도(1998) 「제주의 문화재(중보판)」, 제주인쇄공업협동조합, p. 274.

98) 제대신문, “향토문화 탐방 제주의 성 -② 제주읍성”, 1995년 10월 3일.

南西三門 又有南北水口二門 擊臺二十七 本大村 三姓所居之地.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축이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볼 때 제주성터를 더듬어 본다면 동문파출소를 기점으로 하여 측후소→산지교→해직굴→코리아극장→송신소남쪽→북초등학교 북벽→진성동→무근성네거리→서문로네거리→서부교회앞→구 현대극장 앞→제주의료원 남쪽→남문로타리→오현단 남쪽→남수각→영락교회남쪽→일도교북쪽→신산마루→동문파출소로 이어지는 선으로 그 길이는 약 3km에 달한다고 향토사학자 홍순만씨는 전한다.⁹⁹⁾

<그림. 57> 제주읍성



성을 쌓는 공사는 대단히 힘이들고 공사가 주로 겨울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役事로 인해 죽은 자가 열 중에 두세 사람이나 되어 원축성(怨築城)이라 일컬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성은 제주민과 함께 외부로부터 침략에 싸워온 장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555년(명종 10년) 6월 영암에서 패퇴한 倭船 40여척이 화북포에 정박하고 1000여명이 상륙하여 동쪽으로부터 제주성을 공격하였으나 목사 金秀文과 제주민이 단결하여 이를 격퇴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를 제주에서는 乙卯倭變

99) 제대신문, “향토문화 탐방 제주의 성 -② 제주읍성”, 1995년 10월 3일.

이라 한다.¹⁰⁰⁾

그러나 제주성은 일제가 1925년부터 1928년까지 제주항을 개발하면서 성벽을 헐어 바다를 매립하는 골재로 투석하고 그 遺址에는 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지금 남아 있는 곳은 오현단 부근에 일부만 그 잔해가 남아있고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치가 동문 시장과 도로 주위에 있기 때문에 세심한 보존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정의현성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한 정의현성은 처음 설치한 곳은 현재의 위치가 아니다. 「태종실록」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처음에는 현 성산읍 고성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고성리에서 성읍으로 옮겨진 이유를 설명하려면 먼저 제주도가 삼읍으로 나뉘게 된 배경을 대략적으로 알아야 한다.

제주도의 인구가 많아지고 소송이 빈번해지면서 한라산 남쪽의 지역민들이 제주목 관아를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더구나 농사철의 경우 제주목 관아의 출입은 농사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었다. 또한 정해진에 소속된 토호들이 백성을 침해하는 폐단이 비일비재하였으나 제주목 관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남에는 행정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태종 16년(1416년)에 안무사 도식의 요청으로 조정의 재가를 받아 산남 2백리 지역을 분할하게 된다. 그 동쪽을 정의라하고 서쪽을 대정이라하여 각각 현감을 두어 다스리게 했다. 태종 18년(1418년) 봄 대정현감 유신이 현성을 지금의 고성리 현동쪽 27리에 축성하니 둘레가 2천 8백여척, 높이가 10척이었다 한다.

그러나 고성리에 위치한 정의읍성이 정의현 전체에서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 있었으므로 행정의 중심지역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말이 나왔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전라도 관찰사는 정의현감 이이의 정문에 의하여 올린 제주의 사의 내용에도 정의읍성의 위치가 부적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의읍성의 이설배경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읍성 가까이에 우도가 위치해 있어 새벽과 밤에 고각 소리가 들리고 태풍이 자주 불어와 곡식

100) 김봉옥(1990), 전계서, p. 105.

제주도(1998), 전계서, p. 274.

이 흉년이 들뿐만 아니라 왜적의 침입이 잦은 이유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의현성이 진사리(지금의 표선면 성읍리)로 이설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1422년(세종 4년) 12월이다. 정의현성을 이설하고 도안무사 정간(鄭幹)은 배추(裴樞)에게 명하여 記를 쓰도록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당시 성의 축성과 규모를 알 수 있다. 도안무사 정간은 병조의 공문에 의거하여 삼읍 백성들로 하여금 부여케 하였으며, 책임 감독관으로는 제주판관 최치염(崔致廉)을 임명하였다. 성의 축조는 1423년(세종 5년) 1월 9일에 시작하여 1월 13일에 완성을 하여 불과 5일 만에 낙성을 보았으니 당시 동원된 삼읍 백성의 수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성의 규모는 주위가 2,520척이고 높이는 13척이었다. 그 후 정의읍성의 규모는 성의 주위가 2,968척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변화과정을 보면 <표. 8>과 같다.

동서남 3문 외에 여첩 180개가 시설되어 있었다. 또한 성의 축성지 선정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우물의 경우, 정의읍성에는 生水가 본래부터 없었다. 따라서 빗물을 담아두는 우물을 2곳에 마련하였으며, 이 우물이 마를 경우는 성의 남쪽 2리쯤에 있는 대천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읍성은 1989년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함에 따라 보호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남군청에 의해 복원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성의 일부와 서문, 남문이 복원되어 있다.¹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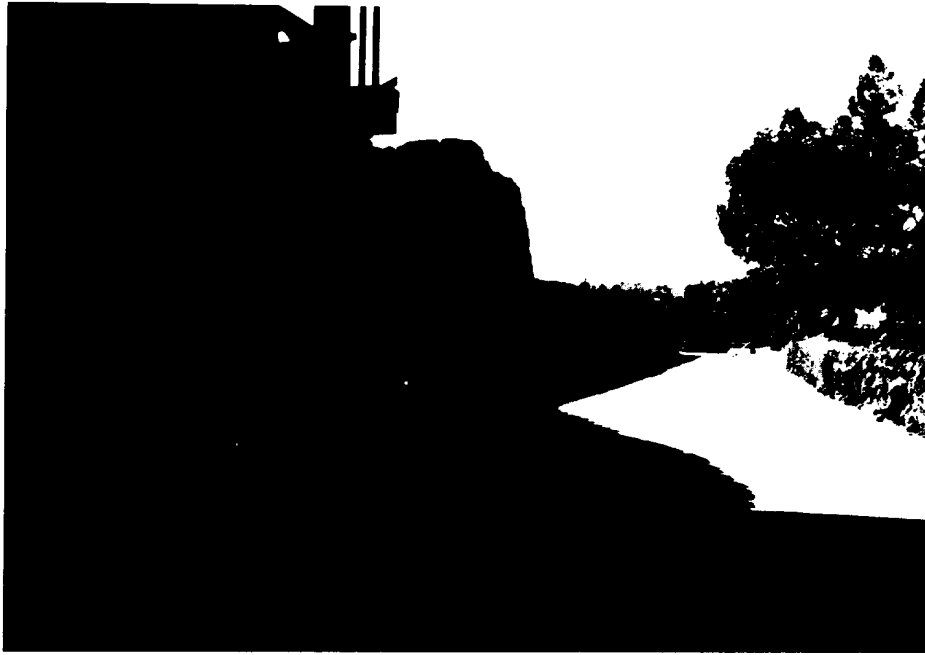
<표 8.> 정의읍성의 규모 변화 과정

資料名	刊 年	內 容
裴樞記	1423년	周 2,520尺, 高 13尺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	周 2,986尺, 高 24尺
耽羅志	1653년	周 2,986尺, 高 13尺
濟州邑誌	1780~1789년	周 2,986尺, 高 13尺, 東西南 3門 城中 2井(非生水旱 則取汲於城南二里許大川水)
濟州大靜旌義邑誌	1793년경	周 1,990步, 高 13尺, 女堞 180, 東西南 三門
耽羅誌草本	1842~1843년	周 1,593步, 高 13尺, 女堞 180, 東西南 三門
旌義郡邑誌	1899년	周 2,986尺, 高 13尺, 東西南 三門 城中 2井(非生水旱 則取汲於城南二里許大川水)

101) 남제주군(1996), 전계서, pp. 115~116.

제대신문, “향토문화 탐방 제주의 성 - ③ 정의읍성”, 1995년 11월 14일.

<그림. 58> 정의현성



(3) 대정현성

대정현성은 왜구의 침입을 막고 현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대정현이 설치된 2년 후인 1418년(태종 18년)에 현삼 유신(兪信)에 의하여 현재의 인성, 안성, 보성 3개의 마을에 걸쳐 축성한 것이다. 성둘레가 4천 8백 90여척이고, 높이는 약 17척4치이며 동·서·남쪽에 각각 문이 있었고, 처음에는 북문도 있었으나 후에는 없애버렸다고 한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보면, 산남쪽이 멀고 도적에 대한 방어가 허술하기 때문에 목진홍이라는 효과까지 노려 성을 쌓게 되었다는 축성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성을 단단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하고 한 두 유지와 같이 이 언덕을 돌아보며 땅을 헤아리고 위치를 정하니 고을의 장정들이 자식처럼 와서 일을 하여 한달도 채 못되어 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은 처음 쌓는 것이어서 경영이 정밀하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하였으나 그말을 듣고 술잔을 들고 주위를 살펴보니 성지는 굳건하고 관부는 완성되었으며 백성들은 희색이 감돌고 관원들은 공경스러운 모양이 있었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다. 당시 대정 주민들이 성을 쌓아야 할 필요성을 직감하고 있었으나, 단시일내에 성을 쌓기 위해 그들의 고난이 많았음을 짐작케 한다.

「남사록」에는 성안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가뭄이 들면 말라버린다고 써여져 있다. 그래서 남쪽에 파고천(杷古泉)이라는 샘을 이용했는데, 이 샘은 성에서 5리의 거리이며 가뭄을 만나면 성안의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서 물을 길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실록」에 보면 제주 경차관(敬差官) 사복시(司僕侍) 소운 박호문이 아뢰기를 “정의·대정의 두 현은 성내에 샘물이 없기 때문에, 정의현에서는 15리 밖에서 물을 길어오고, 대정현에서는 5리 밖에서 물을 길어 옵니다. 만일 왜구가 여러날 성을 포위하여 海中 孤島에서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정의는 토산으로 옮기고, 대정은 감산으로 옮기게 하십시오” 라는 기록이 있어 대정현성을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성지는 옮겨지지 않았다.

성안의 도로망은 우리 나라 읍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T’字形으로 주도로를 만들었고, 보조도로를 활꼴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런 도로형태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 도로는 현재 성중의 중간지점은 서귀포로 통하는 일주도로와 제주시까지 이어지는 서부산업도로가 들어서 있어 이 마을의 교통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58> 대정현성



현재 보성, 인성, 안성리 일원에 높이 2m의 석성이 약 400여m 정도가 남아 있으며 일부는 복원되어 있는데 지방기념물 제1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추사 김정희 적거유적지가 조성되어 있다.¹⁰²⁾

2) 鎭城

군사적 요충지에 쌓아 군인을 주둔시키던 곳을 鎭城(혹은 鎭堡)이라 한다. 제주도는 해안지대에 국방상 중요한 곳에 성을 쌓았는데 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애월진, 명월진, 차귀진, 모슬진(동해진을 옮긴 것), 서귀진, 수산진 등 모두 9개가 있다.

(1) 화북진성

이원진의 「탐라지」(1651년 출간)에 의하면 화북진성은 당시 제주의 대표적 인 해군기지였던 화북수군소를 방어하는 요새로 지어졌다고 한다. 화북수군소가 1555년(명종 10년) 6월 왜에 의해 격파되고 이를 통해 제주성을 3일간 포위하고 공격한 일이 있었는데(을묘왜변) 이 후 화북수군소를 방어할 진성을 축조키고 하여 1678년(숙종 4년) 겨울 당시 제주목사 최관이 화북진을 설치하고 성을 쌓아 조방군을 주둔시켰다. 이때 성의 높이가 11척이고 둘레가 3백 3척 이라고 기록돼 있다.

현재 화북진성은 해발 1~4m의 완만한 경사면에 있는데 동서 120m, 남북 75m의 타원형 형태로 전체적인 지형은 남고북저형태가 되고 있다. 성의 상태를 보면, 현무암을 거친다듬하여 쌓은 석축으로 궁형(弓形)의 형식을 하고 있다. 북쪽의 외벽은 바다와 폭 5m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축성 당시에는 바다와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성방법은 협축(狹築, 좁고 촘촘히 쌓은 것)이며, 잡석 채움을 하고 있다. 성곽은 거의 소멸되어가고 있어 보존이 아쉽다.¹⁰³⁾

(2) 조천진성

둘레 4백 28척(128m), 높이 9척(250cm), 폭 150cm인 조천진성은 그 규모에서

102) 남제주군(1996), 전게서, p.112

제대신문, “향토문화 탐방 제주의 성 - ④ 대정현성”, 1996년 3월 27일.

제주도교육청(1996), 전게서, p. 1000.

103) 제대신문, “향토문화 탐방 제주의 성 - ⑥ 화북진성”, 1996년 4월 3일.

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진성에 비하여 성문이 하나밖에 없고 규모도 작은 성이다. 그러나 그 지형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상 독특한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의 관문이자 왜관 방어성의 역할을 수행했던 조천진은 서산봉수와 조천왜포, 함덕연대를 관할하였다.

조천진성은 이옥 목사에 의해 경인년(1590년, 선조 23년)에 중창되었으나 이전의 성이 허름하여 다시 개축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천성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 현재에 전하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조천진성은 지형이 남고북저형이고, 남북을 장축으로 한 타원형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성의 안과 밖에서 보기에는 돌로 쌓은 석축인 듯이 보이나 그 사이에 흙을 섞어 만든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크기로 잘 다듬어진 돌로 축조됐으며 성의 형태도 허물어진 곳이 없이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¹⁰⁴⁾

(3) 별방진성

별방진성을 축성한 경위를 보면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1510년(중종 5년)에 목사 장림이 이곳은 우도의 왜선이 가까이 배를 댈 수 있는 곳이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김녕방호소를 이곳으로 옮겨 이름을 별방으로 하였다.”고 나타나고 있다. 이 별방진성을 떠나면 바로 정의지역으로서 별방진이 소재한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는 제주목과 정의현의 경계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별방진성은 둘레 9백60m에 타원형 성으로 전체적인 지형은 남고북저의 모양이다. 별방진성의 북쪽은 별방포구로 만조시에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며, 서문지와 동문지를 잇는 바닷물을 막아 호수로 이용했던 북측성벽은 대부분 허물어져 없어지고 변형되었다.

별방진성은 전체적인 모습으로 성벽은 평지에 협축(狹築)으로 축성되었고 내·외벽의 성석은 부정형(不定形)의 자연석을 쌓아 올리면서 성벽의 틈새는 작은 돌을 끼어 견고하게 축성되었다. 속채움석은 돌만 사용한 구간이 있고, 돌과 흙을 혼용한 구간이 있다. 성벽 상부는 완벽하게 남아 있는 구간이 없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104) 체대신문, “향토문화 탐방 제주의 성 - ⑤ 조천진성”, 1996년 3월 27일.

과거 제주목 동부의 최대 군사기지였고 지금은 지방기념물 제24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지만 원형을 찾아보기는 힘들다.¹⁰⁵⁾

(4) 애월진성

애월진성은 조천진과 더불어 조수로 호(壕)를 삼아 방어했다고 한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애월진성은 “고려 원종때(1317년) 삼별초가 들어와서 김통정 장군이 관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목성을 쌓았던 곳인데, 조선 선조 14년(1581년)에 김태정 목사가 현재의 애월포구에 석성으로 개축했다.”고 한다. 즉 처음에는 삼별초군이 관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전방인 애월포구에 나무로 축성되었다가 군사상 그 위치가 중요해지자 조선시대에 이르러 석성으로 개축되기에 이른 것이다.

애월진성은 남북을 길게 축으로 한 타원형모양이며, 크기는 동서로 75m, 남북은 95m 가량 된다. 지형은 원래 남고북저형이나 지금은 성내부에 학교건물이 건립되면서 매립돼 평평한 지형으로 바뀌었다. 성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부분은 성의 북쪽인데 성벽의 높이는 7~8m 정도이고, 밖에서 적군이 기어오를 수 없도록 성벽 중간에 불탄 형태를 하고 있고 윗부분에는 포대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어져 있다. 현재는 원래의 전체적인 모습과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옛유적 보호차원에서 남쪽 성벽 50m 정도 복원되어 있는 실정이다.¹⁰⁶⁾

(5) 명월진성

1979년 제주도 기념물 제 29호로 지정된 명월진성을 제주의 진성 중 가장 규모가 큰 성으로 한림읍 동명리와 명월리에 걸쳐 축조된 성이다. 그 크기는 모슬진(335척), 조천진(428척), 애월진(549척) 등의 작은 진성에 비하면 그 규모가 6~9배 정도가 크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1510(중종5년)에 장림목사가 비양도가 가까이 있으므로 그곳에 왜구가 접근하여 침공하기 쉬운 곳이라하여 처음에는 이곳에 목성을 쌓았다. 그러다가 1592년(선조 25년)에 이를 석축으로 다시 쌓았다”고 전하고 있다.

성의 규모는 3020척(1,360m)이고 높이는 8척(2.4m)이고 북서쪽과 남동방향을

105) 제대신문, “향토문화 탐방 제주의 성 - ⑧ 별방진성”, 1996년 5월 8일.

106) 제대신문, “향토문화 탐방 제주의 성 - ⑦ 애월진성”, 1996년 4월 10일.

기준으로 하여 긴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성의 전체적인 지형은 남고북저형이나 남쪽지형만을 볼 때는 봉고서저형으로 급격한 지세를 하고 있다. 명월진 성의 외벽의 경우 성의 전구간에 걸쳐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긴 하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존이 양호한 부분은 성 전체의 1/3정도가 해당된다.¹⁰⁷⁾

(6) 차귀진성

제주도에서 간행한 「제주도 방어 유적」에 의하면 차귀진성은 동서로 긴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규모는 성둘레가 1190척(392m)이고, 높이가 10척(3m)으로 다른 진성에 비해 규모가 작다. 상문은 동, 서에 위치해 있으며 상문 위에는 초루가 있고 성안에는 진사·객사·무기고 등 3개의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차귀진성은 지형적 입지 조건으로 볼 때 만에 위치해 바다와 인접한 다른 진성과 달리 수산진성과 함께 진성으로서는 특이하게 평야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방어유적이다.

차귀진성의 축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한 견해는 고려 충렬왕 때부터 공민왕 23년까지 원이 목마할 때 서아막(西阿幕: 목축관리소)으로 사용하면서 성을 쌓았다가 원이 물러가면서 조선 중종 5년(1510)에 진성으로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와 다른 견해는 1652년 이원진 목사가 앞에 차귀도가 있고 차귀도의 왜적이 자주 침입해 들어오므로 진을 설치할 것을 중앙에 아뢰어 서에 주둔하는 군사가 125명인 여수를 두었고 1675년에 여수를 파하고 조방장을 두고 숙종 32년(1706년)에는 수산진성과 함께 격을 높여 만호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건데 원래 원에서 축성한 것을 나중에 조선시대에 와서 진성으로 개축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⁰⁸⁾

현재는 남아있던 성벽이 밭 개량 사업으로 거의 사라져 형태마저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7) 모슬진성

모슬진성은 제주에 설치되었던 9개의 진성 중 현재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은 성

107) 제대신분, “향토문화 탐방 제주의 성 - ① 명월진성”, 1996년 6월 12일.

108) 제대신분, “향토문화탐방 제주의 성 - ② 차귀진성”, 1996년 8월 21일.

이다. 「담라지」, 「제주도 방어유적」 등에 따르면 모슬진성은 현재 모슬포 동부두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진성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성됐듯이 모슬포도 고려말부터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구의 침입이 날로 심해지자 조정에서는 1508년(중종 4년)에 방호소를 두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으며 1676년(숙종 2년)에 모슬진성을 쌓았다.

이원진의 「담라지」에 의하면 모슬진성은 본래 수전소가 있었던 곳인데 1675년에 이선(李選) 어사의 건의에 따라 1676년에 윤창형 목사가 동해방호를 옮겨서 축성하였다. 지형이 다리미 모양으로 바다로 뻗어 있어 육지와 통할 수 있는 북쪽에만 문을 두었다. 성둘레는 3백 35척(100.5m)이고 높이는 12척(3.6m)으로 다른 진성에 비해 규모가 작다.

조선 숙종때(1702년)의 「탐라순력도」에 의하면 서의 원래 모양은 동서를 장축으로 한 타원형이고 모슬진성 안에는 진사와 객사 무기고 등 건물이 4채 있고 성문은 북쪽 한 곳에만 있으며 성문의 입구를 제외한 모든 성벽은 바다와 인접해 있다.¹⁰⁹⁾

그러나 현재는 모슬진성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8) 서귀진성

서귀포시 서귀 초등학교 부근에 위치해 있는 서귀진성은 일제 때 거의 훼손당해 지금은 약간의 흔적 정도만 보여 줄 뿐이다. 서귀포는 고려말부터 왜구의 침입이 잇달았던 것으로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다. 왜구의 침입이 날로 심해지자 조정에서는 1260년 방호소를 두어 왜구에 대비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1510년에는 홍로천 위에 서귀진을 쌓았다가 80년 뒤에 솔동산 부근으로 옮겼다.

홍로천 위에 있던 서귀진이 현재의 위치로 옮긴 데에 대해서는 이원진의 「담라지」에서 “본래는 해변가 홍로천 위에 있었는데 1590년(선조 23년) 이옥목사가 현위치로 옮겨 축성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성둘레는 8백 25척(249m)이고 높이는 12척(3.6m)”이라고 기록돼 있어 그 규모가 작았음을 알 수 있다. 입지적 특성으로 보면 “성 밑에 포구는 넓고 암벽으로 돼 있어 자연

109) 남세주군(1996), 전계서, p. 111.

체대신문, “향토문화탐방 제주의 성 - 13 모슬진성”, 1997년 9월 2일.

방풍이 되므로 수백척의 선박을 감추어 둘 수 있었다.”고 한다.

조선 숙종 때(1702년)의 「탐라순력도」에 의하면 성의 모양은 동·서를 축으로 한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객사, 진사, 진졸청과 무기고, 창고, 사정 등 8채 있다고 전해진다.

성이 지금처럼 그 형태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기는 20세기 초부터다. 1906년(광무 10년) 그 자리에 서귀 순사분파소가 설치되면서 훼손되기 시작하였고, 그 일부는 일본인들에 의해 1917년 심상소학교부지로 사용되었다. 행방 이후에도 각종 관공서로 사용되다가 민간에 불하되면서 훼손이 가속화되어 현재는 흔적마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¹¹⁰⁾

(9) 수산진성

성산읍 수산리 수산초등학교 울타리로 사용되고 있는 수산진성은 위치상으로나 축성방식으로나 다른 진성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수산진성은 1439년(세종21년)에 축성되었으며 서의 둘레는 1,164척이고 높이는 16척”이라고 전하고 있다. 성의 규모가 진성 중에 4번째로 크며, 모양 또한 다른 진성이 타원형을 하고 있는데 반해 사각형을 하고 있다. 또한 축성된 시기도 100여년이 빠르며, 진성이 위치한 곳도 다른 진성은 모두 바다를 끼고 있는데 수산진성은 바다와는 거리가 먼 중산간의 평지에 있어 동쪽으로 침입해 오는 왜구를 방어하고 우도 부근에 출몰하는 왜구를 소탕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벽 바깥으로 돌출하여 만든 성벽인 치성(雉城)과 치성 사이의 구간이 일직선으로 된 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수산진성은 축조 방법은 2단식 석축으로 되어 있다.

수산진성은 한때 선조 30년(1597년)에 목사 이경록에 의해 방호소가 성산으로 옮겨지면서 일시 폐성된 바 있었다. 그러나 성산으로 옮긴지 2년도 채 안된 선조 32년에 목사 성윤문이 ‘성산은 물이 없을 뿐 아니라 멀리 한구석에 치우쳐 있으므로 수어(守禦)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여 다시 현재 성이 위치해 있는 수산으로 옮겨졌다.

비록 성문, 여장 등은 흔적이 없지만 다른 진성에 비해 형태가 잘 보존되어

110) 제대신문, “향토문화탐방 제주의 성 - ⑨ 서귀진성”, 1996년 5월 15일.

있는 편이다. 더 훼손되기 전에 장기적인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3) 환해장성(環海長城)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바다를 통한 침략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았을 것이다. 환해장성은 말 그대로 바다에 접하면서 섬을 감싸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해장성의 축성 동기에 대해 「고려사절요」, 「탐라기년」,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에 보면 고려 원종 11년(1270년) 삼별초가 진도를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니 김수, 고여림 등을 탐라에 보내 삼별초의 제주 상륙에 대비해 건입포를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 성을 쌓게 했는데 그 길이가 300여리(약 120km)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있다. 이후에는 삼별초에 의해 개축되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제주도의 각 읍성들을 보호하는 외성의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와서 서양 선박이 출몰하면서¹¹¹⁾ 현종 11년(1845년) 겨울에 권직(權稷)목사가 삼읍 백성을 동원하여 환해장성을 수축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¹¹²⁾ 조선조 말까지 계속해서 개축, 보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남아 있는 환해장성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때 수축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제주도에 자취가 남아있는 환해장성은 제주시의 경우 화북동 환해장성, 북제주군의 고내리, 북촌리, 행원리 환해장성, 남군의 온평리 환해장성의 경우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환해장성의 축성 형태는 해안가 농경지에 해수나 해풍을 막기 위해 접담을 쌓았고, 성의 형태는 바다쪽으로 높고 안쪽으로는 사람이 뛰어다니며 바다쪽을 감시할 수 있는 높이의 보도(步道)시설이 있는 곳이 많았다고 기록들은 전하고 있다.

환해장성은 다른 성과는 달리 완전한 성의 모습을 갖추기보다는 해안가를 따라 성벽이 높고 길게 쌓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돌들도 일정하게 정리하여 쌓은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돌들을 사용하여 잡석채움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녀 탈의장, 양식장, 항구 개발, 각종 도로의 개설 등으로 시설물이 대부분 파괴되어 가고 있다.

111) 현종 6년(1840년) 12월에 영국 선박 2척이 가파도에서 牛畜 약탈 사건, 현종 11년(1845년) 6월에 영국 선박이 우도에 나타나 측량 작업을 실시한 예가 있다.

112) 김봉옥(1990), 전계서, pp. 181~182.

1997년 9월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도내 해안선 일원에 그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13군데의 환해장성을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했다. 문화재로 지정된 환해장성은 화북1동 곤을동, 별도환해장성, 삼양 3동 환해장성, 애월 환해장성, 북촌 환해장성, 한농 환해장성, 온평 환해장성(4군데), 신산 환해장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문화재지정으로만 그치지 말고 원형을 복구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¹¹³⁾

2.烽燧・煙臺

봉수는 햇불(烽)과 연기(燧)로써 급보를 전하던 군사통신조직¹¹⁴⁾이었고 연대는 연변봉수가 변경의 최전방에 위험도가 워따르므로 따라서 요새적 시설이 필요한 데 이러한 감시를 위한 요새가 연대라 할 수 있다.¹¹⁵⁾

세주의 봉·연대에 관한 「世宗實錄」의 기록을 보면, “烽火와 候望은 州의 동쪽 김녕에서 판포(板浦)까지 10개소, 대정현(大靜縣) 서쪽 차귀(遮歸)에서 동쪽 거옥(居玉)까지 5개소, 정의현(旌義縣) 서쪽에서 북쪽 只末山(地尾峰)까지 7곳에 매 봉화마다 5인씩 나누어 정하였고, 또 연대를 쌓았는데 높이가 10척입니다. 땅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兵器 및 旗角을 가지고 올라가서 만일 敵變이 있다면 봉화를 올리고, 角을 불어서 서로 전하여 알게 합니다……”라 하여, 제주에는 봉수대와 연대를 쌓아 관측하며, 각 봉수대에 5명의 봉군을 두어 상황에 따라 봉화를 올리고, 각을 불어서 전달하는 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들은 주로 왜구(倭寇)의 침입에 따른 방어책으로 등장한 것들이다. 원래 봉수대는 산 정상에 세우고, 구릉에 연대를 세웠으나 제주도의 경우는 둘 다 바다가 보이는 주요 지점에 설치되었다. 연대는 주로 바닷가의 전망 좋은 야트막한 언덕에 설치되었고 봉수는 주로 바다에 인접한 전망 좋은 오름 정상에 설치된 흔적들이 보인다. 봉

113) 남세주군(1996), 전계서, pp. 116~117.

세대신문, “향토문화탐방 제주의 성 - ④ 화북동 환해장성. 1996년 9월 16일.

세대신문, “향토문화탐방 제주의 성 - ⑤ 고내리 환해장성. 1996년 11월 4일.

제주도교육청(1996), 전계서, pp. 1001~1002.

114) 고상석(1989), “조선시대의 제주도사회 - 봉수제도-”, 「월간 관광제주」, 1989년 10월 p. 79.

115) 제주도교육연구원(1996), 「郷土史教育資料」, 태명인쇄사, p. 275.

수는 일반적으로 석축시설 없이 등글게 흙을 쌓아 올려 그 위에 불을 피울 수 있는 시설을 하였다.

동양에서는 물론 서양의 고대 사회 및 미개사회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이 방법은 우리 나라에서도 고대로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나 확실한 것은 고려 의종 3년(1149) 이후부터였다. <증보문헌비고> 병고 봉수조에 의하면, 당시 서북면 병마사였던 조진약(曹晋若)의 상주(上奏)에 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하되 평상시에는 한번씩 올리고 2급에는 2번, 3급에는 3번, 4급에는 4번씩 올리도록 하며, 각 봉수대에는 방정(防丁) 2명, 白丁 20명을 배치하여 그들에게 평전(平田) 1結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¹¹⁶⁾

「大典會通」에 의하면 “평시에는 1炬(炬 : 횃불 1개), 적이 나타나면 2炬, 경계에 접근하면 3炬, 경계를 범(犯境)하면 4炬, 交戰하면 5炬를 올린다.”라 하여¹¹⁷⁾ 상황에 따라 炬數(烽火數)를 달리하였다.

만약 적이 침입이 있을 때, 안개, 구름, 비, 바람 등으로 인하여 봉화로써 신호가 통할 수 없을 때에는 봉수군이 다음 봉수대까지 달려서 알리는 한편, 주위의 주민과 수비군인에게 급보를 알린다.

그런데 봉수군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부근의 주민을 중심으로 차출하였는데, 그 신분은 초기에는 염간(鹽干), 진척(津尺) 등과 같이 봉화간(烽火干)이라고도 하여 신랑역천(身良役賤 : 浪人과 賤人의 중간)에 속하였다. 그러나 봉수의 역이 고달프고 갈수록 신분이 낮아, 조선조 후기에는 이른바 칠반천역(七般賤役)이라 하였다. 그들은 공부(貢賦)외의 일체의 잡역을 면제받았다. 봉화대에 배속되는 봉수군은 그 임무의 막중함으로 해서 다른 군역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오직 망보는 일에만 종사하게 했던 것이다. 물론 그 임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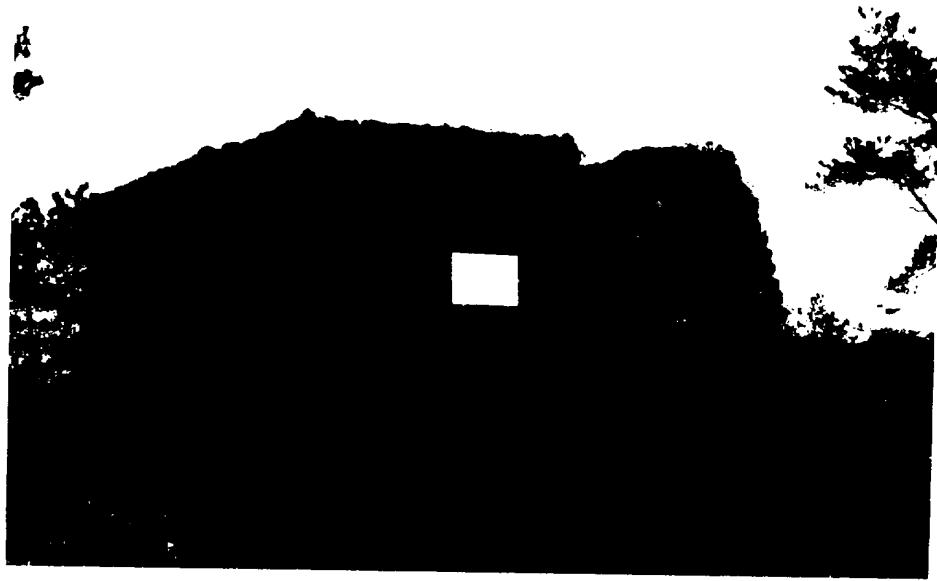
제주도의 경우 봉수에 관한 기록은 <동사강목> 충렬왕 7년(1281)에 “……耽羅 등지에 경계를 구획하여 봉수를 설치하고, 배와 무기를 몰래 간직해 놓고 밤낮으로 감시하며 순찰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려 말 이전부터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⁸⁾

116) 고창석(1989), 전계논문, p. 77.

117) 제주도교육연구원(1996), 전계서. p. 275.

118) 고창석(1989), 전계논문, pp. 78~80.

<그림. 60> 애월연대



연대의 축조는 「경국대전」兵典 烽燧條에 의하면 높이 30척, 밑면 1변 길이 20척 方形으로 축대하고 둘레 밖으로는 깊이 10척, 너비 10척의 堦字를 파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도의 경우에는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해자를 판 연대는 없다. 구좌면 월정리 무주(無注)연대와 평대리 입두(笠頭)연대는 砂丘를 외벽으로 축조하였다. 그리고 봉수와 연대 주변 100보 내에서는 봉수로 誤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火氣를 사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였다.¹¹⁹⁾

제주지역의 봉수와 연대는 1439년(세종21) 濟州都安撫使 韓承舜에 의해 어느 정도 정비되었으나 도내 봉수와 연대의 수는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정조년간에 작성된 「濟州兵制烽臺總錄」과 「濟州大靜旌義邑誌」에 의거 3城·9 鎮 소속의 봉수와 연대, 그리고 그 응소관계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¹²⁰⁾

119) 제주도(1998), 전게서, p. 312.

120) 남제주군(1996), 전게서, pp. 103~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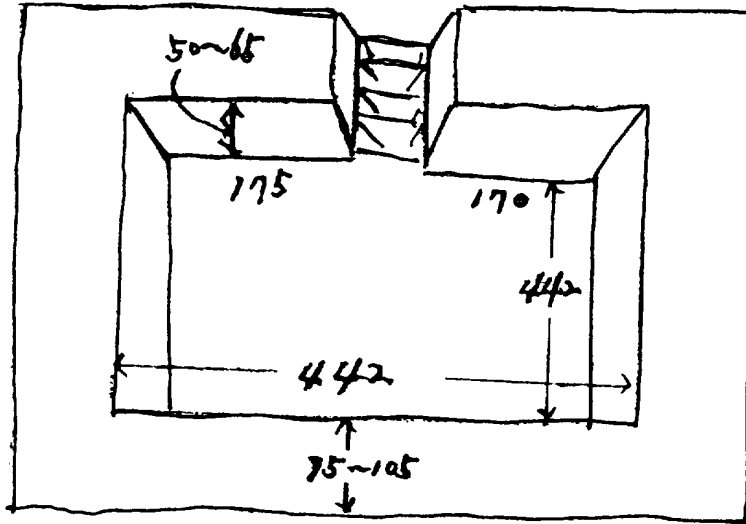
<표. 9> 제주지역 봉수·연대의 응소 관계

3성	9진	봉수	응소지역	연대	응소지역
제주 읍성	직할	사라봉수	동: 원당, 서: 도두	수근연대	동: 별도, 서: 조부
		도두봉수	동: 사라, 서: 수산	조부연대	동: 수근, 서: 남두
		수산봉수	동: 도두, 서: 고내		
	화북진	원당봉수	동: 서산, 서: 사라	별도연대	동: 조천, 서: 수근
	조천진	서산봉수	동: 입산, 서: 원당	조천연대	동: 왜포, 서: 별도
				왜포연대	동: 함덕, 서: 조천
함덕연대	동: 무주, 서: 왜포				
별방진	입산봉수	동: 왕가, 서: 서산	입두연대	동: 종달, 서: 왕가	
			좌가연대	동: 입두, 서: 무주	
애월진	고내봉수	동: 수산, 서: 도내	무주연대	동: 좌가, 서: 함덕	
			남두연대	동: 조부, 서: 애월	
명월진	도내봉수	동: 고내, 서: 만조	애월연대	동: 남두, 서: 귀덕	
			만조봉수	동: 애월, 서: 우지	
대정 현성	직할	저별봉수	동: 호산, 서: 모슬	우지연대	동: 귀덕, 서: 죽도
				죽도연대	동: 우지, 서: 마두
				마두연대	동: 죽도, 서: 배령
	차귀진	당산봉수	동: 도내, 서: 당산	배령연대	동: 배령, 서: 두모
				내포연대	동: 대포, 서: 우도
				두모연대	
모슬진	모슬봉수	서: 당산, 남: 저별	당포연대	동: 별로천, 서: 산방	
			산방연대	동: 당포, 서: 무수	
			별로천연대	동: 대포, 서: 당포	
정의 현성	직할	토산봉수	동: 달산, 서: 자배	대포연대	동: 색수, 서: 별로천
				달산봉수	동: 색수, 서: 대포
				남산봉수	동: 연동, 서: 색수
서귀진	삼매양봉수	동: 호산, 서: 호산	변수연대	동: 연동, 서: 색수	
			독자봉수	동: 서림, 서: 두모	
			자배봉수	동: 산방, 서: 서림	
수산진	호촌봉수	동: 호촌, 서: 귀산	무수연대	동: 무수, 서: 우두	
			자배봉수	동: 소마로, 서: 금로포	
			수산봉수	동: 천미, 서: 벌포	
정의 현성	직할	달산봉수	동: 남산, 서: 토산	천미연대	동: 마등포, 서: 소마로
				남산봉수	동: 협자, 서: 천미
				독자봉수	동: 협자, 서: 천미
수산진	삼매양봉수	동: 호촌, 서: 귀산	연동연대	동: 보목, 서: 변수	
			성산봉수	동: 우미, 서: 연동	
			성산봉수	동: 금로포, 서: 보목	
정의 현성	직할	토산봉수	동: 달산, 서: 자배	우미연대	동: 벌포, 서: 우미
				달산봉수	북: 우포, 서: 말등포
				남산봉수	남: 협자, 북: 종달
수산진	호촌봉수	동: 호촌, 서: 귀산	금로포연대	남: 오조포, 서: 입두	
			성산봉수		
			지미봉수		
3성	9진	25봉수		38연대	

연대의 경우 봉수에 비해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관리도 나은 편이다.
주로 자연석을 이용해 쌓아놓았다.

연대의 규격(남두연대)의 규격을 보면 높이가 313cm, 가로 710~740cm인데
밑부분에서 윗부분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져 안정감을 준다. 윗부분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그림. 61> 남두연대의 규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 신앙대상 상징으로서의 돌

1. 장묘석

1) 지석묘(고인돌)

탐라국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제주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는 도내 곳곳에 남아 있는 고인돌로 알 수 있다. 1700여년 전 제주인들은 부족사회를 형성하여 집단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지배자 내지는 족장이 죽으면 거대한 돌 밑에 시신을 안장했다.

이처럼 지석묘는 고대인들의 무덤 양식의 일종으로 땅속이나 땅위에 돌로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려놓는 무덤을 말한다.

지석묘는 우리 나라 선사시대 무덤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威北地方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00여기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¹²¹⁾ 제주도의 지석묘는 100여기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주도의 지석묘는 대부분 단독으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석묘群을 이룬다 하더라도 지석묘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석묘의 분포는 해발 100m 미만의 해안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제주시를 비롯하여 서북부와 서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동남부에는 매우 드물다.

우리 나라 지석묘의 형식은 크게 북방식, 남방식, 개석식 지석묘로 분류하고 있지만, 제주 지석묘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그 형태 혹은 구조에 있어 한반도 육지부와는 다른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어 제주도형이라 불리도 좋은 형식이 있으나 대체로 南方式 지석묘에 속하며 전체 한반도 지석묘 중 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九州地方 지석묘와 관련이 있다고 어렵פות하게 추정되었을 뿐이다.¹²²⁾

121) 이청규(1995), "제주도 지석묘연구(I) -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지석묘군 -", 「탐라문화」 제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p. 25.

122) 이청규(1995), 상계논문, p. 26.

제주도 지석묘의 형식은 크게 매장부의 위치와 지석의 고임방식을 큰 분류기준으로 삼고 따른다. 형식분류의 기준이 되는 매장부의 위치는 시신을 지하에 매장하는가 아니면 지상에 매장하는가에 달려있다.

다음은 지석의 고임상태이다. 지석의 고임상태는 곧 상석을 올리는 방식이 된다. 매장시설 상부에 지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이와 같이 매장시설 위치와 고임상태를 기준으로 제주도 지석묘를 구분하면 대체로 여섯 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형식은 지석 없이 상석이 지표에 바로 닿는 개석식 혹은 무지석식 지석묘로서 삼양동 지석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형식은 남방식 유형에 속하나, 남방식에 비해 지석의 대부분이 제대로 다듬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석의 숫자는 3~10매로 그 예가 다양하다. 제3형식은 상석 한쪽이 들리어 하부 매장부가 지상에 드러나 있고, 그 좌우와 들리지 않은 뒤쪽에 지석이 고인 형식이다. 들린 부분의 모양은 대체로 아치형을 취하고 있다. 제4형식은 지석을 이중으로 고인 형식이다. 비탈면을 이용하여 한쪽을 작은 할석으로 고인 형식이다. 제5형식은 비탈면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는 할석과 괴석을, 그리고 낮은 곳에는 판석을 고인 형식이다. 마지막 제6형식은 상석 밑은 완전하게 판석형 지석으로 에워싸 고인 형식으로 언뜻 보기에는 지상에 장방형 혹은 원형의 석실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 형식이다.

대체로 1, 2형식은 매장부의 위치가 지하에 있는 지하형이며, 3, 4형식은 축조된 지형과 축조방법으로 보아 반지상형일 가능성이 많으며, 마지막 5, 6형식은 지상형이 된다.

지석묘의 축조시기를 가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 묘제가 축조될 당시와 관련된 부장유물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반도 지석묘의 부장 유물로는 마제석검, 비파형 동검, 세형동검과 홍도, 무문토기 등이 출토한다. 이러한 유물은 그 연대가 대체로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까지 편년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시기적으로 앞선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다소 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의 대부분이 경질무문토기(곽지1식토기)가 공반하므로 제주 지석묘의 축조시기는 경질무문토기시기(탐라전기, A.D. 0~500)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 5·6형식의 지석묘에서 회색경질토기가 출토하므로 지상형 제주도식 지석묘가

보다 늦은 단계의 것으로 이해된다.

지석묘를 축조하기 위해서는 한 두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수백명이 필요하므로 지석묘 피장자는 적어도 마을 구성원 중 일정한 지위에 있는 신분을 가진 자로 보인다.

지석묘 축조집단의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흔적으로 제주시 용담동,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일대의 일부 지석묘 상석 상면에서 확인되는 원형 혹은 타원형의 작은 性穴(Cup Mark)이 적게는 3~4개에서 수십개까지 보이는데 이는 지석묘를 축조한 사람들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원시 신앙적 행위 또는 주술적 의미로 볼 수 있다. 123)

탐라 태동의 숨결을 간직한 고인들은 1700여년전 제주를 형성했던 선인들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발굴, 조사 작업과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경작지 정비작업이나 도로 정비 등으로 하나 둘씩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2) 동자석

돌이 많은 제주에는 돌하르방등 석상문화가 발달해 있다. 제주도 民墓 중에서 아이의 형태를 한 조그마한 석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를 일컫는 것이 동자석이다. 지역에 따라 동자석, 동자상, 地神, 무석, 子石 등으로 불리우는 데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124)

동자석은 제주도에 흔한 현무암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단순화된 것도 많이 볼 수 있다. 크기 또한 다양한데 96.0cm(덕수리 동자석)에서 부터 33.0cm(삼양동 동자석)까지 조사되고 있고 시기는 보편적으로 1700~1800년대의 것들이 많다. 동자석은 신체중 많은 비율을 얼굴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얼굴의 이목구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본다. 얼굴 모양도 눈이 가로선 一字이면 입도 一字 형식이며, 눈이 타원형이면 입도 타원형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또한 음각이면 음각, 양각이면 양각이나 반양각으로 처리하는 일관성

123) 제주도(1998), 전계서, p. 249.

124) 강창언(1990),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 -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 143.

도 보이고 있다. 이는 얼굴을 표현하는데 있어 성격, 마음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어 동자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¹²⁵⁾ 이처럼 동자석은 그 속에 나타난 선의 흐름, 천진무구한 표정, 등신(等身)의 비율 외에도 서민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얼굴을 표현하는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美的 작품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¹²⁶⁾

동자석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측면을 보면, 동자석 자체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형상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무덤가에 석상을 세우는 것은 한반도부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주로 특수한 계층이나 고위층에 한정되어 있다. 제주도에 있어 동자석은 남녀나 계급적 구분이 없는 서민적이라는 데서 큰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동자석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토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외적인 면에서 동자석은 제주도인들의 신앙적인 면에서 發端되어 만들어지고 조상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서 세워져 왔다고 본다. 형상을 통한 세부적인 면을 보면, 토속적·샤머니즘적·무속적·불교적·유교적인 면 등이 가미되어 있다고 본다.

둘째, 내적인 면에서 地神이라 하여 그 터에서의 신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일들은 묘를 옮길 때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주검을 옮겨도 동자석은 그냥 둔다. 이러한 사실은 동자석은 현존하는 무덤에서의 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현재하는 인간과의 관계이다. 즉 落胎를 요하는 경우나 몹쓸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하나의 방법으로 동자석의 어떠한 부분 일부를 잘라다 삶아 그 물을 먹으면 된다는 예이다.

넷째, 靈魂을 받드는 외적인 형상을 통한 영적인 면에서의 동자석이다. 꽃·술병·술잔이나 어떠한 물건 등은 주검이 영혼을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 점이 육지부의 장군석, 문인석 등의 석상이 주검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것과 다르다.

다섯째, 반드시 2基가 마주 보거나 묘를 향해서 서 있다는 것이다. 전자인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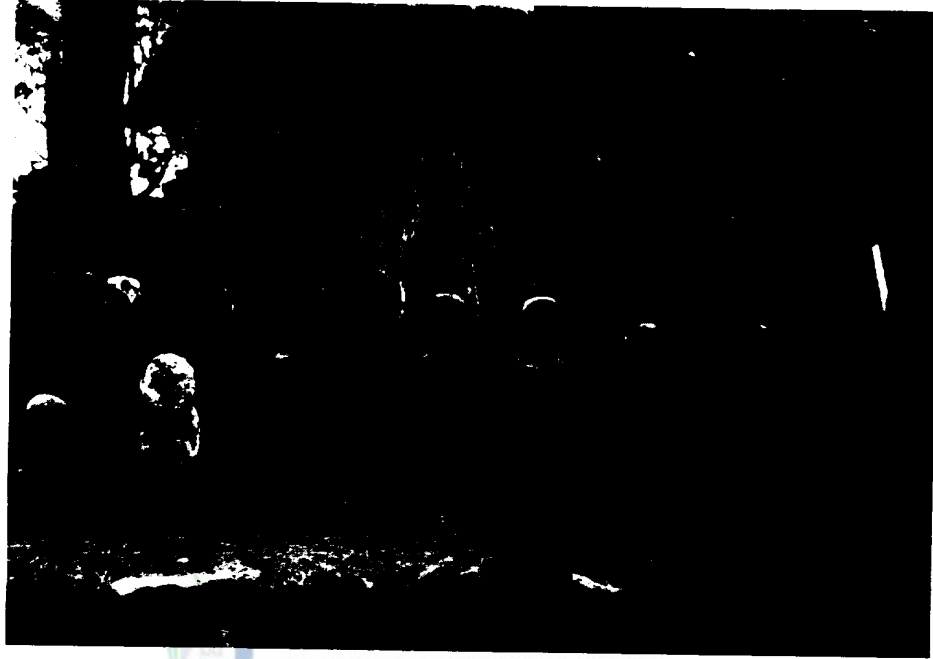
125) 강창언(1990), 전제논문, p. 172.

126) 제민일보, “사라져가는 제주문화유산을 찾아서 (1) 동자석”1997년 1월 1일.

우리는 본토나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지만 후자인 경우는 보기 드문 예이다, 즉, 주검의 영혼과 마주보고 있는 것은 서민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여섯째, 남녀의 像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남녀관계는 머리모양에서나 어떠한 기호(+, -)나 꽃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신으로 본다면 하늘과 땅의 신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림. 62> 동자석(제주시 목석원)



이상과 같은 예술적·신앙적 측면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동자석은 도난 되거나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 이문교(제주MBC 총무국장)도 1996년 10월 「회한의 동자석들」 전시회를 통해 동자석을 헐값에 팔아 넘기는 문화유산·세대를 고발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제주전역의 동자석에 대한 조사를 벌인 강창언氏(제주대 박물관)도 자신의 조사를 근거로 “지금까지 5백여기 이상이 도난 혹은 타지역으로 유출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내 몇몇 골동품 가게에서도 신고된 동자석에 한해 2기 한쌍당 25~3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지만 이를 다시 판매하는 가격은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동자석이 문화재로서 보호받지 못한 채 민속품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 숫자가 이직도 많고 일일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문화재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¹²⁷⁾

다른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파손되고 사라져 버린 이후에야 보존하고 관리하려고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리게 된다. 다른 문화재보다 아직 숫자가 많고 원형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더불어 문화재로 지정해서 도난, 유출, 훼손이 되는 것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 防邪塔

방사탑은 마을 어느 한 방위에 어떤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 지형이 비교적 虛하다면 그러한 허한 방위를 막아야 마을이 평안하게 된다는 속신에서 쌓아올린 탑이다.¹²⁸⁾ 이는 육지부의 솟대가 갖는 기능, 즉 마을의 안녕과 수호, 豐農을 위해 세운 것¹²⁹⁾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종철은 '솟대란 길고 곧은 나무기둥 또는 石柱위에 새모양의 조형물을 한 마리 또는 두 세 마리 올려 놓은 신간(神竿)으로 제주에서는 거오기·거액 등으로 불리워진다.'¹³⁰⁾고 보고 있다.

제주의 자연마을에 이러한 기능을 가진 돌탑들을 가리켜 담(탑:塔)·거옥·가마귀·하르방·격대·방사탑 등이라 부르고 있다. 돌탑들은 구멍이 많은 현무암을 이용하여 원뿔이나 사다리꼴 등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돌탑 위에는 자연적인 새 모양의 돌을 세우거나 긴 나무에 새 모양을 만들어 붙이는 것, 돌로써 사람형태를 만들어 세운 것이 있다.

돌탑은 제주도 자연마을의 人命·家畜·財産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지리적으로 虛·厄 등, 낫은 것이 온다는 곳과 바닷가 마을에서 身元不明의 송장이 자주 들어와서 불길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사람들이 직접 돌탑을 쌓아 놓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방사용 돌탑들은 제주 사람들의 집단적인 정신세

127) 제민일보, "사라져가는 제주문화유산을 찾아서 - (1) 동자석", 1997년 1월 1일.

128) 제주도(1998), 전계서, p. 410.

129) 주강현(1996),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 신문사, p. 164.

130) 이종철 外(1990), 「남녘의 벼수」, 김향문화재단, p. 40.

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¹³¹⁾

제주의 방사용 탑들은 주위에서 혼한 현무암을 이용해 쌓았는데 윗부분에는 새나 사람의 형상을 세워 놓았다. 방사용 탑 자체가 마을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탑의 축조도 마을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마을이란 공동체 속에서 인명·가축·재산을 신앙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기술·인력 등은 마을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 돌탑을 쌓기 전에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돌탑을 쌓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가정마다 1~2명씩을 정하고 불참시에는 그에 맞는 곡물이나 돈을 내야 한다.

돌탑이 세워진 위치는 마을에서 가장 나쁘다거나 약한 곳으로 생각되는 곳이다. 돌탑이 쌓아질 때는 방사용 물질들이 사용되었다. 땅의 나쁜 것을 막기 위해서 돌탑속에 돼지, 무쇠술 등을 묻었다. 하늘에서 오는 나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형상이 갖춰진 돌이나, 인공으로 만든 까마귀, 석상 등을 돌탑 위에 세웠다.

돌탑에 사용되는 돌이나 쌓는 일은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돌탑 위의 사람 모양의 석물이나 까마귀 모양의 나무새는 손재주 있는 마을 사람이 없으면 다른 마을의 석공·목공에게 주문하거나 모셔다가 만들어 세웠다. 돌탑을 한번 쌓으면 허물어지기 전에는 새로 쌓거나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허물어지거나 인공적으로 석물·목물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면 마을 사람들은 인력을 동원하여 돌탑을 쌓고 석물·목물은 전문인을 통해 다시 만들어 세운다. 돌탑이 막고 있다는 나쁜 것(厄)의 종류들은 허·지형·날불·들불·시체·빛 등이 있다.¹³²⁾

탑의 하단부는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바로 탑쌓기로 들어간다. 탑의 기초석 역할을 하는 첫돌이(탑의 하단부 첫단)를 놓는 데는 액운을 막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탑의 첫돌은 나이가 든 사람이나 식구가 없는 사람을 택하여 놓게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이 첫돌에 손을 같이 얹어 놓고 첫돌을 쌓는다. 이는 액운을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다. 구전에 의하면 탑의 하단부

131) 강창언(1995), “제주의 방사용 탑”, 「제주도사 연구 제4집」, p. 163.

132) 강창언(1995), 전계논문, pp. 171~172.

중앙에는 방사용으로 솔, 우금(=밥주걱), 돼지, 보습, 명에 따위를 묻는다.¹³³⁾ 솔을 묻는 이유는 솔은 아무리 뜨거운 불에도 끄덕도 하지 않으니 어떤 무서운 재앙도 잘 견디라는 뜻이고 우금을 묻는 것은 솔의 밥을 굶어모으듯 마을 안으로 재물을 굶어 담으라는 뜻이다.¹³⁴⁾

돼지는 잡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탐속의 돼지는 액을 먹거나 먹힘으로써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로 이해한다.

보습은 쇠의 강함을 통해 액기를 꺾는 의미를 둔다.

명에는 마을의 허한 곳을 강하게 하는 동시에 강한 힘을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한다.

방사탑의 쌓는 형식은 허튼층쌓기를 주로 하고 있으며 속은 잡석 채움을 하고 있다. 탑돌들은 크기나 형태에서 불규칙하지만 엇갈리며 늘려지는 맞물림 축조를 하고 있어 시각적인 것보다는 단단하다. 그래서 탑이 주는 인상은 세련되고, 강직하면서 편안하다. 전체적으로 자연스런 제주도의 울퉁불퉁한 풍경과 잘 어울리며 시골같은 멋을 준다.¹³⁵⁾

이러한 탑 외에도 防邪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거옥대', '까마귀'를 들 수 있다. 이것들 역시 마을 어귀에 세워짐으로써 그 마을 안으로 잡귀의 접근이나 침입을 막아주는 일종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지형상으로 보아 그 마을 어느 한쪽이 공허하다면 그쪽을 통하여 굶은 재액(災厄)이 날아든다고 믿고 있는데, 그쪽 공허한 공간에 거옥대와 까마귀를 세워 재액의 침입을 막는다. 그래야만 동네사람들이 安心立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풍수사상에서 비롯된 민속신앙이다.¹³⁶⁾

이러한 방사탑의 유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說이 없는데 김인호(문박·고대한일 관계사)는 북방 Shamanism에서 발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Altai 지방이나 시베리아 등의 원주민 촌락에 세우는 天柱, 地柱, World Tree라고 하는 것에서, 그리고 긴 장대 꼭대기에 앉아 있는 天鳥(Heaven-bird), 雷鳥(Thunder-bird), 大神柱(Totem Pole)등의 꼭대기에 앉혀 있는 새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¹³⁷⁾

133) 강창언(1995), 전계논문, p. 174.

134) 월간 문화 제주(1992), "제주인 안녕의 상징 방사탑", p. 20.

135) 강창언(1995), 전계논문, p. 174, 214.

136) 진성기(1990), 전계서, p. 21.

137) 김인호, "방사탑과 거옥대 ②", 월간관광제주사(1990. 3), 「월간 관광제주」, p. 72.
"방사탑과 거옥대 ⑥", 월간관광제주사(1990. 7), 「월간 관광제주」, p.108.

<표. 10> 문화재로 지정된 방사탑¹³⁸⁾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8호	방사탑	도일원	
- 1호	몰래물방사탑 1호	제주시 도두2동 690-1	
- 2호	몰래물방사탑 2호	제주시 도두2동 690-1	
- 3	골왓마을방사탑 1호	제주시 이호2동 1519-1	
- 4	골왓마을방사탑 2호	제주시 이호2동 1529-2	
- 5	골왓마을방사탑 3호	제주시 이호2동 1529-2	
- 6	골왓마을방사탑 4호	제주시 이호2동 1544	
- 7	골왓마을방사탑 5호	제주시 이호2동 1414-2	
- 8	용수마을방사탑 1호	북군 한경면 용수리 포구(새원)	
- 9	용수마을방사탑 2호	북군 한경면 용수리 포구(화성물)	
- 10	신흥리방사탑 1호	북군 조천읍 신흥리 521(큰개)	
- 11	신흥리방사탑 2호	북군 조천읍 신흥리 531-1(불덕)	
- 12	무릉리방사탑 1호	남군 대정읍 무릉1리 3094	
- 13	무릉리방사탑 2호	남군 대정읍 무릉1리 3099	
- 14	무릉리방사탑 3호	남군 대정읍 무릉1리 3126-2	
- 15	무릉리방사탑 4호	남군 대정읍 무릉1리 3126-1	
- 16	인성리방사탑 1호	남군 대정읍 인성리 497	
- 17	인성리방사탑 2호	남군 대정읍 인성리 4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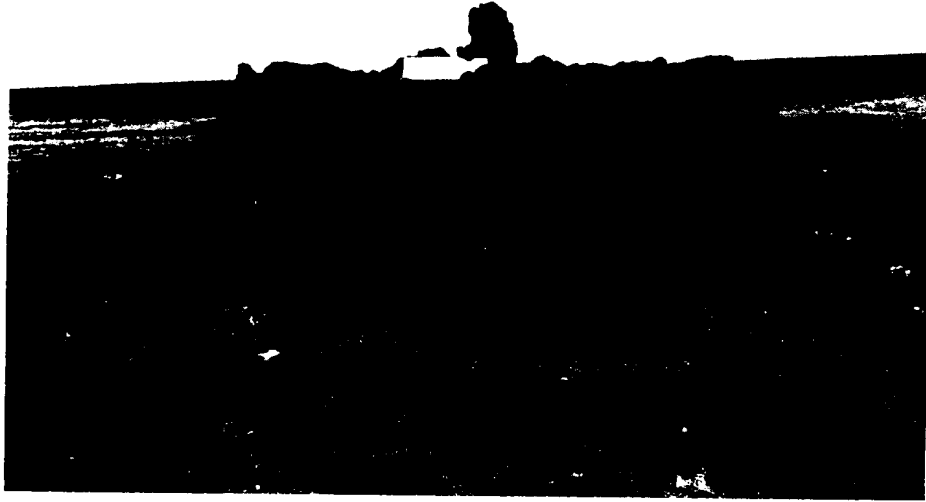
결국 제주의 방사용 탑은 직·간접적으로 손실과 재앙을 주는 厄을 막아 인명, 가축,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입명을 누리려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작업을 통한 조형물로서 제주도민들의 공동체적인 삶 자체를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 4·3 발생 50년만에 4·3으로 용이진 한을 풀고, 원혼들을 위무하는 상징조형물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¹³⁹⁾

도 일원에 있는 방사탑 중 17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그 현황은 <표. 10>과 같다.

138) 제주도(1998), 전거서, pp. 418~419.

139) 제주일보, "4·3 해원 방사탑 18일 제막식 평화의 섬 수호탑으로", 1998년 4월 17일.

<그림. 63> 방사탑(북제주군 신흥리 방사탑)



3. 돌하르방

돌하르방은 '돌할아버지'의 제주어로서 1971년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문화재 명칭으로 채택한 이래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다. 제주의 돌하르방은 육지부의 장승과 비슷한 기능을 갖는다. 장승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민간신앙의 한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마을·사찰·성문에 세워져 마을과 길, 성안을 수호하는 신으로 섬겨지는 木像, 石像의 일종이다. 그 형태는 나무기둥이나 돌기둥에 사람의 얼굴 모습 또는 鬼面을 상부에 그리거나 조각하고, 하부의 몸통에 天下大將軍, 地下女將軍, 五方位神將, 周將軍, 唐將軍 등의 글씨가 쓰여져 있다. 또한 몸통 하단에 현 위치로부터 근처 도시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장승도 있다. 이러한 장승은 흔히 마을 입구나 길가에 남녀 한 쌍으로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고, 솟대, 돌무더기, 神木, 서낭당, 立石 등과 함께 洞祭, 신앙의 대상신이 된다.¹⁴⁰⁾

돌로 만든 장승은 제주에서 돌하르방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칭으로

는 우석목(우성목), 무성목, 벽수머리, 용중석, 돌영감, 영감,, 수호석, 수문장, 두릉머리, 동자석, 돌부처, 미륵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¹⁴¹⁾ 돌을 깎아 만든 사람의 형태, 곧 石像은 비단 제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는 남태평양의 누쿠히바, 타히티, 피지, 이스터 등의 여러 섬에서 가까이는 한반도 육지부에 널리 분포하는 것들이다.¹⁴²⁾

명칭마다 사용되는 지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돌하르방은 ‘돌로 만든 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전도에 두루 통하는 명칭이지만 근년에 통칭이 되기 시작했다. 제주시에서 가장 통용되는 명칭으로는 우석목(우성목)을 들 수 있다. 보성리(옛 대정현)에서는 무석목 또는 무성목이라 불리고 성읍리(옛 정의현)에서는 벽수머리, 백하르방으로 일컬어진다. 한문을 쓰던 상류 사회나 한학자간에는 용중석(翁仲石)이라는 말도 쓰인다. 이것은 옛 중국의 진시황 시절에 院翁仲이라는 귀신도 잡을 만큼 유력한 장군이 있어서 어느 해 싸움에 큰 공을 세움으로써 적군이 얼씬도 못하게 댔다는 데서 그를 상징해서 ‘용중석’이라 하여 성문 밖에 수문장격으로 세웠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¹⁴³⁾

돌하르방의 계통은 보통 3가지 설이 있다. 첫째로 환태평양-동지나해로 이어지는 해양문화와 제주도의 돌하르방을 관련시켜 그 본꼴을 추구해 보려는 김병모(한양대학교, 고고학)의 「南方起源說」이 있다. 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해류를 따라 석상문화와의 전파를 추적해본 토르·하이어달의 이론¹⁴⁴⁾에 김병모가 돌하

140) 이종철 외(1990), 전계서, p. 224.

141) 周采赫,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 가지 문제점: 그 기능과 형태 및 계통 - 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오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사학회(1993), 「강원사학 제9집」, 도서출판 산책, p. 78.

142) 진성기(1996), 「제주도 전설」, 도서출판 백록, pp. 252~253.

143) 김인호, “돈통시 문화(30) - 돌하르방 부락 수호신 아니다 ①”, 월간 관광제주(1989년 8월), 월간 관광제주사, p. 136

진성기(1994), 전계서, p. 254, 255.

김두하(1990), 「벽수와 장승」, 집문당, pp. 895~897.

144) 이스터섬의 거대한 석상들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토르·하이어달은 다년간의 연구 끝에 이런 석상들이 중남미지역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북부페루, 중부페루, 페루-볼리비아 접경에서 발견되었고 남태평양에서는 이스터 섬, Pitcairn, The Marguesas, Raivavae 등의 작은 섬들에서 발견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런 분포로 미루어 이 석상문화가 중남미 지역에서 적도 이남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타고 남태평양제도로 전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하이어달은 실제로 남미대륙서안 Callao 항구에서 출발하여 천신만고 끝에 Reroia섬에 도착하는 뗏목船 Kon-Tiki 호의 성공사례를 들

르방을 연결시킨 것이므로 토르·하이얼설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로, 서귀포 하예동 본향당의 巫神인 木偶나 정주목神이 18세기 초에 한반도 육지에서 들어 온 돌장승과 접합되면서 돌하르방이 생겨났다고 추정해 보는 현용준을 비롯한 현지연구자들의 제주도자생설이 있다. 즉 서귀포시 하예동 본향당신이 나무로 만들어진 木偶임을 감안, 돌하르방도 나무로 만들어졌던 시기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돌하르방의 루트를 도내의 무속신앙과 결부시켜 지역적 자연발생물로 보는 시각이다.¹⁴⁵⁾

셋째로 한출로오와 박원길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주도와 동몽골 다리강가의 유적을 답사하면서 관계문헌을 검토해서 주채혁이 주장한 것으로 제주도 전통문화에 고려사의 전개로 수용될 수 밖에 없었던 몽골의 강력한 영향이 습화되어 돌하르방 나름의 독특한 개성이 창출되었다고 보는 한국몽골비사학회의 몽골 遺風說이다.¹⁴⁶⁾

이러한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 의견이 분분하고 논쟁중이어서 아직 정확한 정설이 없는 실정이다.

다음은 돌하르방의 건립 연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돌하르방의 건립의 사실을 기록한 고문헌은 많지 않다.

제주출신인 心齋 金錫翼(1885~1956)이 1918년에 간행한 「耽羅紀年」에 보면 “甲戌三十年清乾隆 十九年 牧使 金夢奎說 翁仲石於城門外”

라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담수계(淡水契) 편 「耽羅誌」 名勝古蹟 편에는

“翁仲石 濟州邑城 東西南三門 外에 在하였고 4087年 甲戌 英祖 30年에 牧使 金夢奎가 創建한 바인데 三門毀에 因하여 二座는 觀德亭前에 二座는 三姓祠 入口에 移置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위의 두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돌하르방’은 영조 30년(1754년)에 김몽규 목사가 만든 것이라는 점과, 성문이 헐림에 따라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는 사실이다.

고 있다.

김병모(1982), “한국 석상문화 小考”, 「한국학논집 제2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양대학교 출판원, pp. 8~9.

145) 김인호, “돛통시문화 (31) - 돌하르방은 육지 장승에서 전래되었다.②”, 월간 관광제주, 1989년 9월, 월간 관광제주사, p. 128.

146) 주채혁(1993), 전게서, p. 96.

물론 기록이 많지 않은 까닭에 이 때에 처음으로 돌하르방이 세워졌다는 데는 많은 의심이 든다. 이러한 뜻에서 돌하르방의 모습을 밝혀내는 데에 몇 가지 분석을 가해 본다면, 첫째로, 제주도에는 고려 충렬왕 8년(1282)에 몽고인이 목장을 위하여 점령한 후 쫓겨가기까지 97년간의 통치를 통하여 본도민과 몽고인과의 사이에는 풍속을 비롯하여 언어와 혼혈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 둘째로, 이와 비슷하거나 다른 유형의 인식상은 육지를 비롯한 남태평양상에 위치한 여러 도서 지방에도 분포되어 있다는 점, 셋째로, 조선조 태종때 대정에서는 벌써 이 돌하르방과 관계 깊은 성곽을 쌓고 縣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보더라도, 이 돌하르방은 1754년에 김몽규 목사가 창건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아무튼 이 돌하르방에 대한 인류사적이고 민속적인 여러 각도에서 공통된 법칙은 찾아낸다는 것은, 널리 문화인류학적 조명을 거치지 않으면 어려운 일로 보아진다.

그러나 이 돌하르방은 제주 선주민이 역사적인 시련과 자연과의 투쟁에서 적용하고 순응하면서 살아온 진취적인 인간상을 대변해 주고 있는 탐라 수호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¹⁴⁷⁾

돌하르방의 배치는 각읍 성문 밖이었다고 한다.¹⁴⁸⁾

「大東地志」(김정호 편저, 1864)의 제주(城池)에
 邑城 周五千四百八十九尺 東西南三門 南北水口二門……
 南門曰遠樓 東門曰濟衆樓 西門曰白虎樓 北水門曰拱辰樓

라고 있어서 濟州에는 東西南 三門과 南北의 水口門이 있어서 5문이었으나 南水口門은 門樓의 기술에 제외된 점으로 보아 이미 폐문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돌하르방은 동·서·남 3문과 북수구문 밖에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읍성의 3문 밖에는 좌우로 4기씩 마주보고 있어서 8기씩 있었고 북수구문 밖에는 4기만 있었다고 한다.

「輿地圖書」 補遺編에 수록된 「大靜郡古誌」에는 城郭 條에,
 縣城 石築周四千八百九十尺…… 有東西南三門……

147) 진성기(1990), 전계서, pp. 32~33.

148) 김두하(1990), 전계서, pp. 899~900.

이라고 있고, 同書 「旌義邑古誌」에는 城池 條에,

縣城 石築周圍二千九百八十六尺高十三尺 有東西南三門城中有二井……

이라고 있어서 이 두 縣城에 동·서·남 3문이 있었고 城門 좌우 2기가 대립하여 4기씩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상의 배치는 잔존 유물과 대체로 합치함을 보았다.

해방 이후에는 시가지 정리 등에 밀려서 위치의 이동이 빈번하여서 遺存 文化財로서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는데 제주읍성의 우석목의 이동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제주읍성의 우석목의 立地 이동상황¹⁴⁹⁾

원위치	일정 초기	일정 말기	현용준 보고 (1963년)	김영돈 보고 (1968년)	필자 조사 (1977년)	필자 재조사 (1987년)
東門밖 8기	원위치 8기	원위치 8기	원위치 8기	도청 2기 민속박물관 2기 제주대학 2기 서울민속박물관 2기	도청 2기 KBS방송국 2기 제주대학 2기 서울민속박물관 2기	시청 2기 KBS방송국 2기 제주대학 본관 앞 2기 서울민속박물관 2기
南門밖 8기	원위치 6기 三姓祠 2기	?	원위치 1기 三姓祠 4기 제주여고 앞 2기 (不明 1기)	원위치 1기 三姓祠 4기 제주여고 앞 2기 (不明 1기)	木石苑 1기 三姓祠 4기 공항 2기 (不明 1기)	木石苑 1기 三姓祠 4기 공항 2기 (不明 1기)
西門밖 8기? 南水口門 (不明)	원위치 6기? 觀德亭 2기	觀德亭 (不明? 2기)	觀德亭 6기 (不明? 2기)	觀德亭 6기 (不明? 2기)	觀德亭 6기 (不明? 2기)	觀德亭 4기 자연사 박물관 2기 (不明? 2기)
北水口門 4기	원위치 4기	三泉書堂 앞 4기	제주대학 2기 三泉書堂 앞 4기	제주대학 2기 (不明 2기)	제주대학 2기 (不明 2기)	제주대학 강당 앞 2기 (不明 2기)
합계 28기	28기		(不明 3) 25기	(不明 5) 23기	(不明 5) 23기	(不明 5) 23기

149) 상계서, p. 900.

돌하르방은 성문 앞에 서서 위엄성을 보이고 있는 그 주요 기능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守護神의 機能이다. 앞서 살펴본 건립연혁에서 인용한 「耽羅紀年」의 “……設翁仲石於城門外”라고 있어서 성문 밖에 세운 옹중석이라고 하였으니 성문 밖에서 성 안을 지키는 신상으로서, 辟邪 守門의 기능을 갖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성냥”을 걸쳐놓는 구멍이 조각되어 있는 예로 보아 守門神將 역할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진 병영성의 서문 밖 장승에 손이 조각되어 있는 것과 상통하는 발상으로서 수문상 기능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⁵⁰⁾

전국의 석상과 목상승을 조사한 朱明德에 따르면, 전라남북도의 것은 거의가 石像, 경남과 충남도의 것은 석상과 木長姓이 반반, 경기도는 목장승이 석상보다 많았다 하고, 세워진 위치는, 석상은 촌락입구·설터(寺址)가 대부분이고 강화도의 고려왕릉과 개성이 고려공민왕릉의 경우 왕릉 앞에 文臣石像으로 세워졌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石像이 守護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하다¹⁵¹⁾

이상으로 볼 때 제주도의 경우는 항상 성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돌하르방이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의 도읍지 입구에 쌍쌍이 마주하여서 있음으로써 도읍지내는 물론이요 관내 주민들의 안녕과 융성을 지켜주며 기원하는 수호신적 기능으로서 물지기 노릇, 守衛, 防禦의 기능을 지닌다든가 부님 앞에 세워진 동자석의 기능과 같다든가 하는 말들은 곧 수호신적 기능으로 요약된다.

둘째로 주술종교적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防邪塔의 기능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즉 逐邪의 기능을 지님으로써 난리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든가, 惡疾의 침범도 막을 수 있다든가, 애를 못 낳는 여인이 돌하르방의 코를 밤에 몰래 쪼아서 뺏아 먹으면 잉태할 수 있다든가 하는 전승이 전해짐으로써 유추해볼 수가 있다.

셋째, 돌하르방은 도읍지의 성문 앞에 세워짐으로써 도읍지의 위치를 분명히 알려 준다. 성 바깥 사람들은 성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는 일을 삼가도록 했었으

150) 상계서, p. 902.

151) 김인호, “돌하르방은 육지 장승에서 전래되었다.” ② 월간 관광제주사(1989년 9월), 월간 관광제주사, p. 135.

므로 位置標識과 더불어 禁標로서의 기능을 지녔음이 드러난다.¹⁵²⁾

이처럼 돌하르방의 주요 기능은 육지부의 장승의 기능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돌하르방은 원래 舊제주목 성내에 23기, 舊대정현 성내에 12기, 舊정의현 성내에 12기 등 총 47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현재의 분포 위치를 보면 아래 <표. 12>와 같다.



152) 제주도(1998), 전계서, p. 385.

<표. 12> 돌하르방의 위치 분류¹⁵³⁾

소재지	위치	크기(cm)		석상형태
		높이	둘레	
제주시 삼도2동 관덕정	관덕정 앞 좌	216	157	전모, 통방울눈에 주먹코, 원통형의 신체
	관덕정 앞 우	213	163	
	관덕정 뒷좌 좌	171	145	얼굴표현이 좀더 사실적.
	관덕정 뒷좌 우	146	145	
제주시 이도동 삼성혈	삼성혈 입구 좌	236	187	원통형 신체
	삼성혈 입구 우	218	197	원통형, 코 끝 좌측 훼손
	乾始門 앞 좌	176	162	원통형
	乾始門 앞 우	188	185	원통형
제주시 일도2동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입구 좌	240	170	통방울 눈, 코 우측 훼손, 일자형 입
	박물관 입구 우	244	168	두툼한 체격, 왼손 상부에 큰 훼손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시청현관입구 좌	204	182	코끝마모, 오른손은 가슴을 향함
	시청현관입구 우	175	180	좌측 돌하르방보다 작은 체격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정문 좌	204	182	뾰족한 전모, 이마에 물결형 주름, 둥근 얼굴, 제주읍성 동문 것을 옮김
	정문 우	225	216	긴 원통형 몸체, 제주읍성 동문 것을 옮긴 것.
	박물관 입구 좌	150	161	전모, 상단에 3단의 원조선이 둘러져 있다. 제주읍성 서문 것을 옮김
	박물관 입구 우	159	154	이마에 물결선, 제주읍성 남문 것을 옮김
제주시 아라동 목석원	목석원내	161	156	전모의 상부와 둘레의 훼손이 심함
제주시 연동 KBS방송국	방송국 현관 좌	233	220	얼굴이 다소 우향, 이마에 일자형 선
	방송국 현관 우	234	199	얼굴이 다소 우향, 이마에 물결선
제주시 용담동 제주공항	공항입구 좌	195	154	체격이 왜소, 이마에는 V자형 음각선
	공항입구 우	250	190	재질이 매우 거칠다. 코끝은 훼손된 상태

153) 국립민속박물관(1997), 전개서, pp. 594~596.

소재지	위치	크기(cm)		석상형태
		높이	둘레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남문터	남문 입구 좌	142	191	기석 없음. 사각주형
	남문 입구 우	145	200	기석 없음. 사각형
남군 대정읍 보성 리 보성초등학교	학교 입구 좌	123	153	사각형. 눈, 코, 입 음각
	학교 입구 우	105	153	사각형. 눈, 코, 입 선각
	교내	115	186	삼각형
남군 대정읍 보성 리 보성리사무소	입구 좌	135	173	몸체는 사각주형
	입구 우	120	153	몸체는 사각형
남군 대정읍 안성 리 추사기념관	입구 좌	123	170	몸체는 사각형
	입구 우	142	188	몸체는 원통형
남군 대정읍 보성 리	동문터	136	147	눈과 입은 선각, 코는 마모, 원 통형 몸체
	서문터	126	162	눈은 음각, 원통형 몸체, 오른 손은 위를 향함
남군 대정읍 보성 리 서문쪽	서문쪽	103	160	눈은 이중 동심원으로 양각, 원 통형 몸체
남군 표선면 성읍 리 성읍민속마을 서문터	서문입구 좌	170	159	전모의 채이 얇은 편, 사각형 몸체
	서문입구 우	172	160	눈은 양각, 몸체는 얇은 사각형 판석
	우측 아래	159	154	밑에서 위로 좁아지는 형태, 어 깨선 일치
	우측 윗쪽	131	144	눈꼬리가 올라감. 기석 없음
남군 표선면 성읍 리 성읍민속마을 동문터	성문 향해 앞 좌	122	157	왜소. 몸체는 사각석주형. 하체 매몰
	성문 향해 앞 우	132	146	다소 직사각형의 얼굴. 몸체는 사각석주형
	성문 향해 뒤 좌	124	162	등근 얼굴. 팔꿈치 이하 매몰. 사각석주형 몸체
	성문 향해 뒤 우	151	179	등근 얼굴 왼손은 매우 빈약. 몸체는 사각주형
남군 표선면 성읍 리 성읍민속마을 남문터	남문 향해 앞 좌	152	203	다소 넓은 얼굴. 사각형 몸체 얼굴에 비해 체격이 왜소. 사각 형 몸체
	남문 향해 앞 우	173	220	
	남문 향해 뒤 좌	159	185	넓은 이마. 직삼각형 코. 사각 형 몸체
	남문 향해 뒤 우	141	160	타원형 얼굴, 원통형에 가까운 몸체

※ 2기는 경북궁내 한국민속박물관에 위치

4. 미륵

인도에서부터 비롯된 미륵신앙은 불교가 들어온 초기부터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에 도입되었다.¹⁵⁴⁾ 불교적 색채에다 토속 신앙의 결합된 형태로 지금까지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불교는 보다 민간적인 토속신앙에 의지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옛부터 제주도 사람들은 “절 가듯이 당(堂)에 가고 당 가듯이 절에 간다.”라는 말이 있었다. 더욱이 조선조를 거치면서 오히려 제주도의 불교는 쇠락을 거듭하여 별반 승려가 없었으니, 민간신앙의 의존도가 강했다. 물론 조선왕조의 崇儒抑佛 정책으로 조선시대 전반이 排佛의 분위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양상이 제주도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나며, 그 이면에는 제주 민중들의 신앙 귀의체가 불교보다는 민간신앙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¹⁵⁵⁾

미륵이 출현하는 연기설화는 대개 미륵들이 바다에서 건져져서 물으로 울려진 것으로 채록되고 있다. 함덕, 신촌, 서김녕, 화북1동 등 바닷가에 면해 있는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¹⁵⁶⁾ 제주도민에 있어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언젠가는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죽음의 장소이다. 그러한 生과 死를 동시에 제공하는 바닷가에서 사람들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륵의 출현을 갈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륵이 낚시나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그들 속으로 다가 오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어느 마을이고 마을을 구심점으로 하여 공동체 신앙의 거점인 본향당(本郷堂)이 존재하며 대대손손 마을 역사를 들려주는 본풀이가 전해진다. ‘본향’이란 마을의 수호신을 말하며, ‘본’은 근본·본원·내력을, ‘풀이’는 설명을 의미해, 결국 ‘본풀이’란 당신(堂神)의 근본을 풀이하고 설명한 살아있는 신화로서 마을 공동체의 생명을 상징한다. 이러한 본향당의 본풀이에 마을미륵이 등장한다. 이처럼 제주도민의 생활과 불교신앙과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

154)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1989), 「동아 원색세계대백과 사전, 제12권」, 동아출판사, p. 562.

155) 주강현(1995), 「마을로 간 미륵 1」, 대원정사, pp. 17~18.

156) 국립민속박물관(1997), 「경남지방 장승·솟대 신앙 - 附 : 제주의 석상 -」, 신유문화사, pp. 524~582.

다.¹⁵⁷⁾

이러한 미륵신앙의 기능·목적은 豐漁, 得男, 병 치유, 理財, 집안의 평안 등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바라는 소박한 소망들을 두루 담고 있다.

이러한 미륵 중에 조형성이나 담긴 의미가 뛰어나고 의미심장한 것이 건입동에 있는 동자복신미륵과 용담동 용화사에 있는 서자복신미륵이 그것이다. 이 미륵불의 주된 기능은 다른 미륵과 달리 읍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데 있었다. 예전의 제주 읍성의 작은 중심부를 에워싼 양쪽에 동문과 서문을 두었는데 이 동문과 서문 밖에 미륵이 각각 1기씩 전해지고 있다. 이 두 미륵은 제주의 산지향을 내려다보는 좌우의 台地 위에 서서 육지에서 선편으로 침입하는 邪鬼·疫神(痘瘡 마마)을 퇴치하고자 하였다.¹⁵⁸⁾

<표. 13> 미륵의 분류¹⁵⁹⁾

소재지	크기(cm)		석상형태	기능·목적	비고
	높이	둘레			
제주시 건입동	360	335	사각형, 전면이 서쪽향함	理財, 得男, 除災, 치유	현존, 도민속자료 1호
제주시이동2동동광양 '외새미(牛女泉)'			합장자세 동자석형	得男, 水神	소실
제주시 용담1동 龍華寺內	336	315	양손을 가슴에 모음	祈子, 마을 수호, 질병 방지	현존
제주시 화북1동	82	81	장고형, 인체 표현장식 없음	풍어, 가정 평안	현존
제주시 회천동 화천사	73~88		삼각, 원통, 5각뿔 형태 등	가정평안, 자식건강	5기, 현존
북군 구좌읍 서김녕리	105	222		理財, 豐漁, 祈子	현존
북군 조천읍 신촌리				豐漁	소실
북군 구좌읍 함덕리				祈子, 豐漁, 마을 평안	현존, 감실 내에 매장

두 미륵을 두고 性區別을 하기도 한다. 동미륵을 여성으로 서미륵을 남성으로 보는 견해¹⁶⁰⁾가 그것인데, 특히 서미륵 옆에 있는 75cm의 童子佛(불자·陽石)이

157) 주강현(1995), 전계서, p. 19, 26, 27.

158) 김두하(1990), 전계서, p. 919.

주강현(1995), 전계서, p. 58.

159) 국립민속박물관(1997), 전계서, pp 594~596.

160) 金斗河(1990), 전계서, p. 918.

赤松智誠·秋葉隆, 「朝鮮巫俗の 研究(下圈)」, p. 94, 132. 제주의 문화재(1998) 전계

세워져있는데 이를 男根石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得男을 기원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뱃길의 무사안녕, 풍어, 득남 등의 기원대상이 되기도 하였다.¹⁶¹⁾
현대 알려지고 있는 미륵들에 대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서, p. 381. 재인용.
161) 열린 제주시정, “제주시의 명물 9. 동자복신미륵, 서자복신미륵”, 1996년 12월 24일.

VI.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돌

1. 비석거리

비석(碑石)은 고인의 사적을 칭송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문장을 새겨 넣은 돌을 의미한다.¹⁶²⁾ 제주도내에는 역사나 설촌 연대가 오랜 마을마다 마을 중심지나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는 비석거리가 있었다. 이는 마을과 관련된 인물이나 공동의 치적을 기념하는 비석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화북과 조천은 제주성과 가까운 곳으로 교통수단을 해로에 의존할 당시 목사나 판관 등 많은 관리가 화북, 조천 포구를 이용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치적과 석별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비석을 세웠는데 이 거리를 통칭하여 비석거리라 한다. 비는 화북에 13기, 조천에 7기가 있다.¹⁶³⁾

제주도 기념물 제30호(화북비석거리)와 31호(조천비석거리)는 주로 조선 후기 이후에 건립되었다. 선정을 베풀었던 수령들이 갈려간 뒤에 고을 주민들이 그들을 생각하여 세웠던 비석들을 한곳에 모았다고 하는데¹⁶⁴⁾ 과연 수령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목민관 구실을 하였는지, 고을민들이 자발적인 심정으로 이들 비석을 세워주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앙정부에서 보기에 제주는 풍속 자체부터 너무나 이질적인 곳이었기에 끊임 없는 동화정책을 써야 할 판이었고, 그 과정에서 토착민과의 보이지 않는 대립항쟁이 빈번하였던 곳이었다. 조선후기로 오면서 중앙집권제를 강화하였고 그 와중에 토착세력의 약화를 꾀하였으며, 수령권이 제주를 완전히 지배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었다. 화북비석거리의 경우 대개 수령권이 강화되었던 이 시기에

162)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1989),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15권」, 동아출판사, p. 352.

163) 제주도 교육청(1996), 전계서, p. 981.

164) 고창석·강창언(1909), “화북동 유적의 사적 고찰”, 「탐라문화 제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p. 222.

건립되었던 것들이다. 물론 개중에는 선정을 베풀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민심을 도모하여 정치를 옹계 편 사람도 있겠지만 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역사 유물인 선정비를 곱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不忘碑', '善政碑', '去思碑' 등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비 중에는 한 때 크게 유행되어 지탄받는 탐관까지 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이는 제주를 떠나는 관리들이 자신의 공적을 미화해서 과시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때문에 조선시대 말에 더욱 성행했다.¹⁶⁵⁾

<그림. 64> 조천 비석거리



제주의 민속놀이 중에 비석치기라는 것이 전해진다. 이것은 아이들이 비석(비석모양의 돌)을 가지고서 상대의 비석을 맞히는 놀이인데 이를 통하여 이들 선정비에 대한 민중의 공격심을 우회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¹⁶⁶⁾

지금은 이러한 비석 옆에다 마을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나 마을에 회사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대식 비석을 함께 세운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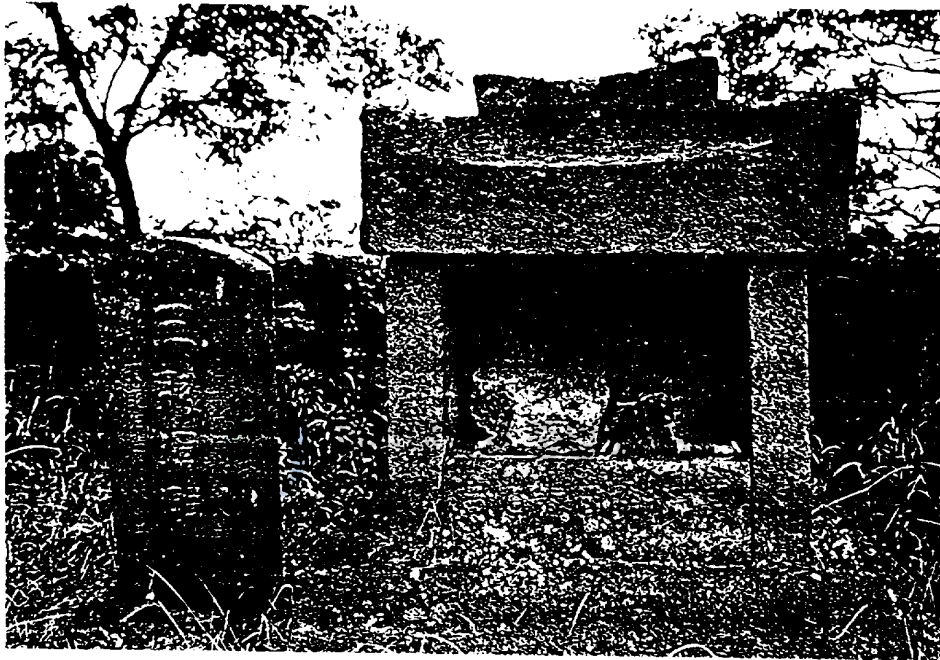
165) 제주도(1998), 전계서, pp. 337~339.

166) 주장현(1995), 전계서, p. 50.

2. 三射石

지방 기념물 34호로 지정되어 있는 삼사석은 탐라국 개벽신화에 관련된 문화 유적이다. 三乙那가 碧浪國 三公主를 맞이하여 나이 차례로 혼인하고 農牧生活로 정착하기 위하여 활을 쏘아 一徒・二徒・三徒里를 차례로 차지하여 살았다는 것이 개벽신화의 줄거리다.¹⁶⁷⁾ 이때 활을 쏘아 거처를 정할 때, 그 화살이 꽂혔던 돌을 말하며 지금도 살(矢) 맞은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여 ‘矢射石’, ‘살쏠디왓’이라 한다.

<그림. 65> 삼사석



이것을 영조 8년(1735년)에 김정 목사가 삼사석비를 세우고 순조 13년(1813년)에 지방사람 양종창이 화살 맞은 돌을 수습하여 石室을 만들어 보관했다고 한다. 지금의 석실은 1870년(고종 7년)에 중건된 것이다. 석실 높이는 149cm,, 앞너비 101cm, 옆너비 67cm이다.¹⁶⁸⁾

167) 제주도(1998), 전계서, p. 30.

168) 제주도교육연구원(1996), 전계서, p. 30.

3. 등돌

육지부에서 등돌과 유사한 것으로 부락 청년들이 힘을 겨루기 위해서 들어올리는 돌을 말한다. 이 등돌 들기를 통하여 과거 마을 장정들의 힘겨루기나 품삯 결정, 또는 청년들이 성년이 됨을 인정하는 등의 일종의 의식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등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개 한 부락의 어귀에 놓아둔다. 보통 원형 또는 타원형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농한기에 청년들이 등돌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되면, 서로간에 이 돌을 들어올리면서 힘 자랑을 하게 된다. 돌을 들어올리는 방법을 보면¹⁶⁹⁾, ① 두 손으로만 잡아 들어올리기 ② 가슴에 붙여 들기 ③ 배에 붙여 들기 ④ 들고 허리를 펴기 ⑤ 들어서 일어서기 ⑥ 땅에서 조금 걷기 ⑦ 돌을 들고 몇 걸음 걷기 등의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등돌을 들고 가슴과 허리를 완전히 편 채 두 다리를 꼰 채 디디는 방식을 제일로 친다.

종종 다른 마을 청년이 와서 그 마을의 등돌을 들어올리지 못하면 그 마을 청년의 힘을 높이 평가하고, 그 마을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가볍게 들어올리는 경우에는 그 마을 청년들뿐만 아니라 온 마을 자체를 비웃고 나무라면서 심지어 그 등돌을 멀리 던져버림으로써 그 마을 청년들이 제자리로 가져오지 못하게 하여 창피를 톡톡히 주기도 하였다. 다른 마을 청년들은 의도적으로 그 마을 등돌 위에 앉아 그 마을 청년과 그 마을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을 청년들과 여러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나와 대소동을 벌인다. 마을 청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마을 청년이 돌을 들어올리면 마을 전체가 무안을 당하고 창피해 하지만, 만일 들어올리지 못하면 못매를 얻어맞은 후 잘 못을 빌고 술을 사는 등의 사과를 한 후에야 겨우 빠져나가곤 한다. 물론 아무 것도 모른 채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을 어귀의 등돌에 앉아 쉬었다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는 날에는 위와 같은 곤욕을 치렀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 등돌은 마을 청년들의 몸을 단련시키고, 청년들의 단결과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구실을 하기도 하고, 마을간의 건전한 경쟁

169) 제주도 교육청(1996), 전계서, pp. 455~456

을 통하여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는 구실을 하기도 하였으며 부락과 부락 사이의 힘을 과시하는 저울대의 역할을 해 온 민속유물이다.

<그림. 66> 등돌



VII. 보존과 앞으로의 이용 방안

한 민족이 環境營力에 대한 도전과 응전을 통하여 생활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창조물일체를 문화재라 할 것이다. 이 문화재는 우리를 우리의 조상들과 이어주는 끊을 수 없는 고리로서 현존한다.¹⁷⁰⁾ 과거는 현재의 존재를 가능케 했고 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준과 지혜를 제시해 준다. 따라서 과거의 산물인 문화재는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이 內在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과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바탕으로 삼을 수 있다.

문화유산은 그 역사성 때문에 일단 인멸되고 나면 재생이란 있을 수 없다. 한번 없어진 것은 그대로 다시 복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 만들어진 물건에 불과할 뿐, 전통 문화의 유산으로 가치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조상들의 숨은 얼을 되찾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상들의 숨은 얼이나 정신이 없는 복구나 재건은 동식물의 박제표본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돌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보존 방안



첫째, 돌문화와 관련된 유산의 관리는 死後藥方文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주의 경우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기보다는 훼손되거나 소실된 경우에 복원하고 수리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각종 성들, 동자석, 연자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돌이 주변에 많이 깔려 있어서 그런지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주위에 가장 흔한 돌담만 하더라도 鷄田吾郎氏(1935년)에 의하면 佛國의 「브르타뉴」 해안의 돌담을 연상하게 하는 美를 간직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제주인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¹⁷¹⁾과 같이 오늘날도 이에 대

170) 吳南三, “지정문화재의 관광자원론 고찰 - 제주도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 203.

171) 石宙明(1968), 「濟州島 隨筆」, 寶晉齋, p. 118.

한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처럼 주변에 널려 있는 문화유적들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고증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파손 사례는 없는지 장기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고증에 의한 수리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철저한 정기점검을 통해 파손·손실의 예방과 수리방법 등이 사전에 강구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복원에 있어서도 고증을 거쳐 안내판, 형태,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관성 있는 문화재 관리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道·市·郡에 편중된 문화재 관리업무를 邑·面 단위로까지 대폭 이양하여 문화재기구를 보강하고 전문적인 관리 인원이 충원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충분한 기간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읍성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다.

셋째로 반드시 돌과 관련된 문화만이 아니지만, 문화유적지 주변의 자연경관 유지와 보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문화유산이 있는 일정지역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출입이 통제되어야 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관람객도 자제와 주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연경관지역이나 역사유적지는 어떠한 편의시설이나 위락시설로 잠식되어서는 안된다. 유적지의 경관을 해치고 먹거리 장소와 돈벌이 수단을 위한 시설물들은 철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¹⁷²⁾

넷째로 도외로 밀반출되는 각종 문화재에 대한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 동자석이나 각종 石具 등이 상당수 반출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를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이러한 문화재는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육지부에서도 장승이 도둑맞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어느 책자에는 공개적으로 잃어버린 장승에 대해 지명수배를 하고 있다.

“공유보다는 개인소유가 앞서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앞장서고, 정신보다는 물질이 승한 시대에 진정한 문화유산을 이어 나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아닐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불멸의 진리를 우리 시대는 망각하고 말았다.…… 이 글에 덧붙여 나는 잃어버린 장승을 전국에

172) 제민일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1997년 1월 1일.

‘지명수배’ 하고자 한다. 주위에서 비슷한 장승이 확인되면 즉각 연락을 기다린다. 우리들 공동체의 희망이 되 돌아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잃어버린 장승을 되 찾아야만 하지 않을까.....”¹⁷³⁾

마지막으로 도민 모두가 잊혀져 가고 있는 각종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다. 특히 돌은 제주인에게 있어 어떠한 것보다도 밀접되어 있었다. 생활 용구, 신앙의 대상, 외적 방어, 울타리 등등 생활에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조상들의 삶의 지혜,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단순히 예전의 향기를 되돌이키는 것보다 이러한 정신을 지키려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그러한 것들을 간직한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2. 활용방안

최근들어 우리 사회는 활발한 국토개발과 산업화에서의 이행과정에서 문화변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민족적인 전통문화의 단절은 물론 향토의 전통문화마저 점차 멸실의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남아있는 문화의 原形마저 原色이 퇴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경제발전이나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가 「문화의 발전」이라는 보다 고양된 문화가치에 의해 통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¹⁷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기존에 존재하는 돌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향토교육자료로서의 이용방안이다. 향토교육은 학습자 주변에서 직접 찾아보고 느낄 수 있는 향토의 친숙한 자료를 이용하려는 교육 방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흥미와 이해에 있어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역 사회와 국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애착심을 보다 강화시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방화, 열린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교사나 학생들에게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문화학습, 역사학습의 길잡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유익한 자료가 될

173) 주장현(1997),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2」, 한겨레신문사, pp. 230~231.

174) 제주역사연구회(1993), 「돌과 바람의 역사」, (주)나라출판, pp. 26~27.

것이다.

둘째,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이다.

관광자원은 그 고유한 매력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약하고 손상받기 쉽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그 개발은 합목적적일 때에만 자원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잠재적 관광성만으로는 관광가치를 갖지 못한다. 관광객과 연계될 때 비로소 관광객에 의해 평가받는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⁷⁵⁾ 관광객들에게 제주고유의 문화를 알릴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복구, 보존의 경제적 실리도 취할 수 있다.

현재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것은 주로 토산품과 관광코스에 한정되어 있다. 토산품도 돌하르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토산품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도정기구를 축소한 모형이라든지, 동자석 등도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관광코스의 경우도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원담을 이용한 어로 작업을 복원해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원담을 쌓는 일에서부터 어로 행위까지 전과정이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도정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단지 전시용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제주산 메밀이나, 보리 등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관광객이 직접 도정해서 사갈 수 있는 방법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성곽, 연대, 봉수대 등 방어유적 등만을 테마로 해서 답사코스로 넣는 방법도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이다.

각종 울타리를 이용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돌담을 쌓는 방법이다. 제주의 특색과 향토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돌담의 풍경이 아닌가 싶다. 돌담의 과학성·유용성은 현재에 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돌담들을 마냥 없애버리지 말고 이를 재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제주도의 풍토와 기후에서 현대화된 벽으로서 콘크리트벽에 의한 영역구분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 민가의 구조와 재료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175) 吳南三(1987), 전계논문, p. 227.

성능을 무시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전통 민가의 돌담이 가지고 있는 방풍 및 미적 감각 등을 반영한 벽구조나 담의 구조를 개발하면 바람이 많고 습기가 많은 지역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¹⁷⁶⁾

정류장이나 공공 건물에 있어서 제주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도 가끔 정류장 지붕에 송이를 이용하거나 외벽에 현무암을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림. 67> 제주돌을 이용한 정류장



제주도 전통민가의 하단에 사용된 돌은 일반적인 돌과는 달리 다공성 기포를 함유하고 있다.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제주산 건축자재(돌)의 열전도율($0.399\text{Kcal/m}\cdot\text{hr}\cdot^{\circ}\text{C}\sim 0.580\text{Kcal/m}\cdot\text{hr}\cdot^{\circ}\text{C}$)은 현대 건축자재인 콘크리트(약 $1.2\text{Kcal/m}\cdot\text{hr}\cdot^{\circ}\text{C}$)나 벽돌($1.1\text{Kcal/m}\cdot\text{hr}\cdot^{\circ}\text{C}$) 보다 작으므로 상대적으로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¹⁷⁷⁾ 따라서 건축물의 외벽 마감에 현대 건축 자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 돌을 재료로 이용하는 것이 제주도의 향토성 보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기후에 맞게 디자인하는 적합한 방법이다. 이것은 제주의 풍토색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관광자원과도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176)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1992),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제주 건축」 제2집, 제주도 건축학회, 正文社, p. 185.

177)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1992), 상계논문, p. 185.

있어서는 자연과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주변 경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하고, 또한 채취하고 난 지역에 대한 이용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돌(石)만을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돌 박물관을 건립해서 체계적인 보존 및 전시도 필요하겠다. 현재 있는 박물관, 관광지의 돌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증과 실사를 거쳐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는 방법도 있겠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향토문화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지판을 제주돌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북제주군이 앞으로 새로 만들거나 교체되는 경고판 및 안내판을 모두 제주산 돌로 만들어 설치키로 했는데 이는 반영구성·예산 절약, 문화재 및 관광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잇점을 제시하고 있다.¹⁷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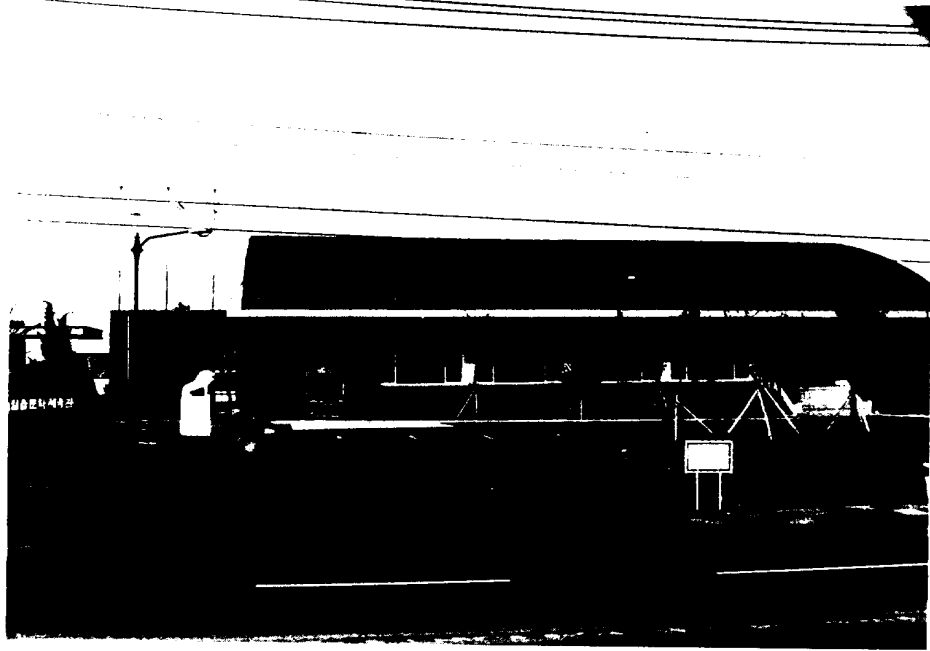
송이와 제주돌을 이용한 정류장, 탐동 해변 공연장 윗부분의 방사탑 모형, 애월읍 문화체육관의 외벽과 지붕 등도 일생활에 이용한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림. 68> 탐동 해변공연장 윗부분



178) 한라일보, “북군 표지판 제주돌로 탈바꿈”, 1998년 3월 6일.

<그림. 69> 애월읍 문화체육관 전경



마지막으로 돌을 이용한 조경을 들 수 있다. 산굼부리 입구, 목석원, 목장지대 등에서 볼 수 있는 방사탑 형태들은 그것 자체로 '제주'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들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예들을 제시해본 것 뿐이다. 제주에 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은 한정되어 있다. 결국 제주돌을 이용하여 이 고장이 지니는 소재를 꾸준히 구상화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돌을 아끼고 값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¹⁷⁹⁾

179) 서경림(1986), “제주돌의 활용방안”, 『사회발전연구』 제2집,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p. 290.

VIII. 결론과 제언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한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石多에와 風多의 섬에서 태어난 제주사람들은 이러한 여건을 이용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람과 맞서 이것을 극복하면서 돌을 생활의 도구로 삼아 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제주의 문화는 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¹⁸⁰⁾

앞에서 본 것처럼 제주도에는 대부분의 농기구, 민구류, 탑, 像, 울타리 등이 주로 돌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제주의 기후 특색인 多雨와 多風에 쉽게 견딜 수 있고 또한 돌이 주위에 산재해 있어 구하기가 쉬울 뿐 아니라 그 실용성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라 본다. 비록 쉽게 옮겨다니거나 섬세하지는 못했어도 돌은 여러 용도로 이용되었다. 각종 생활기구, 신앙물 제작의 재료가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제주도는 고대로부터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여 발전시켜 왔으며 의식주의 생활모습은 척박하고 거친 땅과 풍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특히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三多의 하나인 石多가 표시하는 것과 같이 전도는 돌로 덮여 있는데 가옥의 벽이나 주택주변의 담장은 물론이고 묘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돌담으로 쌓여 있다. 이밖에 생활에 필요한 농기구나 민구 등의 주재료 역시 돌이 되고 있다. 제주의 문화가 섬세하지 못하고 투박하며 소박한 것은 이들의 주재료가 되는 현무암의 특성인 것으로 보여진다. 연자매를 비롯한 석기류와 草家의 독특한 모습은 風多, 石多로 일컬어지는 제주의 풍토적 악조건을 지혜롭게 이겨낸 문화소산으로 우리의 선인들은 이 돌을 이용하여 밭을 에워 쌓음으로써 바람과 비로 인한 토양의 유실을 막았고 방목된 우마의 침입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막았다. 본론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 문화를 생산·생활용구 제재(題材)로서의 돌, 방어시설로서의 돌, 신앙 대상 상징으로서의 돌,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접근과 아울러 보존 및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180) 상계논문 p. 270.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처럼 제주도민이 돌을 생활화하는 것은 風多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도 이러한 돌은 밭의 경계선이나, 기타 건축물, 향토교육자료, 그리고 관광상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의 활용가치가 무한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파괴되고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더불어 잊혀져 가는 제주의 전통문화의 보존방법 및 계승에 더욱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국립 민속 박물관(1997), 「경남지방 장승·숫대신앙 - 附 :제주의 석상 - 」
- 권혁재(1994), 「지형학」, 법문사
- 김광식 外(1976), 「한국의 기후」, 一志社.
- 김광언(1988), 「韓國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 金斗河(1990), 「벽수와 장승」, 집문당.
- 김봉옥(1990),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 金尙憲(17세기초), 「南槎錄」, 김희동 譯(1992), 永嘉文化社.
- 남제주군(1996),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남제주군.
- _____, 「우리고장의 전래민요」, 남제주군.
- 마수다 이치지(樸田一二, 1976), 「제주의 지리적 연구 -1930년대의 지리·인구·산업·出稼 狀況 등-」, 번역·출판 제주시 우당 도서관(1995).
- 석주명(1968), 「제주도수필」, 寶棼齋
- 송성대(1994), 「文化地理學講義 -環境과 文化-」, 법문사.
- _____(1996), 「제주의 海民 精神 -精神文化의 地理學的 了解-」, 도서출판 제주문화.
- 오성찬(1990), 「제주의 마을 시리즈 ⑥ 애월리」, 도서출판 반석
- _____, 「제주의 마을 시리즈 ⑦ 봉개리」, 도서출판 반석
- _____, 「제주의 마을 시리즈 ⑩ 한림리」, 도서출판 반석
- 이종철 外(1990), 「남녘의 벽수」, 김향문화재단.
- 제주도(1982), 「濟州道誌 上」, 제주도.
- _____(1982), 「제주의 문화재」, 제주도.
- _____(1987), 「제주도 민속자료」, 제주도.
- _____(1993), 「제주도지 1, 2권」, 제주도.
- _____(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 제주도.
- 제주도 교육 연구원(1996), 「향토사교육자료」,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도 교육위원회(1984), 「三無의 얼」, 제주도교육청.
 제주도 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 교육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8), 「제주도의 농기구」,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제주역사연구회(1993), 「돌과 바람의 역사」, (주)나라출판.
 좌혜경(1995), 「제주섬이 노래」, 국학자료원.
 주장현(1995), 「마을로 간 미륵1」, 대원정사.
 _____(1996),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 신문사.
 _____(1997),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2」, 한겨레 신문사.
 진성기(1979), 「濟州民俗의 멋 1」, 열화당.
 _____(1990), 「濟州民俗의 멋 2」, 열화당.
 _____(1996), 「제주도 전설」, 도서출판 백록.
 최영주(1997), 「돌의 나라, 돌이야기」, 도서출판 맑은 소리.

<논 문>

강창언(1990),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 탐라문화 제1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_____(1995), “제주도의 방사용 탑” 「제주도사 연구」 제4집
 고평민(1995), “원(개)” 「제3기 박물관 대학시민강좌」, 제주대학교박물관.
 고창석(1989), “조선시대의 제주도 사회 봉수(烽燧)제도”, 「월간 관광제주」, 월간 관광제주사.
 고창석, 강창언(1988), “화북동 유적의 사적 고찰”, 「탐라문화」 제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김광언(1995), “제주도의 민구 -비교 민구학적 측면에서-” 「제3기 박물관 대학시민강좌」, 제주대학교박물관.
 金秉模(1982), “한국 石像文化小考” 「한국학 논집」 제2집, 한양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김승태(1982), “제주도의 연자매와 그 민요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돈(1968), “石像, 石具”, 「무형문화재보고서」 제50호, 문화재관리국.
- 김형욱(1981), “돌? 돌을 보며 생각하다”, 「제대학보」 제22집, 제주대학교.
- 서경림(1986), “濟州돌의 活用方案” 「社會發展研究」, 제2호, 제주대학교 지역
사회발전연구소.
- 신석하(1995), “제주의 민가”, 「제3기 박물관 대학시민 강좌」, 제주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1992),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제주건축」 제2집, 제주도건축사회, 正文社.
- 오남삼(1987), “지정문화재의 관광자원화 고찰”,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 이청규(1985), “제주도의 지석묘 연구”, 탐라문화 제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 정광중, 강만익(1997),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 -종달·일
과·구염 염전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주채혁(1993),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 그 기능과 형태 및
계통 - 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오와 관련하여”, 「강원사학」 제9
집. 강원대학교 사학회.



<기타 문헌>

- 동아일보, “제주 물소금 만들던 곳 찾았다.”, 1987년 8월 6일.
- 동아출판사(1989), “돌”,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9권)」.
- _____, “미륵”,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12권)」.
- _____, “소금”,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17권)」.
- 열린제주시정, “제주시의 명물-⑨ 동자복 신미륵, 서자복 신미륵”, 1996년 12월
24일.
- 월간 관광제주, “제주토박이들이 삶의 뿌리인 三多와 三無”, 제3호, 1984년 12
월
- _____, “돌통시문화(30) -돌하르방 부락 수호신 아니다 ①”, 1989년 8

월.

_____ , “돈통시문화(30) -돌하르방은 육지장승에서 전래되었다 ②”,
1989년 8월.

_____ , “방사탑과 거옥대 ①”, 1990년 2월.

_____ , “방사탑과 거옥대 ②”, 1990년 3월.

_____ , “방사탑과 거옥대 ⑥”, 1990년 7월

월간 문화 제주(1992), “마을어귀 장식품으로 전락한 祖上의 지혜”

_____ , “제주인 안녕의 상징 방사탑”

제대신문, “향토문화 탐방, 제주의 섬 -① 연재를 시작하며”, 1995년 8월 29일.

_____ -② 제주읍성”, 1995년 10월 3일.

_____ -③ 정의읍성”, 1995년 11월 14일.

_____ -④ 대정현성”, 1996년 3월 7일.

_____ -⑤ 조천진성”, 1996년 3월 27일.

_____ -⑥ 화북진성”, 1996년 4월 3일.

_____ -⑦ 애월진성”, 1996년 4월 10일

_____ -⑧ 별방진성”, 1996년 5월 8일.

_____ -⑨ 서귀진성”, 1996년 5월 5일.

_____ -⑩ 명월진성”, 1996년 6월 12일.

_____ -⑪ 차귀진성”, 1996년 8월 21일.

_____ -⑫ 모슬진성”, 1996년 9월 2일.

_____ -⑬ 화북동 환해장성”, 1996년 9월 16일.

_____ -⑭ 고내리 환해장성”, 1996년 11월 4일.

제대신보, “제주문화의 재조명 : 삼무정신을 중심으로”, 1984년 9월 15일.

제민일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1997년 1월 1일.

_____ , “사라져가는 제주문화유산을 찾아서(동자석)”, 1997년 1월 1일.

제주일보, “4·3 해원 방사탑 18일 제막식, 평화의 섬 수호탑으로”, 1998년 4월
11일.

한라일보, “북군 표지판 제주들로 탈바꿈”, 1998년 3월 6일.

<면 집>

- 강산옥, 개인면담, 제주도 북제주군 구엄리, 1998년 1월.
강창언, 개인면담, 제주도 북제주군 구엄리, 1998년 2월.
고영자, 개인면담,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중엄리, 1998년 1월.
고창립, 개인면담, 제주시 오등동, 1998년 2월.
김두천, 개인면담,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1997년 12월.
부창기, 개인면담, 제주시 오등동, 1998년 4월.
양맹아, 개인면담,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 1998년 1월.
오길목, 개인면담, 제주시 오등동, 1998년 4월.
이기생, 개인면담,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중동, 1997년 8월.
이순여, 개인면담,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1997년 11월.
임영석, 개인면담, 제주시 아라동, 1998년 2월.
정경성, 개인면담, 제주시 오등동, 1998년 2월.
진정희, 개인면담, 제주도 북제주군 신엄리, 1998년 3월.
한여옥, 개인면담, 제주도 북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1997년 11월.



<summary>

Kim Jong-Suk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Son Myoung-cheol

Cultured Stones in the Traditional Life at Cheju

with reference to their utilization as tools for life, materials for defending facilities, and the representative subject of fa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elp understand the Cheju local culture and explore the ancestors' spiritual world by clarifying the history and ways of using stones in the volcanoic island. this study also aims at providing local education materials.

This study is conducted based on reported theses and papers regarding Cheju and field work with taking photographs, actual measurement, and interviews with local personnel. The followings are examined and elaborated:

i) Stone as a tool of life and production - construction materials, household appliances and grounding for dwelling, tools related with cows and horses, ii) Stone as a materials for defence facilities - castle, a signal fire and a signal firepost, iii) Stone as a representative subjects of faith - Jangmyosuk (장묘석), Bangsatap(방사탑), Dolharbang(돌하르방), and iv) Stone as a functioning body of society - Tombstone-street(비석거리), Samsasuk(삼사석), Dungdol(등돌).

With reference to the above, also discussed are the ways to preserve them as a cultural asset in control against smuggling, and careful management and

attention with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s. The materials assembled and discus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local education materials, tourism resources and for everyday lif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1998, 8.